#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에 대하여

鄭 在 永*

## 1. 序 言

이 논문은 大德丙午(高麗 忠烈王 32년, 1306년)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順讀口訣 자료인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를 대상으로 하여 이것의 자료적인 성격과 口訣의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順讀口訣 資料인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의 경우 같은 판본으로 현존하는 자료에는 세 가지가 있다. 嚴仁燮本, 國立圖書館本,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高麗末 14세기 順讀口訣의 모습을 보여주는 資料들이다. 세 자료 모두 口訣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 異本들의 口訣 검토를 통하여 借字表記 체계와 14세기 국어의 모습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嚴仁燮本의 口訣에 대해서는 이승재(1990)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국립도서관本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本 등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口訣字와 口訣吐의 특징을 검토한다. 이승재(1990)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이들 자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吐들과 口訣字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자료를 대비한 전문을 부록으로 첨부한다.

---

* 韓國外國語大學校

## 2. ≪梵網經≫과 관련된 口訣資料에 대하여

2.1. 우리에게 일찍부터 많이 알려진 ≪梵網經≫은[1]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불교 경전 중 하나다. 이 책은 上卷과 下卷으로 되어 있다. 上卷에는 盧舍那佛에 대한 설명과 10發趣心, 10長養心, 10金剛心, 10地, 心地法門 등에 대한 설명이 있다. 下卷에는 10無盡藏戒品을 설한 내용으로 10重戒와 48輕戒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 중에서도 下卷이다.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는 별도의 독립된 經의 모습으로 1306년에 다시 간행되었다. 지금까지는 대개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을 흔히 약칭으로 ≪梵網經≫이라고 해왔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下卷만을 따로 뽑아 ≪菩薩戒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를 ≪梵網經菩薩戒≫本으로 통용하기로 한다. 이 經은 신라시대 이래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으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 ≪梵網經≫ 중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借字 吐가 기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趙明基씨 소장본인 ≪注梵網經≫이 있다. 이 책은 梵網經毘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을 惠因이 注를 붙인 經이다. 1986년에 보물 894호로 지정되었다. 1冊 92張, 冊大는 27㎝ 16㎝, 紙質은 楮紙이다. 이 책은 木版本으로 卷子本 또는 折帖本 形式의 木板에서 全葉 24行을 12행씩 찍어내어 線裝으로 묶은 것이다. 현재 五針 線裝本의 형태로 남아 있다. 上下單邊이고,

1) 본래 ≪梵網經≫(Brahmajālasutta)은 팔리語로 씌어진 南方上座部의 經藏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 내용과 실제를 잘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梵網經≫과는 다르다. 梵網이란 見網의 法門이라고도 한다. 또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듯이 모든 견해를 떠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上下間 21.5㎝, 無界, 全葉 24行 13字 註雙行이다. 版心題는 '戒'이다. 이 책의 '序'에 '大德二年(1298년) 七月望日 前監察御史郭天錫 盥水焚香謹序'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刊記가 脫落되어 정확한 刊年을 알 수 없다. 문화재관리국에서 刊行한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에 의하면 이 책을, 大德二年(1298년) 元나라 郭天錫의 序가 붙은 元板本을 입수하여 飜刻한 高麗板本으로 추정한 바 있다. 飜刻 時期도 高麗末頃으로 추정하였다. 동산문화재지정보고서에 제시된 사진에 보면 借字 吐가 기입된 것을 볼 수 있다.[2)]

둘째, 大德丙午(1306년) 鐵山紹瓊의 後識가 붙어 있는 책으로 현재 구결이 달린 것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전한다. 국립도서관 소장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그리고 이승재(1990)에서 검토된 바 있는 嚴仁燮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大德丙午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판본이다. 이 자료들에는 借字口訣이 전부 기입되어 있다. 각 자료마다 기입된 吐가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고려말 또는 조선 초기의 順讀口訣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자료에 대한 形態書誌的인 검토는 3에서 다룬다.

셋째, 李幸露 소장인 ≪梵網經≫과 ≪金剛般若波羅密經≫의 合本에[3)] 포함되어 있는 ≪梵網經≫도 고려본으로 추정하고 있다. 紙質은 楮紙이다. 上下單邊이고, 上下間 18.3㎝, 無界 全葉 25行 16字이다. 이 자료에도 借字口訣이 기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梵網經≫과 ≪川老金剛經≫을 合本한 것으로 ≪梵網經≫에는 跋文이 없으나, ≪川老金剛經≫에는 跋文이 있어 板刻年度를 알 수 있다. 즉 '洪武二十年(1387년) 秋七月二十五日 韓山府院君 臣 李穡 敬拔'이라는 기록에 근거하여 이 책의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

2) 아직까지 이 책을 실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책 전체에 借字 吐가 기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吐가 달려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 책에 기입되어 있는 借字吐를 검토함으로써 吐가 기입된 시기와 飜刻된 때와 간행 시기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이 책은 1987년에 보물 919호로 지정되었다.

## 3. ≪梵網經菩薩戒≫의 形態書誌的인 고찰

3.1. 여기서는 大德丙午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嚴仁燮本과 국립도서관本, 한국정신문화연구원本에[4] 대하여 그 形態書誌的인 특징을 살펴본다. 이 자료들은 14세기 順讀口訣의 모습을 보여주는 資料들이다.

大德丙午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後秦龜玆國 三藏' 鳩摩羅什 譯으로[5] 책 첫머리에 '梵網經菩薩戒序'가 있고, 본문 뒤에는 沙門 釋 僧肇가 述한 '梵網經菩薩戒後序'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瀟湘 古撝撒人 紹瓊이 敬題한 글이 있다. 이 부분에 간기가 나타난다. 이 부분의 서체는 본문 및 僧肇가 述한 後序와도 다른 서체로 글씨가 크고 힘이 넘치는 필체다. 鐵山 紹瓊의 친필일 가능성이 높다. 鐵山 紹瓊은 蒙山德異의 대표적인 계승자로 고려에 3년간 머물면서 江華 普門寺에 있던 대장경을 중국의 仰山으로 옮긴 인물이다.[6] 그가 고려에 머물던 때에 鐵山 자신의 친필과 인장이 모각된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가 독립된 경전의 모습으로 간행된 것이다.

현존하는 ≪梵網經菩薩戒≫의 세 가지 異本은 여러 번 개장된 흔적이 남아 있고 원래 표지는 확인할 수 없다. 卷首題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로 되어 있고, 卷尾題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로 되어 있어 卷首題의 '第十卷下'와 卷尾題의 '第十之下'가 차이를 보

---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本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도 보물 1131호로 지정된 바 있다.

5) ≪梵網經古迹記≫(3卷)는 新羅 太賢이 ≪梵網經菩薩戒≫에 대해 논하고 10重戒와 48輕戒에 대해 충실하게 주석한 책이다. 이 책에 의하면 ≪梵網經菩薩戒≫의 번역에는 鳩摩羅什의 번역 외에도 眞諦, 曇無讖 등이 번역한 것도 있다고 한다.

6) ≪高麗史≫와 李能和의 ≪朝鮮佛敎通史≫, 허흥식(1993:706-717)에 의하면 高麗 忠烈王 30년 甲辰(1304년) 가을 7월 己卯에 江南(揚子江 남쪽 지방)의 중 紹瓊이 와서 승지 安于器를 보내 교외에 나가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다. 紹瓊은 호를 스스로 鐵山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鐵山이 고려에 왔을 때 왕은 鐵山을 만나 그의 說禪을 들었고 淑昌院妃와 함께 보살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 외에도 鐵山의 행적 등에 대해서는 허흥식(1995:567-585)을 참조할 수 있다.

인다. 이 판본은 1행 16字本인데 卷首題와 卷尾題는 18字가 1行으로 판각되어 있다. 세 가지 異本 모두 같은 판목에서 찍어 낸 것이다.

大德丙午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이 책들은 木版本으로 현재 1冊 50張 線裝本의 형태로 남아 있다. 현재 전해지는 정문연本의 冊大는 22.6㎝ 14.9㎝이다. 이 책은 원래 折帖本 형식의 木板에서 12행 또는 13행씩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찍어낸 다음 線裝本으로 묶은 것이다.[7] 上下單邊이고, 上下間 18.6㎝, 無界 全葉 25行 16字이다. 紙質은 楮紙이다.

이 木版의 版式을 살펴보면 版心題는 '戒經'이다. 이 版心題와 판목의 차례를 나타내는 표시가 원래 折帖本 판식의 한 版의 일정한 위치에 판각되어 있었다. 제일 첫 번째 판목에는 '戒經 一'의 표시가 없다. 두 번째 판목 '戒經 二'부터 '戒經 二十四'까지는 版心題와 판목의 차례를 '戒經 二', '戒經 三' … '戒經 二十四'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간기가 나타나는 '紹瓊 敬題' 부분이 다른 서체로 따로 판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의 판심제는 '戒序'이다. 이 판목에는 鐵山 紹瓊의 세 가지 印章도 판각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보면 版心題의 판각된 위치가 각 판에서 일정하지 않다.[8] 그리고 같은 판본이기 때문에 본문의 서체는 세 종류

---

7) 이 책들은 본래 折帖本 形式의 木板에서 全葉 25行을 12행과 13행씩 임의로 나누어 찍어낸 다음 이 각각을 다시 반으로 접어 線裝本으로 묶은 책이다. 동일한 판목에서 찍어낸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 등은 접을 때도 각각 다르게 접었기 때문에 현존 線裝本의 한면의 行數가 엄인섭本과 국립도서관本과 정문연本 등에서 모두 차이를 보인다. 각 책의 한면의 행수는 일반적으로 6행이나 7행이지만 간혹 5행짜리도 있다. 그러나 원래의 折帖本 형식의 각 목판의 첫번째 행은 현존하는 세 종류의 이 책들에서도 1장의 전면, 3장의 전면, 5장의 전면 등의 첫 행으로 항상 일치한다. 이것은 全葉 25行인 판목에서 12행과 13행씩 임의로 나누어 찍어낸 다음 이 각각을 다시 반으로 접어 線裝本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각 책의 着墨 상태나 口訣吐의 차이 등으로 보면 이 3本은 동일 판목이지만 일정한 시기를 두고 따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8) 이 책에서 일반적으로 版心題는 上邊에서 약 5㎝ 아래에, 장차 표시는 下邊에서 약 5㎝ 정도 위에 판각되어 있다. 이 版心題와 張次 표시가 각 판에서 새겨져 있는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 즉 홀수판은 주로 5행과 6행 사이에 版心題가 새겨져 있고, 짝수판은 10행과 11행 사이에 새겨져 있다. 단 19판과 20판은 다르다. 19판은 15행과 16행 사이에, 20판은 20행과 21행 사이에 새겨져 있다.

의 현존본 모두가 동일하지만 글자의 마모 정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이 중 정문연本이 가장 후쇄본일 가능성이 높다.[9] 또 판심제와 張次 번호의 글자 모양과 크기 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판심제와 장차 표시 중 이미 마모되었거나 잘못된 것은 각 책을 찍어낼 당시에 새로 새겼기 때문이다. 제1판에서 10판까지와 13판, 14판, 15판, 23판, 24판 등의 판심제와 장차 표시는 글자의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으로 이 판이 처음 새겨졌을 때 같이 새겨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에 비해 제11판과 12판, 17판부터 22판까지는 판심제와 장차 번호의 글자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이런 차이는 엄인섭본, 국립도서관본, 정문연본이 같다. 다만 엄인섭본의 '戒經 十九'가 국립도서관本이나 정문연本의 '戒經 十九'와는 글자 모양과 크기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고 다음에서 살펴볼 口訣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이 세 가지 異本 중 가장 앞서 간행된 자료는 엄인섭本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이것보다는 후쇄본이다. 그런데 그 시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이 판본의 본문에는 아주 많은 異體字를 사용하고 있다.

3.2.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의 내용 체제는 다음과 같다.

梵網經菩薩戒序
序分
十重戒(序, 십중계, 십중계의 總結)
四十八輕戒(序, 48경계, 48경계의 總結)
流通分
持戒의 讚戒
梵網經菩薩戒後序

이 책은 이와 같이 序分과 流通分을 갖추어 한 권의 독립된 經典으로서

9) 이 자료에 기입된 口訣도 다른 두 종류에 비해 후대형이다. 이에 대해서는 4에서 구체적으로 살필 것이다.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 ≪梵網經菩薩戒≫에는 10重戒와 48輕戒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대승의 보살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계율인 10重戒와 48輕戒는 大乘戒이다. 그 특성은 在家나 出家의 구별이 없이 자기의 佛性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佛經은 특히 부모, 師僧, 三寶 등에 孝順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孝順과 慈悲를 중시하고 중생이 佛戒를 받으면 곧 諸佛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불자가 自覺을 바탕으로 하여 菩薩道를 행하여야 함을 강조한 戒經이다. 孝를 강조한 것을 보아 중국적인 성격이 강한 佛經으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설하는 10重戒는 10가지의 波羅夷罪를 말한다. 波羅夷란 律藏에서는 교단으로부터 추방해야 할 죄를 의미한다. 이 내용의 전문은 뒤에 첨부한 세 가지 현존 자료를 대비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梵網經菩薩戒≫의 대승계는 출가와 재가인에게 두루 적용되는 계율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을 근거로 한 보살계도량과 수계법회가 많이 개설된 바 있다. 이 책의 현존하는 판본으로는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大德丙午(1306년)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木版本이 있다. 이 외에도 1691년의 안심사판과 1743년의 보현사판, 1797년의 영각사판 등과 조선말 全史字로 찍은 활자본도 있다. 그리고 1769년에 새긴 목판이 안동 봉정사에 남아 있고 해인사에도 조선 후기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 4. 文字體系와 口訣吐의 특징

4.1. 4장에서는 앞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嚴仁燮本, 國立圖書館本, 精文研本 등의 ≪梵網經菩薩戒≫ 順讀口訣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口訣字의 문자체계와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들에는 借字口訣이 모두 기입되어 있다. 각 자료마다 기입된 口訣吐가 차이를 보인다. 기입된 구결토들을 검토해 보면 이들이 14세기의 順讀口訣 資料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嚴仁燮本 口訣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승재(1990)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국립도서관本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本 등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이 세 자료에 보이는 口訣字와 口訣吐의 특징을 검토할 때에 이승재(1990)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이 자료들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들과 口訣字의 역사적인 변청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려고 한다.

嚴仁燮本은 細筆로 口訣吐를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입하였다. 국립도서관본의 口訣도 嚴仁燮本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기입된 것이다. 그런데 정문연本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자료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문연本에는 懸吐된 위치가 잘못된 곳이 눈에 많이 띈다. 잘못 기입된 吐를 화살표 등의 표시로 토의 기입 위치를 정확하게 정정한 것도 보인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보면 정문연本의 경우는 口訣을 기입한 사람이 이 불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직접 현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문연本 구결은 이것을 기입한 기사자가 다른 정본을 보고 구결을 베꼈거나 아니면 스승에게 배우면서 기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쉬운 문맥에서도 吐의 기입된 위치가 아주 잘못된 점을 고려한다면 정문연本은 구결토를 베끼는 과정에서 착시 등으로 인하여 잘못 베꼈기 때문에 吐가 엉뚱한 자리에 붙어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문연本은 記入 口訣 資料의 성격을 구명하는 또 다른 면에서 의미가 있다. 기입 구결 자료 중 일반적으로 細筆로 아주 깨끗하고 정확하게 기입된 자료들은 그 때까지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해석과 번역에 통일된 전통을 대개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참고로 하여 吐를 베낄 때에 착시 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엉뚱한 곳에 吐를 잘못 기입한 것도 생기게 된다.

4.2. 엄인섭本의 구결자 목록은 이승재(1990)에서 43字로 제시된 바 있다. 국립도서관本과 정문연本에서 사용된 구결자를 함께 검토해 보면 그 문자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제시한 音은 각 口訣字의 대표음을 말한다. 각 口訣字의 음의 전용은 이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 音 | 嚴仁燮本 | 國立圖書館本 | 精文硏本 |
|---|---|---|---|
| 1) ㄱ,기 | 八 | 八 | 只 |

| | | | | | |
|---|---|---|---|---|---|
| 2) | 거 | 厶 | 厶 | 厶 | 去 |
| 3) | 고 | 口 | 口 | 口 | 古 |
| 4) | 과 | 果 | | | 果 |
| | 와 | 人 | 人 | 人 | 果 |
| | | | 卜 | | 臥 |
| 5) | 온/은 | 冂 | 冂 | 冂 | 隱 |
| 6) | 느 | 匕 | 匕 | 匕 | 飛 |
| 7) | 눌 | 斤 | 斤 | 斤 | 斤 |
| 8) | 나 | 乃 | 乃 | 乃 | |
| 9) | 노 | 又 | 又 | 又 | 奴 |
| 10) | 니 | 匕 | 匕 | 匕 | 尼 |
| 11) | 드 | 朩 | 朩 | 朩 | 等 |
| | | 月 | | | 月 |
| | | 入 | 入 | 入 | 入 |
| 12) | 다 | 丨 | 丨 | 丨 | 多 |
| 13) | 대 | 大 | 大 | 大 | 大 |
| 14) | 더 | 厶 | 厶 | 厶 | 矣 |
| 15) | 뎡 | 丁 | 丁 | 丁 | 丁 |
| 16) | 도 | 刀 | 刀 | 刀 | 刀 |
| 17) | 디 | 矢 | 矢 | | 知 |
| | | | | 土 | 地 |
| 18) | 올/을 | し | し | し | 乙 |
| 19) | 라 | 冫 | 冫 | 冫,丶 | 羅 |
| 20) | 로 | 灬 | 灬 | 灬,灬 | 以 |
| 21) | 리 | 禾 | 禾 | 禾 | 利 |
| 22) | 며 | 分 | 分 | 分 | 彌 |
| 23) | 면 | | | 尸 | 面 |
| 24) | ㅅ | 七 | 七 | 七 | 叱 |
| 25) | ᄉᆞ | 士 | 士 | 士 | 士 |
| 26) | 사/사 | 氵 | 氵 | 氵 | 沙 |
| 27) | 샤 | 舍 | 舍 | 舍,舍 | 舍 |

| | | | | |
|---|---|---|---|---|
| 28) 셔 | | | 西 | 西 |
| 29) 시 | 亍 | 亍 | 亍 | 示 |
| | | | 乀 | 是 |
| 30) 아 | 阝 | 阝 | 阝,阝 | 阿 |
| 31) 아/애 | 丶 | 丶 | 丶 | 良 |
| 32) 어 | 冫 | 冫 | 冫,才 | 於 |
| 33) 여 | 亠 | 亠 | 亠 | 亦 |
| 34) 예 | | | 曳 | 曳 |
| 35) 오 | 午 | 午 | 午 | 午 |
| 36) 옥 | 玉 | | | 玉 |
| 37) 요 | 覀 | 覀 | 覀 | 要 |
| 38) 의 | 衤 | 衤 | 衤 | 衣 |
| 39) 이 | 刂 | 刂 | 刂,乀 | 是 |
| 40) ᄒᆞ | 丷 | 丷 | 丷 | 爲 |
| 41) ᄒᆡ/긔 | 十 | 十 | 十 | 中 |
| 42) 호 | 丿 | 丿 | 丿,ㄏ | 乎 |
| 43) 히 | 㐌 | 㐌 | 㐌 | |
| | 43字 | 41字 | 50字 | |

앞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엄인섭本에서는 43字의 구결자가 사용되었고, 국립도서관本에서는 41字, 정문연本에서는 50字의 口訣字가 사용되었다.[10] 이와 같이 엄인섭本과 국립도서관本, 정문연本 등은 口訣字의 문자 체계상 차이를 보인다. 정문연本의 口訣 文字體系의 특징은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

10) 口訣字形의 설정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정문연本의 '阝(며)'字와 국립도서관本에서의 'ㄏ(호)'字의 사용 여부 문제다. 만약 국립도서관본 <15b>에서 'ㄏ'字가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국립도서관本에서는 42字가 사용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자형이 뚜렷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문연본의 '阝(며)'字의 자형에도 다소 異見을 가질 수 있다. 기입되어 있는 '阝'字의 모양은 이것과는 다소 다른 모양(乀)을 보이는 것도 있다. 필자는 이것을 구결 기입자(또는 기사자) 개인의 서체적인 차이로 본다. 후대의 '才' 자형으로 넘어가기 전의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 세 異本의 구결 문자 체계를 비교해 보면, 같은 음절을 표기하는 데 서로 다른 구결자를 사용하는 등, 구결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이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 안동본, 남권희본, 기림사본, 가람본, 송성문본 등의 ≪楞嚴經≫ 순독구결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서도 구결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4.2.1. 'ㅅ'字는 '只'의 약체자로 정문연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梵網經菩薩戒≫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 'ㅣㅅ'와 'ㅅᄀㅅ'로만 나타난다. 이 'ㅣㅅ'와 'ㅅᄀㅅ'는 그 동안 口訣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이승재(1990)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ㅣㅅ'의 문법적 기능에 대해서는 4.3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口訣字 'ㅅ'는 'ㄱ'을 표시하는 데 쓰이거나 또는 '기'를 표시하는 데 쓰인다. 'ㅅ'는 鄕歌와 吏讀에도 쓰인 '只'의 약체자다. 口訣字 'ㅅ'는 釋讀口訣 자료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ᄂᆞᆯㅅ(ᄒᆞ약), ᄂᆞᄅㅅ(ᄒᆞ곡)' 외에도, 15세기의 문법과는 다른 기능을 보였던 즉 '-ᄒᆞㅅᄃᆡ-', '有ナㅅᄃᆡ-', '-ᄇᆞㅅᄃᆡ-', '-ᄅㅅᄃᆡ(ᄅㅅ勿)-', '-ㅊㅅᄃᆡ-', '-ㅣㅅ白ᄒᆞ-' 등의 환경에서 사용된 'ㅅ'도 있었다. 이 환경에서 나타났던 'ㅅ'는 그 문법 기능의 소멸로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말, 조선초의 順讀口訣 자료에서 구결자 'ㅅ'는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順讀口訣 資料 ≪梵網經菩薩戒≫의 'ㅣㅅ(이기)'를 제외하면 주로 'ᄂᆞᆯㅅ, ᄂᆞᄅㅅ' 등에 강세첨사 'ㄱ'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 15세기의 '-게 ᄒᆞ-' 구문에 대응되는 사역구문으로 'ㅊㅅ ᄂᆞ-'가 쓰이기도 하였다.[11] 그렇다고 해서 이 경우의 'ㅊㅅ'를 '게'로 읽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口訣字 'ㅅ'는 일반적으로 15세기 초의 구결 자료까지 쓰이다가 그 이후로는 口訣字로 잘 쓰이지 않았다.

---

11) 'ㅊㅅ'는 규장각 소장으로 '일사 貴 294.334 B872w'로 분류되어 있는 ≪大方廣圓覺略疏注經≫ 卷下에 나타난다. 이 자료에서 'ㅊㅅ ᄂᆞ-'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특이하다. 15세기의 사역 구문 '-긔 ᄒᆞ-'와 '-게 하-'에 대응되는 구문이 고려말 조선 초기의 순독구결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ㅊᄀᆞ ᄂᆞ-' 또는 'ㅊㅣ ᄂᆞ-', 'ㅊ ᄂᆞ-'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ㅊㅅ ᄂᆞ-'로도 나타난다.

4.2.2. '厶(거)'와 'ㅁ(고)'는 각각 '去'와 '古'의 약체자로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어 후대까지 사용된 口訣字이다.

'果'는 '-과'를 표기하는 데 사용한 구결자이다. '-과/와'를 표기한 口訣字에는 'ㅅ', '果', 'ㅏ', 'ホ', '曰' 등이 있다. 이 중 '果(과)'는 안동본 ≪楞嚴經≫ 등 초기 순독구결 자료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구결자이다. 여기서도 '果'字는 엄인섭본에서만 나타난다. 엄인섭본에서는 15세기와 마찬가지로 '果(과)'字와 'ㅅ(와)'字를 음운론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는 '果'로 표기하고, 'ㄹ'이나 모음 뒤에서는 'ㅅ'로 표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립도서관본에서는 '-과/와'를 표기하는 데 'ㅅ', 'ㅏ(와)' 등을 사용하고 있다. 구결자 'ㅏ'는 '臥'의 오른쪽 부분을 딴 약체자로 '와'를 표기하고 있다. 'ㅏ'字는 釋讀口訣에서도 나타나는데 순독구결 자료에 쓰이는 'ㅏ(와)'와는 다르다. 즉 釋讀口訣에서 사용된 'ㅏ'는 '臥'의 訓을 빌려 '누'로 읽혔다. 이 'ㅏ(누)'字는 선어말어미 '-ᄂᆞ-'와 관련된 口訣字로만 사용되었다.[12]

정문연본에서는 '-과/와'를 표기하는 데 'ㅅ'字만 사용하고 있다.

'ㅅ'와 'ホ', '曰' 등은 모두 '果'字의 약체자이다. 이 중 'ホ'와 '曰'는 'ㅅ'보다는 후대에 쓰이기 시작한 구결자로써 '-과'를 표기하는 데 쓰였다. '曰'는 남권희本 ≪楞嚴經≫에 보인다. 그 이후 자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ホ'字는 송성문本 ≪楞嚴經≫과 ≪佛說四十二章經≫ 등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구결자료에는 많이 나타난다.

4.2.3. 'ㄱ(온)'字는 '隱'字의 약체자이다. 이것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구결자다. 고려말과 조선시대부터는 'ㅁ, ㅁ' 등도 '온'을 표기하는 데 쓰였다. 일반적으로 16세기 이후의 刊本 資料인 인쇄 吐에서는 '-은'을 표기하는 口訣字로 '隱'字를 사용했다.

'斤'字는 '斤'자를 그대로 구결자로 사용한 것이다. '斤'은 釋讀口訣 자료인

12) 정확히 말하자면 '-ᄂᆞ-'와 '-오-'가 통합한 어형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석독구결이 사용된 시대에는 이것과 관련된 어형으로 'ㅏ(누)'와 '奴'의 약체자인 '乂(노)'를 썼다. 이 '乂(노)'字는 석독구결 자료에서만 보인다. 초기 순독구결자료에서부터 '又(노, 로)'字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華嚴經≫ 卷十四와 ≪瑜伽師地論≫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구결자이다. '斤'은 'ㅁ斤'이나 'ㅅㅋ斤' 등 일정한 吐에서만 쓰이는 구결자이다. 대체로 고려말에서 조선초기의 자료에 많이 쓰였다. 석독구결에서는 'ㅁㅅ斤(코기놀)'도 보인다.

釋讀口訣이 사용된 시대에는 '奴'의 약체자로 'ㄨ(노)'를 썼다. 초기 순독구결자료에서부터 'ㄡ'로 나타나 'ㄡ(노)'字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여기 세 자료도 'ㄡ'로 나타난다. 순독구결에서 'ㄡ'는 일반적으로 '노' 또는 '로'를 표기하는 데 쓰인다.

4.2.4. 의존명사 'ᄃᆞ' 또는 이와 관련된 어형들을 표기하는 데 주로 엄인섭本에서는 'ㅅ', 'ㅈ', 'ㅂ' 등이 사용되었다. 국립도서관本과 정문연本에서는 'ㅅ', 'ㅈ' 등으로 'ᄃᆞ'를 표기하였다. 'ᄃᆞ'와 관련된 표기로 시기가 가장 앞서는 口訣字는 '入'의 초서체로 약체자를 만든 'の'字이다. 'の'는 ≪舊譯仁王經≫ 등에 쓰인 구결자다. 일반적으로 釋讀口訣에는 'の'字와 'ㅅ'字로 'ᄃᆞ'를 표기하였다. 'ㅈ', 'ㅂ' 등은 안동본 ≪楞嚴經≫ 등의 초기 순독구결 자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엄인섭本과 국립도서관本과 정문연本에서는 'ㅅ', 'ㅈ'로 'ᄃᆞ'를 표기하는 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ᄃᆞ/드-'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다. '-ᄃᆞ/드-'는 15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발굴된 釋讀口訣에서는 선어말어미 '-ᄃᆞ/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4.3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ㅿ(ᄃᆡ)'는 '矣'의 약체자로 석독구결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후대까지 많이 쓰인 구결자이다. ≪華嚴經≫ 卷十四에는 '矣'字가 그대로 구결자로 쓰이기도 하였다.

예문 (1)에서 알 수 있듯이 'ᄃᆡ'를 표기하는 口訣字로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ㅊ'字가 쓰였고, 정문연본에서는 'ㅌ(ᄃᆡ)'字가 쓰였다. 'ㅊ'字는 '知'의 약체자로 ≪舊譯仁王經≫에도 사용된 구결자이다. 釋讀口訣 자료에서는 'ㅊ'字로만 나타난다. 'ㅌ'의 경우는 '地'의 약체자로 안동본 ≪楞嚴經≫과

≪梵網經菩薩戒≫ 등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고려말 조선시대 구결 자료에서는 이 'ㅗ' 字形이 많이 쓰이게 되었다.

(1)ㄱ. 壯色ㅣ 不停ㅅ又ㄱ矣//ㅅ又ㄱㅗ 猶如奔馬ㅅ가 人命ㅣ 無常ㅣ又ㄱ矣//ㅣ又ㄱㅗ 過於山水ㅅㅌᄉ 今日0/0/ㅋ 雖存ㅅ乃 明亦難保ㅣㅌᄉ//ㅅㅌᄉ <梵網1b-2a>[13]

ㄴ. 如是十戒ㄴ 應當學ㅅㅋ 敬心奉持ㅅ亻ㅌ 如滅罪品中ㅋ 廣明一一戒相ㅅㄱ矣七ㅈㅣ//ㅅㄱㅗ七ㅈㅣ <梵網23a>

안동본 ≪楞嚴經≫에는 '矣'와 'ㅗ' 둘 다 쓰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矣'字는 안동본 ≪楞嚴經≫과 엄인섭본 ≪梵網經菩薩戒≫ 등의 자료에서까지 주로 쓰이다가 그 이후에는 'ㅗ'字로 대체되고 '矣'字는 잘 쓰이지 않게 되었다. ≪直指心體要節≫에도 '矣'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口訣字 '矣(디)'도 이것이 사용되었는가 사용되지 않았는가에 따라 口訣의 기입 연대를 대체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구결자 중 하나다.

4.2.5. 'ㅣ(다)'는 '多'의 약체자로 추정된다. 釋讀口訣에서는 종결어미뿐만 아니라 의존명사로도 쓰였다.

'大(대)'字는 석독구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구결자이다. 즉 이 자형은 순독구결 자료에서부터 나타난다.

'丁'은 '뎌' 또는 '뎡'을 표기하는 구결자이다. 석독구결에서는 주로 '-뎌'를 표기하는 데만 쓰였다. '丁'이 '뎡'으로 읽히는 것은 '-건뎡/-언뎡'의 일부로 표기될 때이다. 이 세 자료에서는 전부 '-건뎡/-언뎡'의 '뎡'자를 표기하는 데만 쓰였다.

---

13) 본고에서 제시하는 용례는 '嚴仁燮本 / 국립도서관본 / 정신문화연구원본'의 순서로 吐를 제시하였다. 엄인섭本을 기준으로 하여 '/ ' 뒤에는 국립도서관본, '// ' 뒤에는 정신문화연구원本의 토를 표시한다. 같은 토일 때는 '/' 뒤에 적지 않는다. '/○', '//○' 등은 각각 국립도서관본과 정신문화연구원본에는 대응되는 토가 없음을 뜻한다. 吐가 완전히 같을 때에는 '/ ' 이하를 기록하지 않는다. 편의상 장차 표시는 嚴仁燮本으로 표시한다. 왼쪽토는 { }로 묶었다. 불확실한 토는 (?)로 표시한다.

4.2.6. 釋讀口訣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명사형 '-옳'과 대격조사 '-올'을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동명사형 '-옳'은 주로 'ᄐᆞ'字로 표기하였고, 대격조사 '-올'은 'ㄴ'字로 표기하였다. 이 중 'ᄐᆞ'字는 釋讀口訣 이후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ㄴ'字가 이 두 경우에 다 쓰이게 되었다. 口訣字로 'ㄴ'과 'ㄹ'이 쓰이는데 이 둘 중 'ㄹ'字가 다소 후대 문헌에 나타나는 구결자형이다.

이 자료들에서도 'ㄴ'이 동명사형 '-옳'과 대격조사 '-올'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 'ㄴᄲᆞ(-ᄋᆞ로/으로)' 또는 'ㄴᄉᆞᄀᆡ(-ᄋᆞ란/으란)'으로도 나타난다.

及以刀杖ㄴᄲᆞㅁᄀᆞ(ᄋᆞ로코도)/ᄲᆞㅁᄀᆞ(로코도)/
是五種ㄴᄉᆞᄀᆡ　一切肉ㄴᄉᆞᄀᆡ　乃至一切女人ㄴᄉᆞᄀᆡ

이 예들에서 알 수 있듯이 'ㄴᄲᆞ(-ᄋᆞ로/으로)' 또는 'ㄴᄉᆞᄀᆡ(-ᄋᆞ란/으란)'이 현토되어 있는 마지막 漢字들이 전부 받침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ㄴ(올/을)'은 뒤에 오는 '-로'와 '-란'의 두음과 중복되므로 이 경우에서는 'ㄴ'이 매개모음으로 사용된 것이다.

4.2.7. 구결 자료에서 '라'를 표기하는 데는 'ㅛ', 'ㅅ', 'ㆍ', '罒' 등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모두 '羅'의 약체자이다. 이 중 'ㅛ'가 가장 이른 시기에 사용된 口訣字이다. 釋讀口訣에서는 이 'ㅛ(라)'字만 쓰였다. 그 이후에 'ㅅ'가 쓰였고, 'ㆍ'字는 주로 조선 초기 이후의 자료에 많이 쓰이게 되었다. 조선 초기 자료에서는 한 문헌에 'ㅅ'와 'ㆍ'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안동본과 남권희본 ≪楞嚴經≫에서는 'ㅅ'만 나타나는 데 반해 송성문본 ≪楞嚴經≫에서는 'ㅅ'와 'ㆍ'가 같이 쓰이고 있다. ≪梵網經菩薩戒≫의 경우도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ㅅ'字만 쓰였지만, 정문연본에서는 'ㅅ'와 'ㆍ'字가 같이 쓰였다.

'罒'와 '羅'字등은 16세기 이후 자료에 많이 보인다.

4.2.8.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 쓰인 'ᄲᆞ'와 정문연본에 쓰인 'ᄲᆞ, ᄲᆞ' 등

은 '以'의 약체자이다. 釋讀口訣에는 'ᄉ'字로 쓰여 자형상 차이를 보인다.

4.2.9. '-며'의 경우는 세 자료 모두 'ᄀ'로 표기하고 있다. '며'字도 구결자 형에서는 시대에 따라 자형이 다르게 나타나는바 釋讀口訣에서는 'ᄀ'字로 표기되었고, 朝鮮初 이후부터 'ᄆ'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1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ᄆᆞ', '旀', '弥', '彌' 등이 '며'를 표기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정문연본에서는 'ᄀᆞ'이 나타난다. 'ᄀᆞ'은 '面'의 약체자로 '-면'을 표기하는 것이다. 'ᄀᆞ'字는 안동본과 남권희본 ≪楞嚴經≫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順讀口訣 자료에서도 '-면'을 표기할 때는 '-ᄀᆞᄀᆡ'으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ᄀᆞᄀᆡ'으로 표기된 자료가 '-ᄀᆞ'으로 표기된 자료보다 다소 시기가 앞서는 것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다.

釋讀口訣에서는 문법 吐 '-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른 吐들이 문맥상 "-으면"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대개 이들 吐에는 'ᄀᆡ(-은)'이 통합되어 있다.

4.2.10. 'ᄎᆡ(ㅅ)'은 '叱'의 약체자로서 借字表記 초기 단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여 후대까지 사용된 口訣字이다.

'ᄉᆞ(ᅀᅡ/사)'는 '沙'의 약체자로 석독구결에서부터 많이 쓰였다. 이 자료에서는 'ᄋᆞᄉᆞ(-애ᅀᅡ)' 'ᄂᆞᄋᆞᄉᆞ(ᄒᆞ야ᅀᅡ)', 'ᄂᆞᄒᆡᄉᆞ(ᄒᆞ니ᅀᅡ)', 'ᄂᆞᄎᆡᄉᆞ(ᄒᆞ리ᅀᅡ)' 등으로 나타난다.

(2)ㄱ. 明人ㅣ 忍彗强ᄂᆞᄒᆡᄉᆞ//ᄂᆞᄎᆡᄉᆞ 能持如是法ᄂᆞᄎᆞᄉᆞ 未成佛道間ᄋᆞ 安獲五種利ᄂᆞᄒᆡᄒᆞᄉᆞ//ᄂᆞᄒᆡᄒᆞ・<梵網45a>

ㄴ. 而敎戒師ㅣ//ㄱ 於是法中ᄋᆞ 一一好解ᄂᆞᄋᆞᄉᆞᄂᆞᄎᆞᄒᆞ 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ᄂᆞᄀᆞ//ᄂᆞᄀᆞ 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不可壞性道種性正性其中多少觀行果/人/ 出入十禪支ᄂᆞᄋᆞ 一切行法ᄂᆞ 一一不得此法中意ᄀᆞᄒᆞ<梵網38b-39a>

ㄷ. 如是十戒ᄂᆞ 應當學ᄂᆞᄋᆞ 敬心奉持ᄂᆞᄎᆞᄒᆞ//ᄂᆞᄎᆞᄉᆞ 八萬威儀品ᄋᆞᄉᆞ//ᄂᆞᄋᆞᄉᆞ 當光明{ᄂᆞᄎᆞᄉᆞ}ᄂᆞᄒᆞᄉᆞ// <梵網14b>

예문 (2ㄱ)에서 알 수 있듯이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의 'ᄉᆞᄒᆡ'에 대해 정문연본에서는 'ᄉᆞᄎᆡ'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ᄉᆞᄒᆡ(ᄒᆞ니ᅀᅡ)', 'ᄉᆞᄎᆡ(ᄒᆞ리ᅀᅡ)'에서 'ᄒᆡ(니)'와 'ᄎᆡ(리)'는 선어말어미가 아니다. 口訣 吐 'ᄉᆞᄒᆡ'와 'ᄉᆞᄎᆡ'는 각각 'ᄒᆞ-'에 동명사형어미 '-ㄴ'과 '-ㄹ'에 계사 '이-'와 첨사 '-ᅀᅡ'가 통합된 구성체로 볼 수도 있고, 또 'ᄒᆞ-'에 관형형어미 '-ㄴ'과 '-ㄹ'에 의존명사 '이'와 계사 그리고 첨사 '-ᅀᅡ'가 통합한 구성체로도 볼 수 있다. (2ㄱ)의 'ᄉᆞᄒᆡ'와 'ᄉᆞᄎᆡ'는 후자의 경우로 분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5세기 국어에서 일반적으로 '-ᅀᅡ'는 체언이나 부사에 직접 통합되기도 하며, 조사와 부동사형과도 통합한다. '거/어'와 통합한 '-거ᅀᅡ/어ᅀᅡ', '-거시ᅀᅡ' 그리고 '-고ᅀᅡ', '-거늘ᅀᅡ' 등으로도 나타난다.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서는 이외에도 계사에 직접 통합된 'ㅣᆞᄒᆡ(이ᅀᅡ)'와 'ㅣᄂᆞᄒᆡ(이시ᅀᅡ)' 등도 존재한다.

예문 (2ㄴ)의 'ᄉᆞᄒᆞᆡ(ᄒᆞ야ᅀᅡ)'는 부동사형 '-아'에 통합된 것이며, (2ㄷ)의 'ᄒᆞᆡ(-애ᅀᅡ)'는 처격 '-ᄒᆞ'에 직접 통합된 것이다. 예문 (2ㄷ)에서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의 'ᄒᆞᆡ'에 대한 정문연본의 'ᄉᆞᄒᆞᆡ(ᄒᆞ야ᅀᅡ)'는 다소 어색하다. 이 문장은 "이와 같은 십계를 마땅히 배워서 존경하는 마음으로(마음을 다하여) 받들어야 할 것이다. 팔만위의품에서도 자세히 밝혔다" 정도로 해석되므로 'ᄒᆞᆡ(-애ᅀᅡ)'로 현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2.11. 'ᄉᆞᆫ'는 의존명사 'ᄉᆞ'를 표기하는 데 주로 사용된 口訣字다. 이 'ᄉᆞᆫ' 字가 釋讀口訣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의존명사 'ᄉᆞ'의 생성 시기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의미 기능면에서 다소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ᄃᆞ'에 비해 'ᄉᆞ'가 후대에 발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ㄱ. 若佛子常起大悲心ᄉᆞᄒᆞ 若入一切城邑舍宅ᄉᆞᄂᆞᆫᄉᆞᆫㅁᆡ 見一切衆生口斤 應當唱言ᄂᆞᆷ 汝等衆生ㄱ 盡應受三歸十戒ㅁᆡᄉᆞᆷᄀᆞᄎᆞᄉᆞᆫ/ㅁᆡᄉᆞᆷᄀᆞᄉᆞᆼᄀᆞ/ᄋᆞᄀᆞᄉᆞᆼᄀᆞ<梵網41a>

ㄴ. 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ᄉᆞᄒᆞ(梵網35b) 齋會求福ᄉᆞᄀᆞ 行來治生{ᄉᆞᄒᆞ}ᄉᆞᄂᆞᆫᄉᆞᆫㅁᆡ// 大火所燒ㅁᆡᄉᆞᆷᄀᆞ//ㅁᆡᄋᆞᄀᆞ 大水所漂ㅁᆡᄉᆞᆷᄀᆞ//ㅁᆡᄋᆞᄀᆞ 黑風所吹船舫ㅁᆡᄉᆞᆷᄀᆞ//ㅁᆡᄋᆞᄀᆞ 江河大海羅刹之難ㅁᆡᄉᆞᆷᄀᆞᄉᆞᆼᄒᆡᄇᆞ//ㅁᆡᄋᆞᄀᆞᄉᆞᆼᄒᆡᄇᆞ

<梵網36a>

ㄷ. 若頭陀行道ᄋᆞᆫ 乃至夏坐安居ᄋᆞᆯᄊᆞᆫ 是諸難處ᄋᆞᄉᆞᄀᆞ//(ᄋᆞᄉᆞᄀᆞ) 悉不得入ᄂᆞᆺᄒᆞ 若故入者ㄱ//ㄱᄎᆞᄀᆞ 犯輕垢罪<梵網34b>

ㄹ. 誦者ㄱ//0 高座ᄀᆞᆺᄋᆞᆫᄀᆞ 聽者ㄱ 下坐ᄋᆞᄉᆞ(梵網34a) 各各披九振七振五振袈裟ᄂᆞᆺᄉᆞ 結夏安居ᄋᆞᆯᄊᆞᆫᄒᆞᄀᆞ//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 一一如法ᄂᆞᆺᄉᆞ <梵網34b>

ㅁ. 若佛子常應二時頭陀ᄒᆞᄂᆞᆺᄉᆞ/ᄂᆞᆺᄉᆞ/ᄒᆞᄂᆞᆺᄉᆞ 冬夏坐禪結夏安居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ᄋᆞᆯᄉᆞᆫᄀᆞᄀᆞ/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 常用楊枝澡豆三衣甁鉢坐具錫杖香爐漉水囊手巾刀子火燧噉子繩床經律佛像菩薩形像ᄂᆞᆺᄉᆞ <梵網33b>

ㅂ. 七逆者ㄱ 出佛身血ᄋᆞᆫᄀᆞ 殺父ᄋᆞᆫᄀᆞ 殺母ᄋᆞᆫᄀᆞ 殺和上ᄋᆞᆫᄀᆞ//0 殺阿闍梨ᄋᆞᆫᄀᆞ 破羯磨轉法輪僧ᄋᆞᆫᄀᆞ 殺聖人ᄋᆞᄒᆞᄉᆞ <梵網37a>

예문 (3)에서처럼 'ᄋᆞᆯᄉᆞᆫ(홀씨)', '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홀씨ᄂᆞᆫ)', '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 'ᄋᆞᆯᄉᆞᆫᄀᆞ' 등으로 나타난다. 'ᄋᆞᆯᄉᆞᆫ'는 구결 자료에서 주로 '홀씨'를 표기한 吐로 사용된다. 자료에 따라 'ᄋᆞᆯᄉᆞᄒᆞ(홀씨)'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 '-ㄹ씨'는 역사적으로 [[[-ㄹ]#ᄉᆞ]+ᄋᆡ]가 통합하여 생성된 통합형어미이다. 예문 (3ㄹ)에서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의 '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홀씨ᄂᆞᆫ)'에 대한 정문연본 '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은 '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의 생략 표기이다. (3ㅁ)은 세 異本이 전부 吐의 표기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이 같은 吐를 표기한 異表記임을 알 수 있다. 국립도서관본에서는 'ᄋᆞᆯᄉᆞᆫᄒᆞᄀᆞ(홀씨ᄂᆞᆫ)'과 'ᄋᆞᆯᄉᆞᆫᄀᆞ(홀씬)'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3ㅂ)의 'ᄋᆞᆯᄒᆞᄉᆞ(홀시라)'는 'ᄒᆞ+ㄹ#ᄉᆞ+이+라'의 구성체이다. 즉 의존명사 'ᄉᆞ'가 계사와 통합한 어형이다. 이 자료에서는 의존명사 'ᄉᆞ'에 주격이 통합된 구성 'ᄋᆞᆯᄒᆞ(홀 씨: 홀#ᄉᆞ+이)'나 대격이 통합된 구성 'ᄋᆞᆯᄉᆞᆯ(홀 쏠: 홀#ᄉᆞ+ᄋᆞᆯ)'은 보이지 않는다.

4.2.12. '샤'를 표기하는 借字로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는 'ᄉᆞᆯ'를 사용하였고, 정문연본에는 'ᄉᆞᆯ'와 'ᄉᆞᇰ'를 사용하였다. 안동본 ≪楞嚴經≫에서도 'ᄉᆞᆯ'와 'ᄉᆞᇰ'가 같이 쓰였다. 15세기 중엽 이후에는 'ㅅ'字가 주로 쓰였다.

釋讀口訣에서는 존칭선어말어미를 표기할 때 '賜'의 약체자인 'ㅁ'字가 쓰였다. 존칭을 나타내는 '賜'字는 鄕歌에서도 쓰였다.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 존칭선어말어미 '-시-'는 'ㄷ'字로 표기하고 있다. 정문연본에서는 'ㄷ'외에 'ㅅ'字도 몇 용례에서 '-시-'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였다.[14] 釋讀口訣에서도 'ㅁ'字 외에 일반적으로 'ㄷ(-시-)'字를 사용하고 있다. 안동본 ≪楞嚴經≫에는 'ㄷ'와 'ㅅ'뿐만 아니라 '时'字도 쓰고 있다.[15] 기림사본과 송성문본 ≪楞嚴經≫에서도 '-시-'를 'ㅅ'로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賜'의 약체자인 'ㅁ'가 口訣字에서 시기적으로 앞서는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 후에 'ㄷ'字가 많이 사용되었고, 'ㅅ'字는 'ㄷ'字보다는 후대에 많이 사용된 口訣字이다.

4.2.13. '아'를 표기하는 데 이 자료들에서는 'ᄫ'字를 쓰고 있다. 정문연본에서는 'ᄫ'와 'ᄬ'字가 같이 쓰인다. 이 자료에서는 'ᄫ'와 'ᄬ'는 모두 의문형과 관련된 吐에 쓰이고 있다. 이 경우 口訣字 'ᄫ'는 '阿'의 약체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같은 字形인 'ᄫ, ᄬ' 등이 '陽'과 함께 일반적으로 16세기 이후에는 '-온'을 표기하는 데도 쓰였다. 이 경우 口訣字 'ᄫ, ᄬ'은 '隱'의 오른쪽 부분을 딴 약체자이다.

---

14) 다음 예문은 엄인섭본과 정문연본에서는 'ᄒᆞ라'체 명령문으로 번역했지만 정문연본에서는 '[…]開心地道ᄀᆞᄉᆞᄂᆡᄒᆞ(거ᄒᆞ시니)'로 사역구문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도 'ᄉᆞ(-시-)'字를 사용하고 있다.

汝諸佛ㄱ 轉我ᄀᆞᆯ//O 所說ᄉᆞᆯ(梵網2b) 與一切衆生ᄭᅴ 開心地道ᄉᆞᄉᆞ//ᄀᆞᄉᆞᄂᆡᄒᆞ<梵網3a>

이 문장은 "그대 제불들은 내가 말한 바를 전하여 모든 중생과 더불어 심지도를 열어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정문연본의 번역에는 문제가 있다. 이 문장은 문맥상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 번역한 것처럼 'ᄒᆞ라'체 명령문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정문연본의 'ᄀᆞᄉᆞᄂᆡᄒᆞ(거ᄒᆞ시니)'는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아마도 정문연본의 吐 기입자가 吐를 기입하거나 혹은 베껴 넣을 때 錯視나 錯覺 등에 의하여 잘못 기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5) '时'는 '寸', '時' 등과 같이 '時'의 약체자로서 후대의 儒家口訣에서 '-시-'를 표기할 때 많이 사용했던 口訣字이다.

4.2.14. '-거-'의 이형태인 '-어-'를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𠂉'字로 표기하고 있다. 정문연본에서는 '𠂉'외에 'ㅓ(-어-)'로도 표기하였다. 지금까지 발굴된 석독구결에서는 '-어-'字를 표기하는 口訣字가 없었다.[16] 釋讀口訣에서 '𠂉'字는 '리'를 표기하는 데 쓰였다. 안동본과 남권희본 ≪楞嚴經≫에서부터 '𠂉', 'ㅓ'字가 '-어-'를 표기하는 데 쓰이기 시작했다.

4.2.15. 'ㅗ(여)'는 '亦'의 머리 부분을 딴 약체자이다. ≪舊譯仁王經≫에서는 'ㅈ(여)'字로 나타난다. 석독구결 ≪華嚴經≫ 卷十四에서는 'ㅈ'와 'ㅗ'가 같이 쓰였다. 그 이후 자료에서는 일반적으로 'ㅗ'字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ㅈ(여)'字가 쓰이는 자료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서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안동본 ≪楞嚴經≫에도 'ㅈ'와 'ㅗ'가 같이 쓰이고 있다.

4.2.16. 정문연본에는 '曳(예)'가 보인다. 原字 역시 '曳'이다. 석독구결에서 '예'에 대응하는 구결자는 '之'이다.

(4) 復至四禪中0/0/ㅅㅋ 摩醯首羅天王宮ㅅ全//ㅅㅋ 說我本源0/0/ㅅ舍 蓮花藏世界0/0/曳ㄴ 盧舍那佛0/0/ㅅ 所說心地法門品ㅅㄱㅌ<梵網4b>

4.2.17. '覀(요)'는 '要'의 약체자이다. 동사 'ㅅ-'에 통합된 선어말어미이다. 이 '覀(요)'는 선어말어미 '-오-'에 대응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ᄒᆞ-'에 '-오-'가 통합되면 간혹 'ᄒᆞ욤'도 나타나지만, '홈', '혼', '호ᄃᆡ', '호니'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에서는 'ㅅ覀ㄷ(ᄒᆞ요니)', 'ㅅ覀ㅁ(ᄒᆞ요ᄃᆡ)'로 많이 나타나고 'ㅅㅁ(호ᄃᆡ)' 등도 공존하고 있다. 구체적인 것은 4.3에서 다시 살펴본다.

정문연본에서는 '覀(요)'와 같은 모양인 '覀'가 '-셔'를 표기하는 데 쓰였다. '-셔'로 읽히는 경우는 '西'의 약체자로 쓰인 것이다. 다음 용례가 그것이다.

---

16) 석독구결에서는 일반적으로 15세기 기준으로 '-어-'가 나타나야 할 환경에서도 '𠂉'字로 표기하고 있다. 'ㅋ'로 표기하기도 한다.

(5) 七歲ㅅ/ㅣㅅ/ㅅ西(라셔) 出家ㅅ ᄀᆞᆞ 三十ㅣㅅ//ㅣㅅ西(이라셔) 成道ㅅ西ㅂ 号
0/0/ㄴ吾爲釋迦牟尼佛ㅣㅅㅅ ᄀᆞᆞㅅㅂㅂㅅ/ㅅㅅㅂㅂㅅ/ㅣㅅㅅㅂㅂ·<梵網5a>

4.2.18. 주격조사나 계사 '이-'를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ㅣ'字로 표기하였다. 정문연본에서는 'ㅣ' 또는 'ㅅ'字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모두 '是'의 약체자이다. 석독구결에서는 'ㅣ(이)'字만 쓰였다. 안동본 ≪楞嚴經≫에서는 'ㅣ', 'ㅅ' 표기가 공존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문연본에서는 'ㅅ'字가 '-시-'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안동본 ≪楞嚴經≫에서도 'ㅅ'字는 '이'를 표기할 뿐 아니라 '-시-'를 표기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17] 이렇게 'ㅅ'字를 '이'로도 '시'로도 읽는 것은 문자 생활에서 상당한 혼란을 준다. 적어도 한 문헌 안에서는 표기법상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口訣字 또는 借字가 시대에 따라 달리 읽혔음도 기억해야 한다. 또 구결 표기법이 어떤 유파에 따라 문자 체계가 부분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4.2.19.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호-'를 표기하는 데 'ㅇ'를 쓰고 있다. 정문연본에는 이것을 'ㅇ'와 'ㅎ'로 표기하고 있다.

이 중 'ㅎ(호 또는 오)'는 일반적으로 석독구결 등과 같은 시기적으로 앞선 문헌에서부터 쓰였던 구결자이다. 'ㅎ'는 ≪舊譯仁王經≫등에서는 'ㄱ(오)'로 표기되었다. 이 'ㄱ'나 'ㅎ'는 모두 '乎'의 약체자이다. 'ㄱ'는 '乎'의 머리 부분을 초서체로 쓴 것이고 'ㅎ'는 楷書体로 쓴 것이다. 필자는 釋讀口訣 ≪華嚴經≫ 卷十四에 나타나는 이 자형들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華嚴經≫ 卷十四에는 구결토를 기입할 때 붓이 돌아가는 상태에 따라 'ㅎ'와 'ㄱ'를 구분하기 힘든 'ㅎ'와 'ㄱ'의 중간 정도의 모양을 취한 자형들도 많이 보인다.

17) 'ㅅ'는 '是'의 약체자로서 '이'로 읽을 때는 뜻을 빌린 것이고, '시'로 일을 경우는 音借한 것이다.

이렇게 구결 기입자나 기사자들의 단순한 개인적인 필체의 차이로 인한 것들은 口訣字의 자형을 확정할 경우 별개의 口訣字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 즉 口訣字를 확정함에 있어서 기입된 각 口訣字들이 붓이 돌아간 흔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과 같이 단순한 개인적인 필체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새로운 口訣字로 확정할 필요가 없다. 口訣字를 확정할 때에는 전체 口訣文字體系에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3에서 살펴본 것처럼 형태서지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구결 文字體系의 특징에서도, 정문연本이 엄인섭本이나 국립도서관本에 비해 좀 시기를 두고 다시 같은 판목에서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문연本 口訣의 기입 연대도 엄인섭본에 비해 다소 후대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3. 口訣吐의 특징

여기서는 順讀口訣 資料인 ≪梵網經菩薩戒≫ 세 異本에 사용된 口訣吐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 口訣吐의 전체적인 것은 부록으로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4.3에서는 이 자료들에 나타난 口訣吐 中에서 몇몇 특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엄인섭본에 나타난 口訣에 대해서는 이미 이승재(1990)에서 검토된 바 있기 때문이다.

4.3.1. 엄인섭本과 국립도서관本에서는 'ㅣㅅ(이기)'와 'ᄂᆞᆫㅅ(ᄒᆞ리기)'가 나타난다. 이 'ㅣㅅ'가 吏讀의 '弋只', '戈只'와 일치한다는 점이 이승재(1990)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승재(1990)에서는 'ㅣㅅ'를 주격조사로 파악하고 菩薩, 法師 등의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는 명사와 복수 주어에 통합되어 사용되고 "-로서"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로서'에 해당되는 특정화된 주어가 뒤에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문맥을 파악한 바 있다. 그 대표적인 용례로 아래 예문 (6ㄴ)을 제시한 바 있다.

(6)ㄱ. 若佛子皆以信心… 受佛戒者ㅣᄉᆞᄒᆞ//ㅣᄋᆞᄒᆞ 若國王太子百官四部弟子ㅣ

ㅅ//ㅣ 自恃高貴ㅅㅈ 破滅佛法戒律ㅅㅈ 明作制法ㅅㅈ 制我ㅋ//0 四部弟子ㅅㅈ 不聽出家行道 ㅅㅎ//ㅅㅈ 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律ㅅㅎㄱ//ㅅㅜ 破三寶之罪ㅣㅏㅅ <梵網42a>

ㄴ. 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ㅣㅅ//ㅣ 受持菩薩戒者ㄱ 應受持讀誦解說書寫{ㅅㅔㅏ}/{ㅅㅔㅏ}/0 佛性{ㅣ}/{ㅣ}/0 常住{ㅅㅎ}/{ㅅㅎ}/0 戒卷{ㅣ}ㅅㅈ/{ㅣ}ㅅㅈ/ㅅㅈ 流通三世ㅅㅈ//(ㅈ) <梵網43b>

예문 (6ㄱ, ㄴ)을 보면 이들이 복수 주어임에 틀림없다. 전부 사람들이다. 과연 국어 문법사에서 불특정 다수나 복수 주어를 표시하는 것이 고려시대에는 따로 존재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정문연본에서는 주격 표지 'ㅣ'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자료 전체에서 보면 복수 주어라도 'ㅣㅅ'가 현토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18]

또 다음 예문들을 검토해 보자.

(7)ㄱ. 而菩薩ㄱ 見一切貧窮人ㅣ 來乞者ㅁ斤//(?ㅋ) 隨前人ㅋ//0 所須ㅅㅈ 一切ㄴ 給與{ㅅㅔㅎㅏㄴ}ㅅㅔㅅ/ㅅㅔㅎㅏ/ㅅㅔㅎㅏㅇㄴ 而菩薩ㅣㅅ//ㅣ 以惡心瞋心… 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ㅅㅎ 有求法者ㅿㅅㄱ (梵網12b) 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ㅿㅏㅎㅏ/ㅿㅏ/ㅿㅏㅏㅇ 而反更罵辱者ㄱ/(?ㅅㄱ)/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3a>

ㄴ. 而菩薩ㅣㅅ//ㅣ 反生憍心慢心癡心ㅅㅈ 不起ㅅㅈ 承迎禮拜ㅅㅎ 一一不

---

18) 다음 예들은 예문 (6)과 같이 복수 주어이지만 'ㅣㅅ'가 아니라 'ㅣ'로 현토하고 있다.

若父母師僧弟子ㅣ 疾病ㅣㅎㅏ乃//ㅣㅇ乃 諸根ㅣ 不具ㅿ乃 百種病苦惱ㅎㅅㄱ/ㅣㅎㅅㄱ/ㅣㅇㅅㄱ 皆養令差ㅅㅔㅅ<梵網18a>

若佛子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ㅣ 來入僧坊舍宅城邑ㅅ西ㅁ/ㅅㅁ/ 若百里千里… 來者ㄴㅁ斤//ㅁ(梵網 16b) 卽起ㅅㅈ 迎來送去ㅅㅎ 禮拜供養ㅅㅔㅎㅏ<梵網17a>

若佛子常應發一切願ㅅㅈ 孝順父母師僧三寶ㅅㅎ 願得好師同學善友知識ㅣ 常教我大乘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ㅅㅈ 使我…//0 開解ㅅㅈ 如法修行ㅅㅔㅎㅏ 堅持佛戒ㅅㅈ 寧捨身命ㅣㅎㄱㄱ//ㅣㅇㄱㄱ 念念ㅈ 不去心ㅅㅔㅅ <梵網30b>

佛子ㅈ 諦聽ㅅㅅ 若受佛戒者ㄱ ㅅㅏㅌㄱ/ㄱㅅㄱ/ㅣㄱㅅㄱ 國王王子百官宰相比丘比丘尼十八梵天六欲天子庶民黃門(梵網8b)餓男餓女奴婢八部鬼神金剛神畜生乃至變化人ㅅㅔ 但解法師語ㅅㄴㄱ 盡受得戒ㅅㅔㅎㅏ 皆名第一淸淨者ㅅㅅㅅㅔㅅㅅ<梵網9a>

如法供養ㅣ令ㅌㅏ//ㅣ오ㅌㅏ<梵網15a>

ㄷ. 而菩薩ㅣㅅ/ㄱ 爲利養故… 應答ㄴ 不答ㄴ가 倒說經律ㄴㅋ 文字ㄴ 無前無後ㄴㅋ 謗三寶說者ㄱ 犯輕垢罪 <梵網21a>

ㄹ. 若法師ㅣㅅ/ㅣ/ 自倚解經律大乘學戒ㄴㅋ 與國王太子百官… 以爲善友{ㅁ}ㄴㅋ/ㄴㅋ/ 而新學菩薩ㅣ 來問ㄴㅁ 若經ㅗ/0/0義ㅗ 律義ㅗㄴㄴㄴㅈㅅㅅㄱ//ㅗㄴㄴㄴㅈㅅㅎㄱ 輕心惡心慢心… 不一一好答問者ㄱ/0/ㄱ 犯輕垢罪 <梵網25a>

예문 (7ㄱ-ㄹ)에서 알 수 있듯이 'ㅣㅅ'가 적어도 이 자료에서는 전부 사람의 경우에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맥상 예문 (7)을 일반적인 '菩薩'이나 '法師'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어들을 일반적인 '菩薩'이나 '法師'로 볼 수 있다고 해서 'ㅣㅅ'가 현토된 것이라면 이 자료 전체에서 이런 용례는 이 네 가지 용례보다 훨씬 더 많은바, 그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정문연본의 경우 (7ㄱ,ㄴ)에서는 'ㅣ(-이)'로 (7ㄷ)에서는 'ㄱ(-은)'으로 현토하고 있다. 그리고 (7ㄹ)에서는 엄인섭본의 'ㅣㅅ'에 대해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에서 'ㅣ'로 현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선대형을 보이는 엄인섭본에서까지는 'ㅣㅅ'가 복수나 일반적인 주어에 붙는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예문 (8)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자.

(8)ㄱ. 其法師者ㅣㅅ/ㅣ/ 或小姓年少ㅣ令ㅁㅏ//ㅌㅏ 卑門貧窮ㅣ令ㅁㅏ//ㅣ오ㅁㅏ 諸根ㅣ 不具ㅌㅏㅁㅏㄴㅋㄱㅏ 而實有德ㄴㅋ 一切經律ㄴ 盡解ㅌㅅㅅㄱ//ㅌㅅㅎㄱ 而新學菩薩ㄱ 不得觀法師ㅋ 種姓ㅣ令ㅣ//ㅣ오ㅣ<梵網24a>

ㄴ. 但解師語ㄴㅊㅅ/ㄴㅊ 有百里千里… 來求法者ㅌㅅㄱ 而菩薩法師ㅣ 以惡心… 而不卽與授一切衆生戒者ㄱ 犯輕垢罪 <梵網37b>

예문 (8ㄱ, ㄴ)을 보면 엄인섭본의 'ㅣㅅ'를 단순히 불특정 다수 또는 복수 주어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문 (8ㄱ)의 '其法師者ㅣㅅ/ㅣ/ㅣ'는 문맥상 앞에서 나온 "그 법사가"로 특정 또는 한정된 사람

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8ㄴ)의 'ㅅᄒᆞㅅ'도 이승재(1990)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할 사람이"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의 'ㅅᄒᆞㅅ'에도 'ㅣㅅ'가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문연본에서는 'ㅅᄒᆞ[[[ᄒᆞ+ㄹ]#이]+이]'로 나타난다. '但解師語ㅅᄒᆞㅅ//ㅅᄒᆞ'는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바, 이 경우도 의미 내용상 주어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6), (7),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ㅣㅅ'는 주로 대응되는 정문연본에서는 주격 'ㅣ'로 나타난다. 정문연本에서는 'ㅣㅅ'가 나타나지 않는다.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 나타나는 'ㅣㅅ'의 모든 용례를 검토해 보면 공통점은 주격조사로서 사람인 경우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ㅣㅅ'와 같은 것으로 지적된 바 있는 吏讀의 '弋只'의 경우를 한 번 보기로 하자. 吏讀에서는 '弋只'가 '戈只'로도 쓰인다. '弋只, 戈只'는 후대 吏讀 자료에서 그 독법을 확인할 수 있다. '弋只'와 '戈只'를 <羅麗吏讀>에서는 '가이' 또는 '과걸리'로 읽었고, ≪吏讀集成≫에서는 '익기/끼리' 또는 '과글니'로 읽고 있다. ≪儒胥必知≫의 吏讀彙編에서는 '과글니/과기리'로, <吏讀略解>에서는 '이, 익기'로, ≪吏讀便覽≫에서는 '과그리'로 읽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吏讀의 '弋只'와 '戈只'가 두 가지 계통의 독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익기' 계통과 '과그리' 계통으로 읽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익기'로 읽을 때와 '과그리'로 읽을 때가 같은 것인지가 의문이다. 우선 이것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필자는 '익기' 계통으로 읽힐 때와 '과그리' 계통으로 읽힐 때는 그 기능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吏讀 자료에서 '弋只, 戈只'가 사용된 문맥을 파악할 때는 더욱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吏讀에서 사용된 '弋只', '戈只'의 기능에 대해서는 "끼리"로 해석하거나(鮎貝1934), 강세주격형(홍순탁 1974)으로, 단체나 복수의 주격 표시(박희숙 1985, 이승재 1992)로 보기도 한다. 고정의(1992)에서는 ≪大明律直解≫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이런 제약과 무관한 주격표지로 본 바 있다.[19]

19) 吏讀에 사용된 '弋只', '戈只'의 기능에 대해서는 고정의(1992:59-61)에서 다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오창명(1995)에 의하면 '弋只', '戈只'가 조선시대 후반까지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2. 順讀口訣 자료인 ≪梵網經菩薩戒≫에서는 'ᄇᆞ' 또는 'ᄇᆞ'字가 판정의문형 吐로 사용되었다.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ᄇᆞ'字가 사용되었고, 정문연본에서는 'ᄇᆞ'와 'ᄇᆞ'字가 사용되었다.

ᄇᆞ(-아), ᄉᆞᄒᆡᄇᆞ(ᄒᆞ니아), ᄋᆡᄉᆞᄒᆡᄇᆞ(이어니아), ᄂᆞᄒᆞᄉᆞᄒᆡᄇᆞ(호리어니아)

이 자료들에서는 의문형 吐로 '可(가)'나 'ㅁ(고)'字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자료상의 문제다. 판정의문의 'ᄇᆞ(-아)'외에 '-니아'형 의문문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중 'ᄋᆡᄉᆞᄒᆡᄇᆞ(이어니아)', 'ᄂᆞᄒᆞᄉᆞᄒᆡᄇᆞ(호리어니아)' 등은 대개 이 자료에서는 의미내용상 수사의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9)ㄱ. 若欲受戒時ᄒᆞᆫᄃᆡ 師應問言ᄂᆞᆷ 汝ᄃᆡ 現身ᄒᆞ 不作七逆罪耶ᄇᆞ//ᄇᆞ
<梵網37a>
ㄴ. 二師ㅣ 應問言ᄉᆞ西ᄆᆞᆷ/ᄂᆞᆷ/ 汝有七遮罪不ᄇᆞ//ᄒᆞ 若現身ᄒᆞ 有七遮ᄉᆞᄀᆞ//ᄉᆞᄀᆞ 師ᄀᆞ//ㅣ 不應與受戒ᄉᆞᄂᆞᄒᆞᄉᆞ//ᄉᆞᄂᆞᄒᆞᄉᆞ<梵網38a>

예문 (9)는 판정의문이다. (9ㄴ)의 경우 정문연본에서는 'ᄒᆞ'字로 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ᄒᆞ'字는 처격이나 부동사형, 호격 등을 표시할 때 주로 쓰인 口訣字다. 석독구결에서는 의문형의 '-아'를 표기할 경우 'ᄒᆞ'字를 주로 썼지만, 順讀口訣에서는 의문형어미 '-아'를 표기 할 때는 이 구결자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口訣字는 시대에 따라 같은 글자라도 그 사용되는 영역이 다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口訣의 문자 체계에서 보면 口訣字는 음절문자다. 口訣字는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같은 口訣字라도 시대에 따라 그 음이 다르거나 같은 음을 표기하는 구결자가 시대에 따라 다른 자형으로도 쓰인다. 이런 사실은 借字表記法의 발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다.

다음 예문 (10)은 'ᄉᆞᄒᆡᄇᆞ(ᄒᆞ니아)'로 현토된 의문문이고, 예문 (11)은 'ᄋᆡᄉᆞ

ㅌㅍ(이어니아)', 'ㅅㅊㅎㅌㅍ(호리어니아)' 등으로 현토된 의문문이다.

(10)ㄱ. 而菩薩ㄱ 行頭陀時0/0/ㅇㅁ及遊方時ㅎㅁㅅㅌㅍ/ㅛㅎㅁㅅㅌㅍ/ㅇㅁㅅㅌㅍ 行來百里千里ㅅㅁ 此十八種物ㄴ 常隨其身ㅅㅊㅅ<梵網33b>

ㄴ. 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ㅅㅋ(梵網35b) 齋會求福ㅅㅏ 行來治生{ㅅㅋ}ㅅㄴㅗㅛ// 大火所燒ㅛㅎㅁ//ㅛㅇㅁ 大水所漂ㅛㅎㅁ//ㅛㅇㅁ 黑風所吹船舫ㅛㅎㅁ//ㅛㅇㅁ 江河大海羅刹之難ㅛㅎㅁㅅㅌㅍ//ㅛㅇㅁㅅㅌㅍ <梵網36a>

(11)ㄱ. 若佛子自爲飮食錢物利養名譽故… 親近國王王子大臣百官ㅅㅋ 恃作形勢ㅅㅏ//ㅅㅋ 乞索ㅅㅏ 打拍ㅅㅏ(梵網21a) 牽挽ㅅㅋ 橫取錢物ㅛㅎㅌㅍ//ㅅㅊㅇㅌㅍ<梵網21b>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위해서 국왕 왕자 대신 백관 등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 형세를 믿고 의지하여 빌어서 구하고(강요하고) 때리고 견만함으로써 돈과 재물을 횡령하겠는가?]

ㄴ. 若佛子以惡心故ㅛㅏ 爲利養故… 販賣男女色ㅅㅏ 自手…//0 作食ㅅㅏ 自磨自舂ㅅㅏ 占相男女ㅅㅏ 解夢吉凶ㅅㅏ 是男是女ㅅㅏ 呪術工巧ㅅㅏ調鷹方法ㅅㅏ(梵網27b) 和合百種毒藥千種毒藥蛇毒0/0/{ㅅ}ㅅㅋ生金銀蠱毒ㅅㅋ 都無慈心ㅛㅎㅌㅍ//ㅛㅇㅌㅍ 若故作者ㄱ//0 犯輕垢罪 <梵網28a>

ㄷ. 若佛子以惡心故… 觀一切男女等鬪ㅅㅏ 軍陣兵將劫賊0/0/ㅛㅇㅌㅍ等鬪ㅛㅎㅌㅍ//0 <梵網29ab>

ㄹ. 若佛子ㅛㄱㅊㄱ/ㄱㅊㄱ/0 自盜ㅅㅏ 敎人盜ㅅㅏ 方便0/0/…盜ㅅㅏ 盜因盜緣盜法盜業ㅅㅏ 呪盜ㅅㅊㅎㅌㅍ/ㅅㅋㅎㅌㅍ/ㅅㅊㅎㅌㅍ <梵網10a>

예문 (10)은 '-ㅌㅍ(니아)'형 의문문이다. 예문 (11)은 '-ㅎㅌㅍ(어니아)'와 '-ㅊㅎㅌㅍ(리어니아)'형 의문문이다. 예문 (11)도 표면상으로는 판정의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의미 내용상 수사의문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중 '-ㅎㅌㅍ(어니아)'는 '-ㅎ-'에 의문형 어미구조체 '-ㅌㅍ'가 통합된

어미구조체이고, '-ᄒᆞᅀᆞᄒᆞᄅᆞ(리어니아)'는 '-ᄒᆞᅀᆞ-'에 '-ᄒᆞᄅᆞ'가 통합된 구조체이다. '-ᅀᆞᄒᆞᄅᆞ(어니아)'와 '-ᄒᆞᅀᆞᄒᆞᄅᆞ(리어니아)' 구문은 일반적으로 수사의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4.3.3. 다음 예문 (12)는 사역구문으로 15세기 국어의 '-긔 ᄒᆞ-'와 '-게 ᄒᆞ-' 구문에 대응된다.

(12)ㄱ. 若父母兄弟死亡之日ㅣᅀᆞᆫᄀᆞ//ㅣᄋᆞᄒᆞᄀᆞ 應請法師ᄂᆞᆼ 講菩薩戒經ᄂᆞᆼ 福資亡者ᄂᆞᆼ//ㅣ 得見諸佛ᄂᆞᆼ 生人天上ᄉᆞᆫᄒᆞᆫᄒᆡ/ᄉᆞᄅᆡᄂᆞᆫᄒᆡ/ᄉᆞᄂᆞᆫᄒᆞᆫ ᄉᆞ 若不尒者ᄀᆞ//0 犯經垢罪 <梵網23a>

ㄴ. 若佛子以惡心故… 自身ㅣ 謗三寶ᄉᆞᄒᆡ 詐現親附ᄂᆞᆼ/ᄂᆞᆼᄀᆞ/ 口便說空ᄉᆞᄒᆡ 行在有中ᄂᆞᆼ 爲白衣… 通致ᄂᆞᆼ 男女ㅣ//0 交會ᄂᆞᆼ 飮酒ᄂᆞᆼ 縛着ᄉᆞᄅᆞᄂᆞᆫᄀᆞ/ᄉᆞᄅᆡᄂᆞᆫᄀᆞ/ᄉᆞᄂᆞᆫᄀᆞ 於六齋日ㅅ/0/0 年三長齋月ᄂᆞᆼ 作殺生劫盜ᄂᆞᆼ 破齋犯戒者ᄀᆞ 犯輕垢罪 <梵網28a>

ㄷ. 一切衆生ㅣ 化化不絶ᄂᆞᆼ 得見千佛ᄂᆞᆼ 佛佛ㅣ 授手ᄂᆞᆼ//0 世世ᄂᆞᆼ 不墮惡道八難ㅁ 常生人道天中ᄉᆞᄅᆞᄂᆞᆫᄉᆞ/ᄉᆞᄅᆡᄂᆞᆫᄉᆞ/ᄉᆞᄂᆞᆫᄉᆞ <梵網43b>

예문 (12)에서 보는 것처럼 고려말 조선 초기의 구결 자료에서 사역 구문은 일반적으로 '-ᄉᆞᄅᆞ ᄂᆞ-', '-ᄉᆞᄅᆡ ᄂᆞ-', '-ᄉᆞ ᄂᆞ-'로 나타난다. 이 외에 '-ᄉᆞᄒᆞ ᄂᆞ-'로도 나타난다. '-ᄉᆞᄅᆞ ᄂᆞ-', '-ᄉᆞᄅᆡ ᄂᆞ-', '-ᄉᆞ ᄂᆞ-'는 15세기 국어의 '-긔 ᄒᆞ-'와 '-게 ᄒᆞ-'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어형이다. 엄인섭본에서는 '-ᄉᆞᄅᆞ ᄂᆞ-'와 '-ᄉᆞ ᄂᆞ-'로 나타나며, 국립도서관본에서는 '-ᄉᆞᄅᆡ ᄂᆞ-'로, 정문연본에서는 '-ᄉᆞ ᄂᆞ-'로 나타난다. 이 중 '-ᄉᆞᄅᆞ ᄂᆞ-'는 '-긔 ᄒᆞ-'에 가까운 표기로 추정되며, '-ᄉᆞᄅᆡ ᄂᆞ-'는 '-게 ᄒᆞ-'와 같은 표기다. '-ᄉᆞ ᄂᆞ-'는 '-거 ᄒᆞ-'로 읽을 수 있다. 15세기 자료에서도 '-거 ᄒᆞ-' 구문의 한 용례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허웅(1975:604)에서 지적된 바 있다.[20] '-ᄉᆞᄒᆞ ᄂᆞ-'도 이들과 같

20) '됴히 쳐 술찌거 ᄒᆞ야 두고'<月釋23:73> 이 용례를 허웅(1975:604)에서는 "우발적인 오용 또는 인쇄상의 잘못"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이 용례 외에 16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둘흘 ᄒᆞ야 짐 보거 ᄒᆞ고'<飜譯老乞大 상 46>가 李賢熙(1995ㄴ)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 사역구문에 사용되는데 그 음상이 이들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다.

'-ᄉᆞᄫᅡ ᄋᆞ-', '-ᄉᆞᄫᅵ ᄋᆞ-', '-ᄉᆞ ᄋᆞ-', '-ᄉᆞᄫᅡ ᄋᆞ-' 등은 이들이 나타나는 시기도 비슷하여 어느 것이 선대형인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발굴된 석독구결 자료에서는 이 중 어느 하나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엄인섭본에서도 '-ᄉᆞᄫᅡ ᄋᆞ-'와 '-ᄉᆞ ᄋᆞ-'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본에서는 '-ᄉᆞᄫᅵ ᄋᆞ-'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엄인섭본의 어형보다는 후대의 어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다.

4.3.4. 'ᄉᆞᆺ'는 의존명사 'ᄃᆞ'에 주격표지 'ㅣ'가 통합된 어형을 표기할 때 주로 쓰이며, 또 15세기 국어의 'ᄃᆞᄒᆞ-' 구문에 대응되는 'ᄉᆞᆺᄒᆞᄋᆞ-(딧ᄒᆞ-)' 구문에도 나타난다. 'ᄉᆞᆺᄒᆞᄋᆞ-(딧ᄒᆞ-)'가 'ᄃᆞᄒᆞ-' 구문의 선대형임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엄인섭本과 국립도서관本에서는 'ᄉᆞᆺ(디)'字로 표기되고, 정문연本에서는 'ᄉᆞᅀᅳ(디)'字로 표기하고 있다.

(13)ㄱ. 如是十戒ㄴ 應當學ᄋᆞᄒᆞ 敬心奉持ᄂᆞᄒᆞᆫᄒᆡ 如滅罪品中ᄒᆞ 廣明一一戒相ᄂᆞᄀᆞᄉᆞᆺᄒᆞᄀᆞᆫᄒᆡ//ᄂᆞᄀᆞᄉᆞᅀᅳᄒᆞᄀᆞᆫᄒᆡ<梵網23a>

ㄴ. 我今ᄒᆞ 在此樹下ᄋᆞᄒᆞ 略開七佛法戒ᄋᆞᄒᆞᄒᆡ 汝等ᄀᆞ 當一心…(梵網43b) 學波羅提木叉ᄋᆞᄒᆞ 歡喜奉行ᄂᆞᄒᆞᆫᄒᆡ 如無相天王品勸學中ᄒᆞ//ᄒᆞᄀᆞ 一一廣明ᄂᆞᄀᆞᄉᆞᆺᄒᆞᄀᆞᆫᄒᆡ//ᄂᆞᄀᆞᄉᆞᅀᅳᄒᆞᄀᆞᆫᄒᆡ <梵網44a>

ㄷ. 若佛子護持禁戒ᄋᆞᄒᆞ//ᄋᆞᄀᆞᆫ 行住坐臥日夜六時ᄒᆞ 讀誦是戒ᄋᆞ面ᄆᆞ/ᄂᆞᄆᆞ/猶如金剛ᄋᆞᄀᆞᆫ 如帶持浮囊ᄋᆞᄒᆞ 欲度大海ᄉᆞᆺᄒᆞᄋᆞᄀᆞᆫ//ᄉᆞᅀᅳᄒᆞᄋᆞᄀᆞᆫ <梵網30a>

예문 (13)은 15세기의 'ᄃᆞᄒᆞ-' 구문에 대응되는 'ᄉᆞᆺᄒᆞᄋᆞ-(딧ᄒᆞ-)' 구문이다. 정문연본에서는 'ᄉᆞᅀᅳᄒᆞᄋᆞ-(딧ᄒᆞ-)'로 표기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주로 'ᄉᆞᆺᄒᆞᄋᆞ-(딧ᄒᆞ-)' 구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13ㄱ, ㄴ)의 'ᄂᆞᄀᆞᆫᄒᆡ(혼딧커다), ᄂᆞᄀᆞᄉᆞᅀᅳᄒᆞᄀᆞᆫᄒᆡ'와 같이 'ᄂᆞᄀᆞ(혼)#ᄉᆞᆺᄒᆞᄀᆞᆫᄒᆡ(딧커다)'와 같은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13ㄷ)의 'ᄉᆞᆺᄒᆞᄋᆞᄀᆞᆫ(딧ᄒᆞ며)'와 같이 관형형(또는 동명

사형)과 통합하지 않는 '尖七ン-(-덧#ᄒᆞ-)'로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15세기 국어에서 'ᄃᆞᆺ'과 관련된 구문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ᄃᆞᆺ'은 'ᄃᆞ시', 'ᄃᆞ시', '디시' 등으로도 나타난다. 첫째는 의존명사로 사용된 경우다. 즉 '-ㄴ/ㄹ ᄃᆞᆺ V' 구문이다. 둘째는 '-ㄴ/ㄹ ᄃᆞᆺᄒᆞ-' 구문이다. 셋째는 '-ᄃᆞᆺ'이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된 것이다. 고려시대 구결 자료에서는 'ᄃᆞ시', 'ᄃᆞ시', '디시' 등의 표기로 사용된 吐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관형형어미(또는 동명사형) '-ㄹ'에 통합된 어형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자료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고려말 조선 초기의 ≪楞嚴經≫ 順讀口訣 자료들에 많이 보이는 원문의 '如'와 관련된 '-ㄱ ㅣン- (-ㄴ다ᄒᆞ-)' 구문도 이 구문과 관련이 있다.

4.3.5. 15세기 국어에서 동명사어미 '-오ᇫ'과 '-옳'은 소수의 용례에서만 보인다. 하지만 고려시대 口訣資料에는 동명사어미 '-오ᇫ'과 '-옳'이 아주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吐들이 동명사어미 '-오ᇫ'과 '-옳'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ンㄱ, ン全ンㄱ, ンㅋンㄱ, ンヒ令入ㄱ川ᄉンㄱ, ンチᄉンㄱ, 川ᄉンㄱ, ンヒヒンレㄱ
ナノレレ, ナノレ

먼저 동명사 '-옳'의 경우를 보자. 석독구결에서는 동명사 '-옳'을 표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ᄇᆞ'字로 표기하였다. 구결자 'ᄇᆞ'가 이런 용법으로 사용된 문헌은 대체로 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결자이다. 초기 순독구결 자료에서부터 대격이나 동명사 '-옳'을 구분하지 않고 'レ, 乙(-ᄋᆞᆯ)'字로 표기하였다. 이 자료들에서는 동명사 '-ᄋᆞᆯ'을 'レ'字로 표기하고 있다.

(14)ㄱ. 佛子ㅋ 諦聽ンᄉ 若受佛戒者ㄱ大ヒㄱ/ㄱ大ㄱ/川ㄱ大ㄱ 國王王子百官宰相比丘比丘尼十八梵天六欲天子庶民黃門婬男婬女奴婢八部鬼神金剛神畜生乃至變化人ノチ 但解法師語ンレㄱ 盡受得戒ンチヒ 皆名第一

淸淨者ㅅㅅㅈㅅ<梵網8b-9a>

ㄴ. 若有犯者ㄱ 不得現身ㅋ 發菩提心ㅅㅎ 亦失國王位0/0/ㅅㅎ轉輪王位ㅅㅎ 亦失比丘比丘尼位ㅅㅎ 亦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佛性常住妙果ㅅㅋ 一切ㄴ 皆失ㅁ 墮三惡道中ㅅㅋ//ㅋ 二劫ㅗ 三劫ㅗㅅㄴㄴ/ㅗㅅㄴ/ㅗㅅㄴ 不聞父母三寶名字ㅅㅈㅂ 以是… 不應一一犯ㅂㅎㅣ//ㅂㅇㅣ <梵網14a>

예문 (14ㄱ)의 '但解法師語ㅅㄴㄱ 盡受得戒ㅅㅈㅂ'에서의 'ㅅㄴㄱ'은 'ㅅ-'에 동명사형 'ㄴ(-옳)' 그리고 주제표지 '-ㄱ(온)'이 통합된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계를 능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정도로 해석된다. (14ㄴ)의 'ㅗㅅㄴㄴ(여 홇올)'과 'ㅗㅅㄴ(여 홇)'에서도 동명사형어미 '-옳'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엄인섭본의 'ㅗㅅㄴㄴ'은 동명사 '-올' 다음에 대격이 통합된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외에도 'ㅅㄴㅗㅏㄱ(홀여힌)'이 나타나는데 이 吐도 동명사형 'ㅅㄴ'에 처격 '-ㅗㅏ(亦中)'와 주제표지 'ㄱ'이 통합된 구조체이다.

다음 예문 (15)는 동명사 'ㄱ(-온)'과 관련된 것이다.

(15)ㄱ. 若犯四十八輕戒者ㅂㅎㅅㄱ/ㅂㅎㅅ/ㅂㅇㅎㄱ 對首懺ㅅㅎㄱ//ㅅㅇ 罪滅ㅂㅅㅅㄱ//ㅅㅈㅅㅅㄱ 不同七遮ㅅㅂㅅ<梵網38b>
[만일 48경계를 범했어도 한 사람의 스님 앞에서 참회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한 것이 칠차와 같지 않다.]

ㄴ. 橫與比丘比丘尼菩薩弟子… 作繫縛事ㅅㅎㄱ//ㅅㅇ 如師子身中蟲ㅂ//ㅋ 自食師子肉ㅂㅅㅅㄱ 非外道天魔ㅋ 能破ㅂㅂㅅ//ㅂㅅ <梵網42b>

ㄷ. 一時ㅋ 以無量靑黃赤白花… 供養盧舍那佛ㅅㄷㅁ//ㅅㄷㅂ 受持0/0/(?ㅅㅅ)上說心地法門品竟ㅅㅅㅅㄱ 各各0/0/ㅅ 從此蓮花藏世界… 而沒ㅅㅅㄱ/ㅅㅅ/ㅅㅅㄱ 沒0/ㅅㅋㅂ/0 已ㅅㅋㄱ/0/ㅅㅋㄱ(ㅅㄱ) 入體性0/0/ㅅ 虛空花0/0/ㅳ 光三昧ㅅㅋ 還本源世界0/0/ㅈ 閻浮提菩提樹下ㅅㅋ <梵網3b>

ㄹ. 其餘千百億釋迦ㅂ//ㅈ 亦復如是ㅅㅋㅅㄱ/ㅅㅋㅂ/ㅅㅂ 無二0/0/ㅅㅎ無別ㅅㅂ 如賢劫品中ㅋ 說ㅿㅣ<梵網4b>

[그 나머지 천백억의 석가도 또한 이와 같다면(같으니) 둘이 아니고 다름이 없으니 현겁품에서 말한 바와 같다.]

예문 (15ㄱ)에 보이는 'ㅣᄉᆞᆫㄱ(이라ᄒᆞᆫ)'과 'ᄒᆞᄅᆞᆫㄱ(ᄒᆞ리라ᄒᆞᆫ)'에서의 'ㄴㄱ'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동명사 'ㄱ(-ᄋᆞᆫ)'의 용법을 보인다. 여기서는 주격조사를 보충하여 해석하면 자연스럽다. (15ㄴ)도 동명사적인 용법을 보이는데 (15ㄴ)의 경우는 "스스로 사자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예문 (15ㄷ)도 '-ㄱ(-ᄋᆞᆫ)' 동명사 구문이다. (15ㄷ)은 "상권에서 이미 말씀하신 심지법문품을 받아 지녀서" 정도로 다음 문장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예문 (15ㄹ)은 동명사 구문의 문장 연결 기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문장을 엄인섭본의 구결 기입자는 'ㄴᆞㄴㄱ' 정도로 해석하였고, 국립도서관본의 구결 기입자는 'ㄴᆞᄇᆞ(ᄒᆞ야ᄂᆞᆯ)' 정도로, 정문연본의 구결기입자는 'ㄴᆞᄇᆡ' 정도로 이 문맥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도서관본의 '亦復如是ㄴᆞᄇᆞ'은 "또한 이와 같다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엄인섭본의 '亦復如是ㄴᆞㄴㄱ'에 대해 국립도서관본에서는 접속의 'ㄴᆞᄇᆞ'로, 정문연본에서는 'ㄴᆞᄇᆡ'로 현토한 것에서도 이 시대의 동명사 구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의 '-ᄋᆞᆫ'과 '-ᄋᆞᇙ' 동명사 구문의 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예문 (14)와 (15ㄱ,ㄴ)과 같이 문장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초기단계에는 이들 동명사 뒤에 조사들이 통합되지 않다가 주로 13세기 후반의 釋讀口訣과 초기 순독구결 자료에 오면서 조사가 통합된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ᄋᆞᆫ'과 '-ᄋᆞᆯ' 동명사 구문은 의존명사 'ᄃᆞ' 명사구 보문 구성에 의해 대체되기 시작했고, 15세기에는 주로 명사형 '-옴/움'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15세기 경에는 동명사 '-ᄋᆞᆫ'과 '-ᄋᆞᇙ'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극소수의 용례에만 남아 있게 되었다. 이들은 주로 의존명사를 사용한 명사구 보문 구성과 명사형 '-옴/움'에 의해 대체된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기능은 문맥에 따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예문 (15ㄷ, ㄹ)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 구문은 문맥에 따라서 적절한 연결

어미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예문 (15ㄹ)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즉 동명사형으로 현토된 엄인섭본의 '亦復如是ᄉᆞᆼᄀᆞ'에 대해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에서는 각각 접속의 'ᄉᆞᆼ斤'과 'ᄉᆞᄒᆞ'로 현토하고 있다.

다음 예문 (16)에 나타나는 'ᄂᆞᄎᆞᄒᆞ(호리니)', 'ᄂᆞᄒᆞᄒᆞ(호니니)'와 'ᄉᆞᄒᆞᄉᆞᄉᆞᄂᆞᆨᄀᆞ(ᄒᆞ니어든)'을 분석해 보자.

(16)ㄱ. 若佛子不得食五辛0/0/ㅣㅇㅣ 大蒜忏蔥慈葱蘭葱興渠ᄂᆞᄎᆞᄒᆞ//ᄂᆞᄒᆞᄒᆞ 是五種ᄇᆞᄉᆞᄀᆞ 一切食中ᄉᆞ 不得食ㅣᄉᆞᄂᆞ//ㅣㅇㅣ 若故食者ᄀᆞ 犯輕垢罪 <梵網16a>

ㄴ. 佛言ᄉᆞᄉᆞᄆᆞ//0 佛子ㅣ 欲受國王位時ㅣᄉᆞᄂᆞ/ᄉᆞᄂᆞ/ㅇᄂᆞ 受轉輪王位時ㅣᄉᆞᄂᆞ//ㅇᄂᆞ(梵網14b) 百官ㅣ 受位時ㅣᄉᆞᄂᆞᄉᆞᄒᆞᄉᆞᄉᆞᄂᆞᆨᄀᆞ/ᄉᆞᄂᆞᄉᆞᄒᆞᄉᆞᄉᆞᄂᆞᆨᄀᆞ/ᄉᆞᄂᆞᄉᆞᄒᆞㅇᄉᆞᄂᆞᆨᄀᆞ 應先受菩薩戒ᄂᆞᄎᆞᄒᆞ<梵網15a>

예문 (16ㄱ)의 'ᄂᆞᄎᆞᄒᆞ(호리니)'와 'ᄂᆞᄒᆞᄒᆞ(호니니)'는 "하는 것인데" 정도로 해석된다. 즉 'ᄂᆞᄎᆞᄒᆞ(호리니)'는 'ᄒᆞ+오+ㄹ+이+니'로, 'ᄂᆞᄒᆞᄒᆞ(호니니)'는 'ᄒᆞ+오+ㄴ+이+니'로 분석될수 있다. 각각 이들에 동명사 '-온'과 '-올'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을 형식명사 '이'에 계사 활용형 '이니'가 통합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전자의 분석을 따른다. (16ㄴ)의 'ᄉᆞᄒᆞᄉᆞᄉᆞᄂᆞᆨᄀᆞ(ᄒᆞ니어든)'도 'ᄒᆞ+ㄴ+이(계사)+어든'의 통합구성체임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 (17)은 'ᄉᆞᄒᆞᄂᆞ(ᄒᆞ늘)', 'ᄉᆞᄋᆞᄒᆞᄆᆞ(ᄒᆞ노ᄂᆞ로)' 등과 같이 구결자 'ᄒᆞ'字가 명사적으로 사용된 용례다.

(17)ㄱ. 尒時0/ᄉᆞ/ㅣ 盧舍那佛ㅣ 爲此大衆ᄉᆞᄉᆞ 略開百千恒河沙不可說法門中ᄉᆞᄒᆞ 心地0/0/ㄴ如毛頭許ᄉᆞᄒᆞᄂᆞᄉᆞᄀᆞᄒᆞ/ᄉᆞᄒᆞᄉᆞᄀᆞᄒᆞ/ <梵網2b>

ㄴ. 而菩薩ㅣ//ᄀᆞ 聞外道惡人ㅣ 以惡言ᄆᆞ 謗佛戒時ᄉᆞᄀᆞ 如三百鉾ᄆᆞ 刺心ᄉᆞᄀᆞ 千刀萬杖ᄆᆞ 打拍其身ᄉᆞᄋᆞᄒᆞᄆᆞ/ᄉᆞᄋᆞᄀᆞᄒᆞᄆᆞ/ᄉᆞᄋᆞᄒᆞᄆᆞ 等無有異ᄂᆞᄎᆞᄉᆞ<梵網42b>

예문 (17ㄱ, ㄴ)에서 'ᄉᆞᄒᆞᄂᆞ, ᄉᆞᄒᆞ(ᄒᆞ늘)'과 'ᄉᆞᄋᆞᄒᆞᄆᆞ, ᄉᆞᄋᆞᄀᆞᄒᆞᄆᆞ'에서 'ᄒᆞ'

字가 동명사와 관련된 어형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이것이 동명사 '-오'이 포함된 어형인지 아니면 'ᄒᆞ(ᄂᆞ/놀)'字가 동명사 '-오'과는 달리 별도의 명사(의존명사)로 쓰인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분포상 'ᄒᆞ'字가 명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것이 석독구결에서는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선 그 분포를 고려한다면 'ᄒᆞ'字가 명사적으로 사용된 吐가 釋讀口訣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ᄒᆞᆫᄂᆞᆺ(ᄒᆞᆫᄂᆞᆺ)', 'ᄒᆞᄃᆞᆫᄂᆞᆺ(ᄒᆞ건ᄂᆞᆺ)', '不矣ㅣᄒᆞᄂᆞᆺ(안디이ᄂᆞᆺ)', '無ᄉᆞᄉᆞᆫᄂᆞᆺ(업스신ᄂᆞᆺ)', 'ᄒᆞᆫᄒᆞᄀᆞ(ᄒᆞᆫᄂᆞ도)', 'ᄒᆞᆫᄒᆞᄀᆞᆡᄌᆞ(ᄒᆞᆫᄂᆞ도이져)' 등이 그것이다. '不矣ㅣᄒᆞᄂᆞᆺ(안디이ᄂᆞᆺ)'을 제외하면 이들도 주로 동명사 'ㄱ' 뒤에 통합되어 있음이 주목된다.

예문 (17)의 'ᄂᆞᄒᆞᆯ(ᄒᆞᆯ)'과 'ᄂᆞᄋᆞᄒᆞᄆᆞ(ᄒᆞᄂᆞᄂᆞ로)'를 석독구결 ≪舊譯仁王經≫에 나오는 명사적 용법을 보이는 'ᄒᆞ'와 비교해 보면 통합된 분포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예문 (17)의 'ᄂᆞᄒᆞᆯ(ᄒᆞᆯ), ᄂᆞᄒᆞ(ᄒᆞᆯ)'과 'ᄂᆞᄋᆞᄒᆞᄆᆞ(ᄒᆞᄂᆞᄂᆞ로)'는 15세기에 남아 있는 'ᄒᆞᄂᆞ로, ᄒᆞ시ᄂᆞ로' 등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 즉 'ᄂᆞᄒᆞᆯ(ᄒᆞᆯ)'과 'ᄂᆞᄋᆞᄒᆞᄆᆞ(ᄒᆞᄂᆞᄂᆞ로)'는 각각 '-오' 동명사에 대격과 조격이 통합된 'ᄒᆞ+ㄴ+ᄋᆞᆯ'과 'ᄒᆞ+ᄂᆞ+오+ㄴ+ᄋᆞ로'를 반영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국립도서관本의 'ᄂᆞᄋᆞᄀᆞᄒᆞᄆᆞ'도 엄인섭본과 정문연본의 'ᄂᆞᄋᆞᄒᆞᄆᆞ'와 같은 것으로, 중복된 표기로 보는 것이 좋다. 이것은 예문 (17ㄱ)의 엄인섭본의 'ᄂᆞᄒᆞᆫ(ᄒᆞᆯ)'에 대해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에서는 'ᄂᆞᄒᆞ(ᄒᆞᆯ)'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4.3.6. 'ㅊ'는 일반적으로 '等'의 약체자로 파악해 왔다. 의존명사 'ᄃᆞ'를 표기하거나 15세기의 선어말어미 '-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태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안동본과 남권희본 ≪楞嚴經≫에 'ㅊ(ᄃᆞ)'로 15세기의 선어말어미 '-더-'에 대응되는 것을 표기한 용례가 보이기 시작한다. 고려말과 조선초의 구결자료부터 'ㅊ, ㅅ(ᄃᆞ/드)' 등이 의존명사 'ᄃᆞ' 뿐만 아니라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것을 표기하는 데도 자주 사용되었다. 따라서 南豊鉉(1987)에서는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더-'의 선대형으로 '-드-'를 설정한 바 있다. 15세기 이후의 口訣 자료에서는 '-더-'를 표기할 경우에는 '加, 加(더)'字를 주로 사용하게 되었다.

(18) 佛ㅣ 卽口ㅎ 放無量光明ᄉᆞᆫᄒᆞ 是時ㅎ//0 百萬億大衆諸菩薩十八梵天六欲天子十六大國王ㅣ 合掌ᄉᆞㅎ 至心… 聽佛ㅣ 誦一切佛ᄒᆞ 大乘戒ᄉᆞᆫᄒᆞᄀᆞᄂᆞᆺᄒᆞᄉᆞᆺ/ᄉᆞᆫᄒᆞᄀᆞᄒᆞᄉᆞᆺ/ᄉᆞᆫᄒᆞᄀᆞᄂᆞᆺᄉᆞᆺ<梵網8a>

예문 (18)에서 알 수 있듯이 ≪梵網經菩薩戒≫의 세 가지 異本에서도 'ㅅ'와 'ㅿ'가 선어말어미 '-ᄃᆞ/드-'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다.[21] 선어말어미 '-ㅅ/ㅿ(ᄃᆞ/드)-'는 계사 뒤에서는 '-ᄅᆞ/르-'로 교체되었다. 다른 고려말 조선초기의 順讀口訣 자료에는 '-ᄅᆞ/르-'를 표기에 반영한 吐도 보인다.[22]

釋讀口訣 資料에서는 선어말어미 '-더-'와 관련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고-', '-거-', '-ᄂᆞ-' 등이 활발하게 사용됨에 비해 '-ᄃᆞ/드-'가 釋讀口訣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4.3.7. 다음 예문은 이미 이승재(1990)에서 항상 'ᄂᆞ西ㄷᆞ(ᄒᆞ요니)', 'ᄂᆞ西ㅁ(ᄒᆞ요ᄃᆡ)'로 쓰이는 것을 주목하고 이미 '西'字를 선어말어미 '-오/우-'와 관련된 '요'로 읽은 바 있다.

---

21) 조선 시대의 필사본들이나 20세기 초기 자료들에서도 선어말어미 '-더-'를 '-드-'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의 '-ㅅ/ㅿ-'와는 다소 그 성격이 다르다. 후대까지 '-드-'로 표기한 것은 개인적인 방언 차이이거나 아니면 정서법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 표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진호 선생의 지적에 의하면 선어말어미 '-ᄃᆞ-'가 15세기 자료에도 보인다고 한다. ≪金剛經三家解≫ '涵序'12b에 보이는 '녯 琴 잘 ᄐᆞᄃᆞᆫ 사ᄅᆞ미오'가 그것이다.

22) 15세기 자료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형이 존재한다. 이현희(1995ㄱ)에 의하면 다음 예문 ㄱ과 ㄴ에 보이는 '-ᄅᆞ-'와 '-르-'가 바로 선어말어미 '-ᄃᆞ/드-'의 이형태와 관련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견해는 이미 서재극(1984)와 남풍현(1987)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ㄱ. 이 우리 허므리라 世尊ㅅ 다시 아니ᄅᆞ샤ᄉᆡ이다<月印釋譜 12:3>

ㄱ'. 이ᄂᆞᆫ 우리 허므리라 世尊ㅅ 다시 아니시다ᄉᆞ이다<法華經諺解 2:5>

ㄴ. 믈 우흿 龍이 江亭을 向ᄒᆞᄉᆞᄫᆞ니 天下ㅣ 定ᄒᆞᆯ 느지르샷다<龍飛御天歌 100장>

(19)ㄱ. 七歲ᄉᆞ/ㅣᄉᆞ/ᄉᆞ西 出家ᄉᆞᄋᆞ 三十ㅣᄉᆞ//ㅣᄉᆞ西 成道ᄉᆞ西ᄒᆡ 号0/0/ㄴ吾爲釋迦牟尼佛ㅣᄉᆞᄉᆞᄋᆞᄉᆞᄒᆡᄒᆞᄉᆞ/ᄉᆞᄉᆞᄒᆡᄒᆞᄉᆞ/ㅣᄉᆞᄉᆞᄒᆡᄒᆡ、<梵網5a>

ㄴ. 復從天王宮… 下至閻浮提菩提樹下ᄉᆞᄋᆞ 爲此地上ᄋᆞ 一切衆生凡夫0/0/ㅅ癡闇之人ᄉᆞᄋᆞ 說我ᄀᆞ//0 本盧舍那佛ㄷ/0/ㄷ 心地中0/0/ᄆᆞ 初發心中ᄋᆞㄷ 常所誦一戒ㅣ//ㅣ(ᄉᆞᄀᆞ) 光明0/0/ㅅ 金剛寶戒ㄴᄉᆞ西ᄒᆡ/ᄉᆞ西ᄒᆡ/ <梵網5b>

(20)ㄱ. 日日三時… 供養ᄉᆞ西ᄆᆞ/ᄂᆞᄆᆞ/ 日食三兩金ᄂᆞᄎᆞᄉᆞ//ᄂᆞᄎᆞᄒᆡ<梵網17a>

ㄴ. 若佛子以惡心故… 放大火ᄉᆞᄋᆞ 燒山林曠野ᄉᆞ西ᄆᆞ/ᄂᆞᄆᆞ/ 四月… 乃至九月ᄒᆞ 放火ᄉᆞᄀᆞ//ᄉᆞᄋᆞ 若燒他人家屋宅城邑僧房田木果/人/ 及鬼神官物ㅣᄉᆞᄒᆞᄒᆞ//ㅣᄋᆞᄒᆞᄒᆞ <梵網20a>

ㄷ. 若佛子有出家菩薩ㅣᄉᆞᄀᆞ/ᄉᆞᄀᆞ/ㅣᄋᆞᄀᆞ 在家菩薩ㅣᄉᆞᄀᆞ//ㅣᄋᆞᄀᆞ 及一切檀越ㅣ 請僧福田ᄉᆞᄋᆞ 求願之時ㅣᄉᆞᄉᆞᄀᆞ/ᄉᆞᄉᆞᄀᆞ/ᄋᆞᄒᆞᄀᆞ (梵網27a) 應入僧房ᄉᆞᄋᆞ//0 問知事人ᄉᆞ西ᄆᆞ/ᄂᆞᄆᆞ/ 今欲次第… 請ㅗ//0者ᄀᆞ//ㅗ 卽得十方賢聖僧ᄉᆞᄎᆞᄉᆞ <梵網27a>

ㄹ. 復作是願ᄉᆞ西ᄆᆞ/ᄂᆞᄆᆞ/ 寧以此口… 吞熱鐵丸0/0/ㅅ及大流猛火ᄉᆞ西ᄆᆞ//ᄂᆞᄆᆞ 經百千劫ㅣᄉᆞᄀᆞㄱ//ㅣᄋᆞᄀᆞㄱ 終不以破戒之口…(梵網31a) 食信心檀越ᄀᆞ/0/ᄀᆞ 百味飮食ᄂᆞᄎᆞᄉᆞ/0/ᄂᆞᄎᆞᄉᆞ <梵網31b>

ㅁ. 復作是願ᄂᆞᄆᆞ/0/ᄂᆞᄆᆞ 寧以此身…/0/… 受三百鉾…/0/0刺ᄉᆞ西ᄆᆞ/0/ᄉᆞ西ᄆᆞ 經一劫ㅗ/0/0 二劫ㅣᄉᆞᄀᆞㄱ/0/ㅣᄋᆞᄀᆞㄱ 終不以破戒之身…/0/… 受信心檀越ᄀᆞ/0/ᄀᆞ 百味醫藥ᄂᆞᄎᆞᄉᆞ/0/ᄂᆞᄎᆞᄉᆞ <梵網31b-32a>

ㅂ. 復作是願ᄂᆞᄆᆞ/0/ᄂᆞᄆᆞ 寧以百千鐵錐…/0/… 遍劇刺耳根ᄂᆞᄆᆞ/0/ᄉᆞ西ᄆᆞ 經一劫二劫ㅣᄉᆞᄀᆞㄱ/0/ㅣᄋᆞᄀᆞㄱ 終不以破戒之心…/0/… 聽好音聲ᄂᆞᄎᆞᄉᆞ/0/ᄂᆞᄎᆞᄉᆞ<梵網32b>

예문 (19)와 (20)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 異本을 서로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ᄉᆞ西ᄒᆡ'는 세 本 모두 'ᄉᆞ西ᄒᆡ(ᄒᆞ요니)'로만 나타나고 'ᄉᆞ西ᄆᆞ(ᄒᆞ요ᄃᆡ)'는 'ᄂᆞᄆᆞ(호ᄃᆡ)'와 대응을 이루고 있다. 이 '西(-요-)'는 선어말어미 '-오-'에 대응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 'ᄒᆞ-'에 '-오-'가 통합되면 간혹 'ᄒᆞ욤'도 나타나지만, '홈', '혼', '호ᄃᆡ', '호니'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자료들에서는 'ᄉᆞ西ᄒᆡ', 'ᄉᆞ西ᄆᆞ'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변칙

동사 'ᄒᆞ-'의 어간형이 'ᄒᆡ-' 또는 'ᄒᆞ이-'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적어도 이들 구결 자료에 口訣이 기입될 당시에는 'ᄒᆞ-'와 'ᄒᆡ-', 'ᄒᆞ이-'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간형 'ᄒᆡ-'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도 존재한다. 'ᄉᆞᅀᆞᄒᆡ(ᄒᆞ여니)'와 'ᄉᆞᄋᆞᄒᆡ(ᄒᆞ야니)'가 그것이다.

(21)ㄱ. 若佛子以好心… 出家ᄉᆞᅀᆞᄒᆡ 而爲名聞利養ᄉᆞᄋᆞ 於國王百官前ᄋᆞ 說七佛戒ᄉᆞᄋᆞ(梵網42a) 橫與比丘比丘尼菩薩弟子… 作繫縛事ᄉᆞᄒᆞᆫ//ᄉᆞᄒᆞ 如師子身中蟲ㅣ//ᄋᆞ 自食師子肉ㅣᄉᆞᄉᆞᄂᆞᆫ 非外道天魔ᄀᆞ 能破ㅣᄒᆡᄉᆞ//ᄒᆡᄉᆞ <梵網42b>

ㄴ. 若佛子信心… 出家ᄉᆞᄋᆞ 受佛正戒ᄉᆞᅀᆞᄒᆡ//ᄉᆞᄋᆞᄒᆡ 故起心ᄉᆞᄋᆞ 毁犯聖戒者ᄀᆞ 不得受一切檀越ᄀᆞ//0 供養ㅣᄒᆞ 亦不得國王地上ᄋᆞ//0 行ㅣᄒᆞ 不得飮國王水ㅣᄉᆞᆷㅣ//ㅣᄋᆞㅣ<梵網40a>

ㄷ. 我今ᄋᆞ 在此樹下ᄉᆞᄋᆞ 略開七佛法戒ᄉᆞᄋᆞᄒᆡ 汝等ᄀᆞ 當一心…(梵網43b) 學波羅提木叉ᄉᆞᄋᆞ 歡喜奉行ᄂᆞᄎᆡᄒᆡ 如無相天王品勸學中ᄋᆞ//ᄋᆞᄀᆞ 一一廣明ᄂᆞᄀᆞᄉᆞᄎᆞᄀᆞㅣ//ᄂᆞᄀᆞᄐᆞᄎᆞᄀᆞㅣ <梵網44a>

예문 (21ㄱ)의 '出家ᄉᆞᅀᆞᄒᆡ'의 '-ᅀᆞ-'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ᄒᆞ-'의 이형태 'ᄒᆡ-'를 상정할 수 있다. 예문(21ㄴ)은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ᄉᆞᅀᆞᄒᆡ'로 정문연본에서는 'ᄉᆞᄋᆞᄒᆡ'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서는 'ᄉᆞᅀᆞᄒᆡ'보다는 'ᄉᆞᄋᆞᄒᆡ'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4.3.8. 口訣字 'ㅁ'는 이 자료에서 'ㅁ(-고), ㅁᄉᆞ, ㅁ斤, ㅁ玉, ㅁ刀, ᄉᆞᄀᆞㅁ' 등으로 쓰이는 데 여기서는 이 중 'ㅁᄉᆞ, ㅁ斤, ㅁ玉' 정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ㅁᄉᆞ(-고라)'와 'ㅁ斤(-고ᄂᆞᆯ)'의 경우 'ㅁ'는 다른 것과는 달리 선어말어미 '-고-'로 사용된 것이다. 선어말어미 '-고-'는 석독구결에서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22)ㄱ. 此是佛行處ㅣᄒᆡ//ᄒᆡ 聖主0/ᄒᆡ/ 所稱歎ㅣᄒᆡᄉᆞ 我已隨順說0/0/ᄉᆞᄒᆞ 福

德無量聚ᄉᆞᆞᄒᆞᆫ/ᄉᆞᆞ/ 廻以施衆生ᄉᆞᄋᆞᆫᄒᆞ 共向一切智ㅁᄉᆞ <梵網46a>

ㄴ. 願聞是法者ㄱ 疾得成佛道{ㅣᄉᆞᆼㅣ}ㅁᄉᆞ/ㅣᄉᆞᆼㅣ/ㅣᄋᆞㅣ <梵網46b>

[원컨대 이 법을 듣는 자는 불도를 빨리 능히(얻어서) 이루기를 바란다.]

예문 (22)의 'ㅁᄉᆞ(-고라)'는 15세기 국어의 願望法 '-고라'에 대응된다. (22ㄱ)은 세 본 모두 'ㅁᄉᆞ(코라)'로 나타난다. (22ㄴ)은 엄인섭본의 'ㅁᄉᆞ'를 제외하면 다 'ㅣᄉᆞᆼㅣ(이어다)'로 현토하였다.

'ㅁ斤(-고ᄂᆞᆯ)'은 'ᄉᆞᆞᄒᆞᆫ斤(ᄒᆞ야ᄂᆞᆯ)'등에서처럼 '-ᄒᆞᆫ斤'로도 나타난다. 이 자료에서도 口訣字 '斤'은 이 경우에만 쓰인다. '斤'字는 ≪舊譯仁王經≫에는 보이지 않고 ≪華嚴經≫ 卷十四나 ≪瑜伽師地論≫에서는 보인다. '斤'字는 주로 'ㅁ斤'과 '-ᄒᆞᆫ斤'의 경우에 사용된다.

'ㅁ斤(-고ᄂᆞᆯ)', '-ᄒᆞᆫ斤(-야ᄂᆞᆯ)'과 관련하여 '-ㅿᄒᆞ(거ᄂᆞᆯ)', '-ᄉᆞᆼᄒᆞ(어ᄂᆞᆯ)'이[23] 'ㅁ斤', '-ᄒᆞᆫ斤' 등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아주 다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승재(1990)에서는 이미 'ㅿᄒᆞ'과 'ㅁ斤'을 다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즉 'ㅿᄒᆞ'은 '설명'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ㅁ斤'은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23)ㄱ. 而菩薩ㄱ 聞外道惡人果/ㅅ/ 及二乘惡人果ㅐ/ㅅㅐ/ (梵網11b) 說佛法中ᄒᆞᆫ/ᄒᆞᆫㄷ/ᄒᆞᆫ 非法非律ㅁ斤 常生悲心ᄉᆞᆞᄒᆞᆫ 敎化是惡人輩ᄉᆞᆞᄒᆞᆫ 令生大乘善信ᄂᆞᄎᆞᄉᆞᆼᄒᆞᄂᆞ/ᄂᆞᄎᆞᄉᆞᆼᄒᆞ/ ᄂᆞᄎᆞᄋᆞᄒᆞ 而菩薩ㅐ 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2a>

ㄴ. 而菩薩ㄱ 見一切貧窮人ㅐ 來乞者ㅁ斤//(?ᄒᆞᆨ) 隨前人ᄒᆞᆨ//0 所須ᄉᆞᆞᄒᆞᆫ 一切ㄴ 給與{ᄂᆞᄎᆞᄉᆞᆼᄒᆞᄂᆞ}ᄂᆞᄎᆞᄉᆞᆞ/ᄂᆞᄎᆞᄉᆞᆼᄒᆞ/ᄂᆞᄎᆞᄋᆞᄂᆞ 而菩薩ㅐㅅ//ㅐ 以惡心瞋心ᄉᆞᆞᄉᆞ 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ᄉᆞᆞᄀᆞ 有求法者ㅿᄉᆞㄱ(梵網12b) 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ㅿᄒᆞᄉᆞᆼᄒᆞ/ ㅿᄒᆞ/ㅿᄒᆞᄋᆞᄒᆞ 而反更罵辱者ㄱ/(?

23) '-ㅿᄒᆞ(거ᄂᆞᆯ)', '-ᄉᆞᆼᄒᆞ(어ᄂᆞᆯ)' 등은 '-ㅿᄀᆞ', '-ᄉᆞᆼᄀᆞ'로도, 'ᄂᆞᄎᆞᄉᆞᆼᄒᆞᄀᆞ' 등에서는 '-ᄉᆞᆼᄒᆞᄀᆞ'로도 표기된다. 이들은 15세기 국어의 '-거ᄂᆞᆯ', '-거늘', '-어늘', '-어ᄂᆞᆯ' 등과 직접적으로 맥이 닿는다. 주로 '-거늘'은 비타동사에 통합되고, '-어늘'은 타동사와 통합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늘'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 기능을 보이는바 주로 전제나 근거를 나타낼 때 또는 역접 내지 대조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ㅅㄱ)/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3a>

ㄷ. 而菩薩ㄱ 見外道ㅅ/ㅏ/ㅅ 及以惡人果ㄲ/ㅅㄲ(?ㄱ)/ㅅㄲ 一言… 謗佛音聲口斤 如三百塔… 刺心ノチヤㄱ 況口… 自謗ンゝ 不生信心孝順心ㄲ セ月ㅗ/ㄲセ入ㅗ/ㄲセホㅗ<梵網13b>

ㄹ. 若佛子見一切衆生ㅋ(16a) 犯八戒五戒十戒毁禁七逆八難一切犯戒罪し口斤//しロ 應教懺悔ノチヒ<梵網16b>

ㅁ. 若佛子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ㄲ 來入僧坊舍宅城邑ン西ム/ノム/若百里千里… 來者しロ斤//ロ(梵網 16b) 卽起ンゝ 迎來送去ンカ 禮拜供養ノチヒ<梵網17a>

ㅂ. 若佛子應好心… 先學大乘威儀經律ンカ 廣開解義味ンゝ 見後新學菩薩ㄲ 有從百里千里… 來求大乘經律口斤 應如法ㅋ 爲說一切苦行ノチヒ<梵網20b>

ㅅ. 若見世人ㄲ 殺畜生時口斤 應方便…//0 救護ンゝ 解其苦難ロ 常教化ンゝ(梵網22b) 講說菩薩戒ンゝ 救度衆生ノチㅅ<梵網23a>

ㅇ. 若佛子見一切疾病人口斤 常應供養ノム 如佛無異ノチㅅ//ノチヒ <梵網18a>

ㅈ. 若見牛馬猪羊一切畜生口斤 應心念口言ノム 如是畜生ㄲヒ 發菩薩心ㅎㅣノチㅅ/ㄲㅎㅣノチㅅ/(ㄲオㅅノチㅅ)<梵網41a>

ㅊ. 若佛子先在僧房中住ンゝ 後ゝ//0 見客菩薩比丘ㄲ 來入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ㄲㅎ乃//ㄲオ乃 乃至夏坐安居處0/ㅎ乃/ㄲオ乃 及大會中ㄲㅎ乃ロ斤/ㅎ乃ロ斤/ㄲオ乃ロ斤 先住僧ㄲ 應迎來送去ンカ(梵網26a) 飮食… 供養ンカ 房舍臥具繩床事事し 給與ノチㅅ<梵網26b>

ㅋ. 佛言佛子ㄲ/ㄱ/ 佛滅度後ゝ//0 於惡世中ゝ 若見外道一切惡人劫賊ㄲ 賣佛菩薩父母形像ンカ 販賣經律ンカ 販賣比丘比丘尼ンカ 亦賣發心菩薩道人ンゝ 或爲官使ㄲカ 與一切人… 作奴婢者口斤/ンしロ斤/ 而菩薩ㄲ(梵網28b) 見是事已口斤 應生慈心ンゝ 方便… 救護ンゝ 處處ゝ 教化取物ンゝ//ンカ 贖佛菩薩形像及比丘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律ノチヒ//ㅋチヒ 若不贖者ㄱ 犯輕垢罪 <梵網29a>

ㅌ. 若佛子ㄲ//0 教化人ンゝ 起信心時ゝㄱ 菩薩ㄲ//0 與他人…(梵網37b) 作教誡法師者ㄲ//ㄱ 見欲受戒人口斤 應教請二師和上阿闍梨ノチㅅ <梵網38a>

예문 (23)에서 알 수 있듯이 'ㅁ斤'은 일반적으로 조건(또는 가정)의 연결어미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을 현대국어로 번역하면 "-거든"이나 "-으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ㅁ斤'과 관련된 것으로는 'ㅅ ᄀ斤'이 있다. 이 경우는 '- ᄀ斤'로 나타난다. 이 자료에서 口訣字 '斤'은 이 두 경우에서만 쓰인다. 이미 이승재(1990)에서 'ㅁ斤'과 '- ᄀ斤'이 의미 기능이 같은 것으로 파악하여 이 둘을 이형태 관계로 파악한 바 있다.

(24) ㄱ. 汝新學菩薩ㄱ 頂戴受持戒ㅅ 受持是戒已ㅅ ᄀ斤 轉授諸衆生ㅅ <梵網7a>

ㄴ. 衆集默然聽ㅅ ᄀ 自知有罪ㅅ ᄀ斤 當懺悔ㅅ ᄐᆞᄒᆡ 懺悔ㅅ ᄀᆞᆨㄱ//ㅅㄱ 卽安樂ㅅ ᄐᆞᄒᆞᄉᆞᆷ//ㅅ ᄐᆞᄒᆞᄋᆡᄉᆞᆷ 不懺悔ㅅ ᄀᆞᆨㄱ//ㅅㄱ 罪益深ㅅ ᄐᆞᄒᆞᄉᆞ<梵網1a>

ㄷ. 卽得戒已ㅅ ᄀ斤 生孝順心恭敬心ㅅ ᄀ 見上座和上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ㅁ斤 應起承迎ㅅ ᄀ 禮拜問訊ㅅ ᄐᆞᄒᆞᄉᆞᆷᄒᆡᄂᆞ/ㅅ ᄐᆞᄒᆞᄉᆞᆷᄒᆡ/ㅅ ᄐᆞᄒᆞᄋᆞᄂᆞ <梵網15a>

ㄹ. 若佛子佛滅後 ᄀ 爲說法主ㄹ ᄉᆞᆷ乃/ᄉᆞᆷ乃/ㄹ ᄋᆞᄒᆞᄋᆞ乃 爲僧房主ㄹ ᄉᆞᆷ乃/ᄉᆞᆷ乃/ㄹ ᄋᆞᄒᆞᄋᆞ乃(25b) 敎化主ㄹ ᄉᆞᆷ乃/ᄉᆞᆷ乃/ㄹ ᄋᆞᄒᆞᄋᆞ乃 坐禪主ㄹ ᄉᆞᆷ乃/ᄉᆞᆷ乃/ㄹ ᄋᆞᄒᆞᄋᆞ乃 行來主ㄹ ᄉᆞᆷ乃ㅅ ᄀ斤/ᄉᆞᆷ乃ㅅ ᄀ斤/ㄹ ᄋᆞᄒᆞᄋᆞ乃ㅅ ᄀ斤 應生慈心ㅅ ᄀ 善和鬪訟ㅅ ᄀᆞᆨㄱ/ㅅ ᄀ/ 善守三寶物ㅅ ᄀ 莫無度用ㄴᆞᆷ 如自己有ㄴᆞᄒᆞᄉᆞ <梵網26a>

ㅁ. 而菩薩ㄱ/ㄹ/ㄱ 入一切處山林川野ㅅ ᄀ斤 皆使一切衆生… 發菩薩心ㄴᆞᄒᆞᄉᆞ<梵網41a>

'ㅁ玉'은 예문 (25)에서처럼 엄인섭本에 단 한 번 나타난다. 'ㅁ玉'은 연결어미 '-고'에 강세첨사 'ㄱ'이 통합된 것이다. 구결자 '玉'은 남권희본, 기림사본, 송성문본 ≪楞嚴經≫에도 나타나는데 주로 'ㅁ玉'으로 나타난다. 'ㅁ玉(-곡)'은 'ㅁ(고)'와 '玉(옥)'에서 '오' 音이 중복된 표기이다. 口訣吐에는 이런 모음이나 자음의 중복표기는 구결자 표기의 운용체계에서 가끔 볼 수 있다.

(25) 而菩薩ㄱ 應代一切衆生ㅅ ᄀ 受加毁辱ㅅ ᄀ 惡事ᄉᆞᆨㄱ 自向已ㅁ玉/ㅁ/ 好事ᄉᆞᆨㄱ(12a) 與他人ㄴᆞᄒᆞᄉᆞᆷᄒᆡᄂᆞ/ㄴᆞᄒᆞᄉᆞᆷᄒᆡ/ㄴᆞᄒᆞᄋᆞᄂᆞ 若自揚己德ㅁ 隱他人

ᄒᆞ 好事ᄂᆞᆯ 令他人ᄋᆞᆫ 受毁者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2b>

엄인섭본의 'ㅁ玉'에 대해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에서는 강세첨사가 없는 'ㅁ'로 구결을 달고 있다.

4.3.9. 다음은 'ㅅᆞᆨᄒᆞㄱ(호리온)'과 'ㅣᄒᆞㄱ(이온)'으로 연결된 접속문이다. 이 구문은 후행문이 일반적으로 '-ㅌᅵᄉᆞᅀᅥ(ㅅᄃᆞ여)'의 수사의문과 주로 호응하는 특징을 가진다.

(26)ㄱ. 善{ㄴ}/0/0 學{ᄉᆞᆫㄴ}/0/0 諸仁者(?)/ㅍ/ 是菩薩ㅌ/0/0十波羅提木叉ㅣㅂ//ㅂ 應當學ᄂᆞᆯ 於中ᄂᆞᆯ 不應一一犯ㅅᆞᆷ 如微塵許ㅅᆞᆨᄒᆞㄱ 何況具足犯十戒ㅣㅌᅵᄉᆞᅀᅥ <梵網14a>

ㄴ. 而菩薩ㄱ 見外道ㅅ/ㅏ/ㅅ 及以惡人果ㅣ/ㅅㅣ(?ㄱ)/ㅅㅣ 一言ᄆᆞ 謗佛音聲口斤 如三百鉾ᄆᆞ 刺心ㅅᆞᆨᄒᆞㄱ 況口ᄆᆞ 自謗ᄂᆞᆯ 不生信心孝順心ㅣㅌᅵ月ᅀᅥ/ㅣㅌᅵᄉᆞᅀᅥ/ㅣㅌᅵᄒᆞᅀᅥ<梵網13b>

ㄷ. 不得敎一切人ᄆᆞ 飮ㅣᄉᆞᆼᄀᆞ//ㅣᄋᆞᄀᆞ 及一切衆生ᄆᆞ 飮酒ㅅᆞᆨᄒᆞㄱ 況自飮酒ㅣㅌᅵᄉᆞᅀᅥ <梵網15b>

ㄹ. 而菩薩ㄱ 乃至殺父母ᄂᆞᆯㄱ 尙不加報ㅅᆞᆨᄒᆞㄱ 況(餘)一切衆生ㅣㅌᅵᄉᆞᅀᅥ 若故畜一切刀杖者ㄱ 犯輕垢罪 <梵網18b>

ㅁ. 而菩薩ㄱ 不得入軍中ᄂᆞᆯ 往來ㅅᆞᆨᄒᆞㄱ 況故作國賊ㅣㅌᅵᄉᆞᅀᅥ 若故作者ㄱ 犯輕垢罪 <梵網19a>

ㅂ. 若殺父母兄弟六親ᄂᆞᆯㄱ 不得加報ㅣᄉᆞᆼᄀᆞ//ㅣᄋᆞㅣ 若國主ㅣ 爲他人ᄒᆞ/0/ᄒᆞ(23a) 殺者ㅣᄉᆞㄱ/ᄉᆞㄱ/ 亦不得加報ㅣᄉᆞㅣ//0 殺生0/0/ㅣᄋᆞㅣ報生ㄱ 不順孝道ㅣㅂᄉᆞ//ㅂᄉᆞ 尙不畜奴婢ᄂᆞᆯ 打拍罵辱ᄂᆞᆯ 日日0/ᄂᆞᆯ/0起三業ㅅᆞᆷ 口罪無量ㅅᆞᆨᄒᆞㄱ 況故作七逆之罪ㅣㅌᅵᄉᆞᅀᅥ//ㅣㅌᅵᄒᆞᅀᅥ <梵網23b>

ㅅ. 寧自入地獄ᄂᆞᆯ 經百劫ㅣᄉᆞᆼㄱ ㅜ//ㅣᄋᆞㄱ ㅜ 而不用一聞惡言ᄆᆞ破佛戒之聲{ㅅᆞᆨᄉᆞ}ㅅᆞᆨᄒᆞㄱ// (梵網42b) 而況自破佛戒ᄂᆞᆼᄀᆞ 敎人ᄆᆞ//0 破法因緣ㅣㅌᅵᄉᆞᅀᅥ//ㅣㅌᅵᄒᆞᅀᅥ <梵網43a>

ㅇ. 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ᄂᆞᆼᄀᆞ 市易棺材板木盛死之具ㅣᄉᆞᆼㅌᅵㅍ//ㅣᄋᆞ

ᄒᆞᄇᆞ 尙不自作ㅣᄒᆞᄀᆞ 況敎人作ㅣᄒᆞᄉᆞᄂᆞᆫ 若故作者ᄀᆞ/0/0 犯輕垢罪 <梵網19a>

예문 (26)은 후행문이 모두 '-ᄉᆞᄂᆞᆫ(-ㅅᄃᆞ여)' 수사의문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15세기 국어에서는 '-거니'나 '-곤/온'이 수사의문문 앞에 오는 특징이 있다. 'ㅅᆞᄎᆞᄒᆞᄀᆞ'이나 'ㅣᄒᆞᄀᆞ'에 통합되어 있는 '-ᄒᆞᄀᆞ(-온)'이 15세기의 '-곤'과 같은 것이다. 이 '-ᄒᆞᄀᆞ(-온)'은 계사 뒤에서 'ㄱ'이 탈락한 것이다.

이에 비해 다음 예문 (27)은 후행문이 수사의문이 아닌 평서문 'ㅣᄉᆞㅣ'로 나타난다.

(27) 已ㅣ/0/0略說菩薩波羅提木叉(梵網9a)相貌ㅅᄋᆞᄒᆞ 是事{ᄂᆞ}ᄀᆞ// 應當學{ㅅᄋᆞ}ㅣᄒᆞᄒᆞᄀᆞ//ㅣᄎᆞᄒᆞᄀᆞ 敬心奉持ㅣᄉᆞㅣ/ᄉᆞㅣ/ <梵網9b>
[이미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모습(계상)을 간략히 말했으니 이 일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니(이 일을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이다.]

예문 (27)의 엄인섭본과 국립도서관본에서는 'ㅣᄒᆞᄒᆞᄀᆞ(이니온)'으로, 정문연본에서는 'ㅣᄒᆞᄎᆞᄒᆞᄀᆞ(이리온)'으로 吐를 달고 있다. 또 이것과 연결되는 후행문이 평서문 'ㅣᄉᆞㅣ'로 나타나는 것도 특이하다.

4.3.10. 'ㅅᄂᆞᆫᄒᆞᄀᆞ(홀여힌)'으로 연결된 접속문은 이 자료에서는 다음 한 용례만 보인다.

(28) 千百億世界中ㅅᄋᆞ 一切衆生ㅣ 受持ㅅᄋᆞ//0(梵網44b) 歡喜奉行0/ㅣ/ 若廣開心地相相ㅅᄂᆞᆫᄒᆞᄀᆞ//ㅅᄀᆞᆫᄒᆞᄀᆞ 如佛花光王品中ㅅᄋᆞ 說ᄀᆞㅣ<梵網45a>

예문 (28)의 'ㅅᄂᆞᆫᄒᆞᄀᆞ(홀여힌)'은 이 문장에서 보면 원문의 '若'과 호응하는 吐로서 '조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문연本에서는 'ㅅᄀᆞᆫᄒᆞᄀᆞ(혼여

힌)'으로 나타난다. 'ㅅㅣㅗㅓㄱ'과 'ㅅㄱㅗㅓㄱ'에서 알 수 있듯이 이 吐는 동명사형 'ㅅㅣ'과 'ㅅㄱ'에 'ㅗㅓ(亦中)'와 'ㄱ'이 통합된 구조체이다.

4.3.11. 부사형어미 또는 부사화 접사로 사용된 'ᄒᆞ'에 대해 살펴본다.

(29)ㄱ. 若佛子以惡心故… 放大火ㅅᄀᆞᆯ 燒山林曠野ㅅ西ㅁ/ㅅㅁ/ 四月… 乃至九月ᄒᆞ 放火ㅅᄒᆞ//ㅅᄀᆞᆯ 若燒他人家屋宅城邑僧房田木果/ㅅ/ 及鬼神官物ㅣᄉᆞᆼㅌㅓ//ㅣㅇㅓㅌㅓ <梵網20a>

ㄴ. 頭陀者ㄱ 從正月十五日…//ㅅᄒᆞ 至三月十五日0/ㅅᄒᆞ/ (梵網33b) 八月十五日… 至十月十五日ᄒᆞ 是二時中ᄀᆞᆯ 此十八種物ㄴ 常隨其身ㅅㅁ 如鳥ㅣ 二翼ㅅㅓㅅ <梵網34a>

ㄷ. 千百億釋迦ㅣ 亦如是說ㅅㅡㅌ(梵網44a) 從摩醯首羅天王宮… 至此道樹ᄒᆞ 十住處說法品ㅣㅌㅅ//ㅣㅌ、 <梵網44b>

ㄹ. 若一七日ㅗ(梵網38a) 二三七日ㅗ 乃至一年ᄒᆞ 要見好相ㅅㅓㅅ <梵網38b>

ㅁ. 若佛子佛滅度後ᄀᆞᆯ 欲心好心… 受菩薩戒時ᄀᆞᆯ//ᄀᆞᆯㄱ(梵網24a) 於佛菩薩形像前ᄀᆞᆯ 自誓受戒ㅅㅓㅌ//ㅓㅌ 當七日ㄴ 佛前ᄀᆞᆯ 懺悔ㅅㅓㅌ//ㅅㅓㅅ 得見好相ㅅᄒᆞㄱ//ㅅㅜ 便得戒ㅅㅓᄉᆞㅌ/ㅅㅓᄉᆞㅌㅌ/ㅅㅓᄉᆞㅌㅅ 若不得好相ㅣᄉᆞㅅㄱ//ㅣㅇㅗㄱ 應二七ㅗ 三七ㅗ 乃至一年ᄒᆞ 要得好相ㅣᄉᆞㅣ//ㅣㅇㅣ <梵網24b>

예문 (29)는 '至'에 현토된 부사형어미 'ᄒᆞ'이다. 예문 (29ㄱ, ㄴ, ㄷ)은 15세기 국어로 직역하면 '…에 니르리' 정도로 언해될 수 있는 문장이다. "…로부터 …까지"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예문 (29ㄹ, ㅁ)은 나열되는 '乃至'에 'ᄒᆞ'가 현토된 구문이다. 이것은 도달의 의미를 가지는 '至'를 부사화하는 용법이다.

예문 (30)은 '應如法ᄒᆞ'인데 이 경우 'ᄒᆞ(히)'는 부사형으로 '如'에 걸리는 구결자이다. 15세기 국어로 언해하면 '다히' 정도로 언해할 수 있다.

(30)ㄱ. 若佛子應好心… 先學大乘威儀經律ㅅᄒᆞ 廣開解義味ㅅᄀᆞᆯ 見後新學菩

薩ㅣ 有從百里千里… 來求大乘經律ㅁ斤 應如法ᄒᆞ 爲說一切苦行ㅅ ᄎᆞ ᄒᆡ<梵網20b>

ㄴ. 若佛子應如法ᄒᆞ 次第坐ㅅ ᄎᆞ ᄒᆡ 先受戒者ㅣ 在前坐ㅁ 後受戒者ㅣ 在後坐ㅅ ᄎᆞ ᄒᆡ//ㅅ ᄎᆞ ㅇ <梵網35a>

다음 예문 (31)은 부사로 쓰인 것이다. 이런 것은 順讀口訣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釋讀口訣에서 내려온 전통이다.

(31)ㄱ. 若佛子以惡心故… 無事ᄒᆞ 謗他良人善人法師師僧國王貴人ㅅᄂᆞᆫ 言犯七逆十重ㅣ ᄉᆞᆷ ᄒᆡ ᄇᆞ <梵網19b>

ㄴ. 在佛菩薩形像前ㅅᄂᆞᆫ 日夜六時ᄂᆞᆫ 誦十重四十八輕戒ㅅᄂᆞᆫ 苦到ᄒᆞ 禮三世千佛ㅅᄂᆞᆫ 得見好相ㅅ ᄎᆞ ㅇ <梵網38a>

'無事ᄒᆞ'와 '苦到ᄒᆞ'에서의 'ᄒᆞ'는 부사화 접사로 사용된 것이다.

예문 (32)는 정문연本에서는 'ㅅᄀᆞᆞᄒᆞ(ᄒᆞ며히)'로 나타난다. 'ㅅᄀᆞᆞᄒᆞ'는 주로 고려말 조선초의 순독구결 자료에서 많이 보인다. 이 자료에서는 정문연본에 나타나는 이것이 유일한 용례다.

(32) 尒時0/ᄂᆞᆫ/ᄂᆞᆫ 千花上佛ㅅ/ㅏ/ㅅ 千百億釋迦ㅅㅣ/ㅏ/ㅅㅣ 從蓮花藏世界0/0/ㅈㄱ 赫赫師子座… 起ㅅᄂᆞᆫ 各各0/0/ㄴ 辭退ㅅᄂᆞᆫ/0/ㅅᄂᆞᆫ 擧身{ㅅᄂᆞᆫ}ㅅ?/0/ㅅᄀᆞᆞᄒᆞ(梵網3a) 放不可思議光ㅅㄷᆞᄒᆡ 光ᄂᆞᆫ 皆化無量佛ㅅᄂᆞᆫ <梵網3b>

4.3.12. 이 세 자료에서 사용된 복합토로 특징적인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아래에 제시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 중 몇몇 복합토들은 일반적으로 후대의 順讀口訣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複合吐들은 釋讀口訣에서 順讀口訣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종의 과도기적인 현상을 보이는 吐로서 의미가 있다.

(33) ᄂᆞᆫᄀᆞᆯᄒᆞ며), ᄂᆞᆫᄃᆞᆯᄒᆞ면), ᄂᆞᄎᆞ가(올커나), ᄂᆞᄆᆞ斤(올코날)
ᄂᆞᆫ西ᄒᆡ(올ᄒᆞ요니), ᄂᆞᄀᆞᄎᆡ(올호리니), ᄂᆞᄀᆞᄎᆞᆫᄒᆡᄋᆞ(올호리어니아)
ᄂᆞᄀᆞᄎᆞᅀᆞ(올호리라)
ᄂᆞᄒᆡᄂᆞᆫᄂᆞᄒᆡ(ᄒᆞ놀ᄒᆞ시니), ᄂᆞᄒᆡᄂᆞᆫᄂᆞᄒᆡ(ᄒᆞ놀ᄒᆞ시니)
ᄲᆞᆫᄀᆞᄒᆞ(로ᄒᆞ야), ᄲᆞᆫᄃᆞᆯ(로ᄒᆞ면), ᄲᆞᄆᆞ가(로코도)
ᄂᆞᄲᆞᄆᆞ가(ᄋᆞ로코도)

(33)에 제시된 복합토들은 한 구절 안에서 대격과 조격으로 지배되는 구조의 토가 순독구결로 되면서 마지막 구두처에 내려와 복합토를 형성한 것이다.

다음 예문 (34ㄱ)은 절이나 문장이 동명사구성 'ᄂᆞᆫ(ᄒᆞᆫ)'에 의해 이어진 복합토이고, (34ㄴ)은 절이 'ᄒᆞ-' 동사에 이어지는 복합토이다.

(34)ㄱ. ᄂᆞᆫᄉᆞᆫᄂᆞᆫ(ᄒᆞ샤ᄒᆞᆫ), ᄂᆞᆫᄀᆞᆫᄂᆞᆫ(ᄒᆞ야ᄒᆞᆫ), ᄅᆡᄉᆞᆫᄂᆞᆫ(이라ᄒᆞᆫ),
ᄂᆞᄀᆞᄎᆞᆫᄂᆞᆫ(ᄒᆞ리라ᄒᆞᆫ)
ㄴ. ᄂᆞᆫᄀᆞᄒᆞᄂᆞᄀᆞᄎᆡ(ᄒᆞ야ᄉᆞᄒᆞ리니)

(35ㄱ, ㄴ)은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명사구나 동사구를 나열하는 구문의 복합토이다. 석독구결에서 많이 보이던 'ᄅᆡᄒᆞ'와 'ᄂᆞᆫᄒᆞ'가 이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35)ㄱ. ᄋᆞᄂᆞᆫᄉᆞᄎᆞᄂᆞᆫ(여홀커든), ᄋᆞᄂᆞᆫᄉᆞᄒᆞᄂᆞᆫ(여홀커든)
ᄋᆞᆫᄒᆡᄆᆞ(여ᄒᆞ니아), ᄋᆞᆫᄒᆡᄆᆞ(여ᄒᆞ니아)
ᄉᆞᄀᆞᆫᄒᆡᄋᆞᄎᆞᄂᆞᆫ(어나ᄒᆞ니어든), ᄎᆞᄀᆞᄎᆞᄂᆞᆫ(커나커든)
ᄅᆡᄋᆞᄀᆞᄆᆞ斤(이어나코날)
ᄅᆡᄋᆞᄀᆞᆫᄒᆡᄆᆞ(이어나ᄒᆞ니아), ᄋᆞᄀᆞᆫᄒᆡᄆᆞ(어나ᄒᆞ니아),
ㄴ. ᄎᆞᄀᆞᆫᄂᆞᄒᆞᄀᆞ(커나ᄒᆞ야도)

(35ㄱ)은 명사구를 나열하는 복합토의 목록이고, (35ㄴ)은 동사구를 나열하는 복합토이다. 다음 예문 (36)과 (37)은 그 용례들이다.

(36)ㄱ. 若法師ㅣㅅ/ㅣ/ 自倚解經律大乘學戒ᄂᆞᆞᆫ 與國王太子百官ᄆᆞᆫ 以爲善友{ㅁ}ᄂᆞᆞᆫ/ᄂᆞᆞᆫ/ 而新學菩薩ㅣ 來問ᄂᆞᆷ 若經ㅡ/0/0義ㅡ 律義ㅡᄂᆞᆫᄃᆞ入ㄱ//ㅡᄂᆞᆫᄃᆞᄒᆞㄱ 輕心惡心慢心ᄆᆞᆫ 不一一好答問者ㄱ/0/ㄱ 犯輕垢罪 <梵網25a>

ㄴ. 而菩薩ㄱ 應爲一切衆生ᄂᆞᆞᆫ 講說大乘經律ᄂᆞᆫᄎᆞᄒᆡ/ᄂᆞᆫᄎᆞᄒᆡ/ 若疾病ㅣ 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國難ㅣᄉᆞᆼᄀᆞᆷ/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賊難ㅣᄉᆞᆼᄀᆞᆷ/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ㅣ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及三七日ㅡ/0/ㅡ 乃至七七日ㅡᄂᆞᆫᄒᆡᄑᆞ//ㅡᄂᆞᆫᄒᆡᄑᆞ<梵網35b>

ㄷ. 而菩薩ㄱ 應生一切衆生中ᄒᆞ/0/ᄒᆞ 善根無諍之事ᄂᆞᆞᆫ 常生悲心ᄂᆞᆫᄎᆞᄉᆞᆼᄒᆡᄂᆞᆫ/ᄂᆞᆫᄎᆞᄉᆞᆼᄒᆡ/ᄂᆞᆫᄎᆞᄋᆞᄉᆞᆫ 而反更於一切衆生中ㅡ/ㅣㅡ/ㅡ 乃至於非衆生中ㅡᄂᆞᆫᄒᆡᄑᆞ//ㅡ 以惡口ᄆᆞᆫ 罵辱ᄂᆞᆞᆫᄀᆞᆷ 加以手打ᄂᆞᆞᆫᄀᆞᆷ 及以刀杖ᄂᆞᆞᆫᄆᆞᄋᆞᄒᆞᆫᄀᆞ/ᄆᆞᄋᆞᄒᆞᆫᄀᆞ/ 意猶不息ᄂᆞᆞᆫᄒᆞ 前人ㅣ 求悔ᄂᆞᆞᆫᄒᆞ 善言ᄆᆞᆫ 懺謝ᄃᆞᆞᆫ入ㄱ(梵網13a) 猶瞋不解者ㄱ 是菩薩波羅夷罪0/0/ㅅ<梵網13b>

ㄹ. 若佛子先在僧房中住ᄂᆞᆞᆫᄒᆞ 後ᄒᆞ//0 見客菩薩比丘ㅣ 來入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ㅣ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乃至夏坐安居處0/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及大會中ㅣᄉᆞᆼᄀᆞᆷᄅᆞᄇᆞᆫ/ᄉᆞᆼᄀᆞᆷᄅᆞᄇᆞᆫ/ㅣᄋᆞᆼᄀᆞᆷᄅᆞᄇᆞᆫ 先住僧ㅣ 應迎來送去ᄂᆞᆞᆫᄀᆞᆷ(梵網26a) 飮食ᄆᆞᆫ供養ᄂᆞᆞᆫᄀᆞᆷ 房舍臥具繩床事事ᄒᆞ 給與ᄂᆞᆫᄎᆞᄉᆞᆫ<梵網26b>

ㅁ. 若佛子佛滅後ᄒᆞ 爲說法主ㅣᄉᆞᆼᄀᆞᆷ/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爲僧房主ㅣᄉᆞᆼᄀᆞᆷ/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25b) 敎化主ㅣᄉᆞᆼᄀᆞᆷ/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坐禪主ㅣᄉᆞᆼᄀᆞᆷ/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行來主ㅣᄉᆞᆼᄀᆞᆷᄂᆞᆞᆫᄒᆞᆫ/ᄉᆞᆼᄀᆞᆷᄂᆞᆞᆫᄒᆞᆫ/ㅣᄋᆞᆼᄀᆞᆷᄂᆞᆞᆫᄒᆞᆫ 應生慈心ᄂᆞᆞᆫᄒᆞ 善和鬪訟ᄂᆞᆞᆫᄀᆞᆷ/ᄂᆞᆞᆫᄒᆞ/ 善守三寶物ᄂᆞᆞᆫᄒᆞ 莫無度用ᄂᆞᆷ 如自己有ᄂᆞᆫᄎᆞᄉᆞᆫ <梵網26a>

(37)ㄱ. 亦應讀誦講說此經律ᄂᆞᆞᆫᄀᆞᆷ//ᄂᆞᆞᆫᄒᆞ 乃至一切罪報三報七逆八難枷械枷鎖繫縛其身ᄃᆞᆞᆫᄀᆞᆷ 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ᄃᆞᆞᆫᄀᆞᆷᄃᆞᆞᆫ入ㄱ 皆應讀誦講說此經律ᄂᆞᆫᄎᆞᄒᆡ 而新學菩薩ㅣ 若不尒者ㄱ 犯輕垢罪<梵網36a>

ㄴ. 其法師者ㅣㅅ/ㅣ/ 或小姓年少ㅣᄉᆞᆼᄀᆞᆷ//ᄃᆞᆞᆫᄀᆞᆷ 卑門貧窮ㅣᄉᆞᆼᄀᆞᆷ//ㅣᄋᆞᆼᄀᆞᆷ 諸根ㅣ 不具ᄃᆞᆞᆫᄀᆞᆷᄂᆞᆞᆫᄒᆞᆫᄀᆞᆷ 而實有德ᄂᆞᆞᆫᄒᆞ 一切經律ᄒᆞ 盡解ᄃᆞᆞᆫ入ㄱ//ᄃᆞᆞᆫᄒᆞㄱ 而新學菩薩ㄱ 不得觀法師ᄒᆞᆞᆫ 種姓ㅣᄉᆞᆼᄒᆡ//ㅣᄋᆞᆼᄒᆡ<梵網24a>

예문 (36)과 (37)에서 알 수 있듯이 15세기 국어의 '-와/과'의 집단 곡용처럼 마지막 명사구나 동사구에까지 '-ㅡㄴ'나 'ㅣᄋᆞᆼᄀᆞᆷ' 그리고 'ᄃᆞᆞᆫᄀᆞᆷ(커나)'가 현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38)은 일종의 인용 내포문을 보이는 복합토들이다.

(38)ㄱ. ᄅᆞᄉᆞᄋᆡᄂᆞᄎᆞᆺ(이어다호리라), ᄅᆞᄉᆞᄋᆡᄋᆞᆫᄀᆞ(이어다ᄒᆞ며),
ᄋᆡᄋᆞᆫᄀᆞ(어다ᄒᆞ며), ᄉᆞᄋᆞᆫᄒᆡᄉᆞ(라ᄒᆞᄂᆞ니라),
ᄅᆞᄉᆞᄋᆞᆫᄒᆡᄒᆞ·(이라ᄒᆞᄂᆞ니라), ᄅᆞᄉᆞᄋᆞᄀᆞᄋᆞᆫᄒᆡᄉᆞ(이라ᄒᆞ야ᄒᆞᄂᆞ니라)
ㄴ. 七歲ㅅ/ᄅᆞᄉᆞ/ㅅ西 出家ᄋᆞᄀᆞ 三十ᄅᆞᄉᆞ//ᄅᆞᄉᆞ西 成道ᄋᆞ西ᄒᆡ 号0/0/ㄴ吾
爲釋迦牟尼佛ᄅᆞᄉᆞᄋᆞᄀᆞᄋᆞᆫᄒᆡᄉᆞ/ᄉᆞᄋᆞᆫᄒᆡᄉᆞ/ᄅᆞᄉᆞᄋᆞᆫᄒᆡᄒᆞ·<梵網5a>
[칠세가 되어 출가하고 삼십세가 되어서 성도하니, 나를 부르기를(이름하여) 석가모니불이라고 한다.]

예문 (38ㄴ)에서 보면 엄인섭본에서는 'ᄅᆞᄉᆞ#ᄋᆞᄀᆞ#ᄋᆞᆫᄒᆡᄉᆞ'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립도서관본과 정문연본에서는 각각 'ᄉᆞ#ᄋᆞᆫᄒᆡᄉᆞ', 'ᄅᆞᄉᆞ#ᄋᆞᆫᄒᆡᄒᆞ·'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梵網經菩薩戒≫ 順讀口訣 資料에서는 複合吐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물론 후대의 구결 자료에도 복합토들이 사용되었지만[24] 후대의 복합토와는 차이를 보인다. 즉 그 시대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釋讀口訣에서 순독구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올 수 있는 복합토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5. 結 語

大德丙午(1306년)의 간기를 가지고 있는 嚴仁燮本과 국립도서관本, 한국정신문화연구원本 등은 14세기 順讀口訣의 모습을 보여주는 訓民正音 創製 이전의 자료다.

---

24) 두 개 이상의 吐들이 결합된 吐들을 복합토 또는 '연첨구결'로 분류해 왔다. 초기 順讀口訣에 비해 순독구결은 후대로 오면서 단순화되었다. 그것은 正音이 창제되기 이전에는 구결문에 의해 그 의미 내용을 완전하게 해석하거나(번역하거나) 한문의 구문을 어느 정도까지 자세하게 우리말 구조로 이해한 것을 釋讀이나 順讀口訣로 나타냈지만 그 이후에는 諺解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므로 구결은 단순히 구두처에 마지막 吐를 현토하는 정도로 간략하게 된 것이다.

嚴仁燮本은 선본으로 1306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자료로 여기에 기입된 口訣도 그 당시 언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국립도서관本과 정문연本도 嚴仁燮本과 같은 판본이지만 간행시기는 嚴仁燮本보다는 조금 뒤진다. 엄인섭本에서는 43字의 구결자가 사용되었고, 국립도서관本에서는 41字, 정문연本에서는 50字의 口訣字가 사용되었다. 이들을 후대의 順讀口訣 자료들과 비교해 보면 口訣字形에서도 釋讀口訣에서 사용된 口訣字들이 그대로 많이 사용되었다.

이 중 국립도서관本의 口訣은 정문연本보다 嚴仁燮本의 구결과 비슷하여 같은 시기의 언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문연本의 경우는 이 두 가지 자료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정문연本에는 구결이 懸吐된 위치가 잘못된 곳이 눈에 띈다. 정문연本의 口訣吐도 다른 두 異本에 비해 차이를 보인다. 정문연本의 口訣吐가 嚴仁燮本과 국립도서관本에 비해서는 조금 후대의 언어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정문연本의 口訣 文字체계에서는 엄인섭과 국립도서관본에 비해 15세기 이후에 많이 사용된 口訣字形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세 異本에 사용된 文字體系의 비교를 통하여 口訣字形의 역사적 변천 과정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자료는 구결 文字體系에서 뿐만 아니라 口訣吐에서도 14세기 무렵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어형들이 많이 나타난다.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 사용된 주격의 'ㅣㅅ'는 지금까지 발굴된 口訣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吐다. '矣七ソ-(딧ᄒᆞ-)', '矣七ソ-(딧ᄒᆞ-)' 구문은 15세기 국어의 'ᄃᆞᆺᄒᆞ-' 구문의 선대형이다. 사역구문은 '-ㅊㅋ ソ-', '-ㅊㅣ ソ-', '-ㅊ ソ-' 등으로 나타난다. 중세국어 언해자료에서 두 예만 남아 있는 '-거 ᄒᆞ-' 구문과 직접적으로 대응될 수 있는 '-ㅊ ソ-' 구문이 고려말 순독구결에는 많이 사용되었다.

동명사 '-ㄱ(온)', '-ㄴ(올)' 구문이 생산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동명사 구문은 조사나 계사가 통합된 구성으로도 나타나지만, 조사가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도 나타난다. 이런 동명사 구문은 두 가지 용법을 보인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동명사 구성이 문장의 한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ㅸ'와 'ㅅ'가 선어말어미 '-ᄃᆞ/드-'를 표기하는 데 사용하였다. 釋讀口訣 資料에서는 '-고-', '-거-', '-ᄂᆞ-' 등이 활발하게 사용됨에 비해 '-ᄃᆞ/드-'가 나타나지 않는다.

'ᄉᆞ西ㅣ', 'ᄉᆞ西ㅁ'와 'ᄉᆞᅀᅵ(ᄒᆞ여니)', 'ᄉᆞᄋᆞㅣ(ᄒᆞ야니)' 등을 통하여 변칙동사 'ᄒᆞ-'의 또 다른 어간형 'ᄒᆡ-'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이들 구결 자료에 口訣이 기입될 당시에는 'ᄒᆞ-'와 'ᄒᆡ-'가 공존하고 있었다.

조건의 어미로 '-ㅁᄀᆞ'과 'ᄉᆞᄋᆞᄀᆞ'의 '-ᄋᆞᄀᆞ'이 사용되었다. 또 원문의 '若'과 호응하는 吐로서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는 吐로 'ᄉᆞᄅᆞᅀᆞᆫᄀᆡ(홀여힌)'이 사용되었다. 정문연本에서는 'ᄉᆞᄀᆞᅀᆞᆫᄀᆡ(혼여힌)'으로 나타난다. 'ᄉᆞᄅᆞᅀᆞᆫᄀᆡ'과 'ᄉᆞᄀᆞᅀᆞᆫᄀᆡ'은 각각 동명사형 'ᄉᆞᄅᆞ'과 'ᄉᆞᄀᆞ'에 'ᅀᆞᆫ(亦中)'와 'ᄀᆡ'이 통합된 구조체이다.

'ᄒᆞᆫ'가 이 자료에서는 부사형어미 또는 부사화 접사로 사용되었다. 'ᄒᆞᆫ'가 부사화 접사로 사용되는 것은 釋讀口訣의 전통이었다.

15세기의 집단곡용처럼 명사구를 나열할 때는 마지막 명사구에까지 '-ᅀᆞ'나 'ㅣᅀᅩᄀᆞ'가 현토되어 있으며, 동사구에는 'ᄀᆞᆮᄀᆞ(커나)'가 현토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자료에는 釋讀口訣에서 순독구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나올 수 있는 複合吐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參 考 文 獻

高正儀(1992), <大明律直解의 吏讀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金斗燦(1987ㄱ), <高麗版 南明集의 口訣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金斗燦(1987ㄴ), <直指心體要節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6.

金斗燦(1989), <佛說四十二章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 18.

김영만(1986), <舊譯仁王經의 釋讀表記 小考(1)>, ≪國語學新硏究≫, 탑출판사.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金完鎭(1983), <特異한 音讀字및 訓讀字에 대한 硏究>, ≪東洋學≫ 15.

南權熙(1994), <고려본 大方廣佛華嚴經疏 卷35의 書誌學的 고찰>, 1994년도 口訣硏究會 여름공동연구발표회, 구두발표.

南豊鉉(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東洋學 15.

南豊鉉(1986), <舊譯仁王經의 口訣에 대하여>, ≪國語學新硏究≫, 탑출판사.

南豊鉉(1987), <중세국어의 과거시제어미 '-드-'에 대하여>, 국어학 16.

南豊鉉(1990), <高麗末 朝鮮初期의 口訣硏究>, 震檀學報 69.

南豊鉉(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동방학지 제81집.

南豊鉉·沈在箕(1976), <舊譯仁王經의 口訣硏究(其一)>, 東洋學 6.

柳鐸一(1977), <鮮初文獻에 쓰여진 佛家口訣>, 김종우박사화갑기념논문집.

朴喜淑(1976), <佛典의 口訣에 대하여>, 김형규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朴喜淑(1978), <南明泉和尙頌證道歌에 보이는 口訣>, 관동대 논문집 7.

서울대학교 대학원 國語硏究會編(1993),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安秉禧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 지성사.

서재극(1984), <'느지르샷다'의 구성>, 목천유창균박사 환갑기념논문집.

서종학(1991), <吏讀의 文法形態 表記에 관한 歷史的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沈在箕(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美術資料 18.

沈在箕(1976), <長谷寺法華經의 口訣>, 美術資料 19.
심재열(1979), ≪梵網經≫, 보성문화사.
安秉禧(1976), <口訣과 漢文訓讀에 대하여>, 震檀學報 41.
安秉禧(1977), ≪中世國語口訣의 硏究≫, 一志社.
安秉禧(1987), <均如의 方言本 著述에 대하여>, ≪國語學≫ 16.
安秉禧(1992), ≪國語史 硏究≫, 문학과 지성사.
오창명(1995), <朝鮮時代 吏讀의 國語史的 硏究>,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李基文(1972),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李丞宰(1990), <高麗本 法網經의 口訣>, 애산학보 9.
李丞宰(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ㅏㅁ'에 대하여>,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선생회갑기념논총, 민음사.
李丞宰(1992), ≪高麗時代의 吏讀≫, 국어학총서 17, 태학사.
李丞宰(1993), <麗末鮮初의 口訣資料>, ≪國語史資料와 國語學의 硏究≫, 문학과 지성사.
李丞宰(1995), <動名詞 語尾의 歷史的 變化>,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李賢熙(1995ㄱ), <國語 文法史 記述의 連續性과 관련된 한두 問題>, 유인물.
李賢熙(1995ㄴ), <'-ㅿ'와 '-沙'>, ≪韓日語學論叢≫, 국학자료원.
鄭在永(1993), <中世國語 依存名詞 'ᄃᆞ'의 語尾化에 대한 硏究>, 한국 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鄭在永(1995ㄱ), <前期中世國語의 疑問法>, ≪國語學≫ 25.
鄭在永(1995ㄴ),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허흥식(1993), ≪高麗佛敎史硏究≫, 일조각.
허흥식(1995), <蒙山德異와 曹溪宗 法統과의 관계>, ≪國語史와 借字表記≫, 태학사.

# 【부록】

## ≪梵網經寶薩戒≫

### 嚴仁燮本 / 國立圖書館本 / 韓國精神文化研究院本

1. 왼쪽토는 { }로 묶고, 불확실한 토는 (?)로 표시한다.

2. 엄인섭본을 기준으로 하여 / 뒤에는 국립도서관본, // 뒤에는 정신문화연구원본의 토를 표시한다. 같은 토일 때는 / 뒤에 적지 않는다. /0, //0 등은 국립도서관본과 정신문화연구원본에는 대응되는 토가 없음을 뜻한다. 吐가 완전히 같을 때에는 / 이하를 기록하지 않는다. 편의상 장차 표시는 嚴仁燮本으로 표시한다.

3. 접히는 부분에 여백이 없을 때 좌측에 토를 단 경우는 좌측토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4. 토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잘못 달린 것은 수정하였다. 이런 오류는 정신문화연구원본에서 비교적 많이 보인다.

5. 본문의 해석은 口訣文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역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직역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역도 하였다. 이 해석은 잠정적인 것으로 직역을 한 경우도 꼭 吐와 해석 부분이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질정을 바란다.

#### 梵網經菩薩戒序

諸佛子等ㄱ 合掌ㅅ3//0 至心0/0/… 聽ㅅㅅ 我今3 欲說諸佛大戒序ノチㅅ<梵網1a>

衆集默然聽ㅅ3 自知有罪ㅅ3斤 當懺悔ノチヒ 懺悔ㅅかㄱ//ㅅア 卽安樂ㅅチ今ヒ人//ㅅチオヒ人 不懺悔ㅅかㄱ//ㅅア 罪益深ㅅチㅅ

無罪者ㄱ 默然ノチヒ 默然故… 當知0/0/ㅅ・衆淸淨ノチㅅ/0/ノチㅅ

<梵網1a>

諸大德0/0/ㅅㄱ優婆塞優婆夷等ㄱ 諦聽ㅅㅅ<梵網1a>

佛滅度後0/0/…於像法中3ㄱ/0/3ㄱ 應當尊敬0/0/ㅅ3波羅提木叉ノチヒ

波羅提木叉者ㄱ/0/ㄱ 卽是此戒ㄲㅅ/0/ㄲㅂㅅ<梵網1a>

持此戒時ㅈㄱ 如暗ㄲ//ㅈ 遇明ㅅㅁ 如貧ㄲ//ㅅ 得寶ㅅㅁ 如病ㄲ/0/ㅅ 得差ㅅㅁ/0/ㅅㅁ 如囚繫ㄲ/0/ㅅ 出獄ㅅㅁ 如遠行者ㄲ//ㅅ 得歸ㅅㅂㅅ/0/ㅅㅂㅅ 當知ㅅㅊㅅ/(ㅁㅊㅅ)/ㅅㅊㅅ<梵網1b>

此則0/0/ㄱ是衆等ㅋ 大師ㄲㄱㅅㅜ//ㄲㄱㅎㅜ 若佛ㄲ 住世ㅅㅅㄲ//ㅅㅅㄲ 無異此也ㄲㅂㅅ<梵網1b>

怖心ㄱ 難生ㄲㅁ 善心ㄱ//ㅅ 難發ㄲㅂㅅ 故… 經0/ㅈ/0 云ㅅㅅㅁ 勿輕小罪ㅅㅈ 以爲無殃ㄲㅅㅅㅅ<梵網1b>

水滴ㄲ 雖微ㅅㅀ 漸盈大器ㅅㅂㅂㅅ 刹那ㅈ 造罪ㅁ 殃墮無間ㅅㅂㅂ 一失人身ㅅㅁㄱ//ㅅㅜ 萬劫ㅈㄲ 不復ㅅㅂㅂㅅ<梵網1b>

壯色ㄲ 不停ㅅㅈㄱㅊ//ㅅㅈㄱㅈ 猶如奔馬ㅅㅁ 人命ㄲ 無常ㄲㅈㄱㅊ//ㄲㅈㄱㅈ<梵網1b> 過於山水ㅅㅂㅅ 今日0/0/ㅈ 雖存ㅅㅀ 明亦難保ㄲㅂㅅ//ㅅㅂㅅ<梵網1b-2a>

衆等ㄱ 各各0/0/ㅅ一心… 勤修精進ㅅㅈ 愼勿懈怠0/0/ㅅㅁ懶墮ㅅㅈ 睡眠縱意ㄲㅇㅣ//ㅇㅣ<梵網2a>

夜卽攝心ㅅㅈ 存念三寶ㄲㅇㄱㄱ//ㅇㄱㄱ 莫以空過ㅅㅈ/ㅅ/ㅅㅈ 徒設疲勞ㄲㅇㅣ//ㅇㅣ 後代ㅈㄱ 深悔ㅅㅊㅅ<梵網2a>

衆等ㄱ 各各0/0/ㅅ一心… 謹依此戒ㅅㅈ 如法修行ㅅㅈ 應當學ㄲㅇㅣ//ㅅㅇㅣ<梵網2a>

##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卷下

後秦龜玆國三藏鳩摩羅什 譯

### 序 分

尒時0/ㅈ/ㄲ 盧舍那佛ㄲ 爲此大衆ㅅㅈ 略開百千恒河沙不可說法門中ㅈㅌ心地0/0/ㄴ如毛頭許ㅅㅂㄴㅅㄷㅂ/ㅅㅂㅅㄷㅂ/ <梵網2b>

[그 때 노사나불이 대중을 위하여 백천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불가설 법문 중에 있는 심지를 털끝만한 것을(털끝만큼) 조금만 열어 보이시니]

是0/0/ㄱ過去0/0/ㄱ一切佛ㅣ 已說ㅅㄱ//(?ㅅㅅ) 未來佛ㅣ 當說ㅅㄱ 現在佛ㅣ 今說ㅅㄱ/ㅅㄱㅂㅂㅿ/ㅅㄱ 三世菩薩ㅣ//ㅅ 已學ㅅ//(?ㅅㅅ) 當學ㅅ//ㅅㅂ丶 今學ㅅㅂㄴㅿ//(ㅅ?) <梵網2b>

[이는 과거에 일체불이 이미 말씀하셨으며, 미래불이 마땅히 말씀하실 것이며, 현재불이 지금 설법하시고 있다. 삼세의 보살도 이미 배웠고, 마땅히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운다.]

* 정문연본의 (?ㅅㅅ)에서 ㅅ의 표기는 필체가 다르다. 후대에 따로 기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我已百劫ㄴ 修行0/0/ㅅㄱ是心地ㅅㄱ ㅎ…//ㅅㅈㄱ ㅎ… 号0/0/{ㄴㅣ可}吾爲盧舍那ㅿㅅㅂㅂㅿ//ㅣㅿㅅㅂㅂ丶<梵網2b>

[내가 이미 백겁을 이 심지를 닦았기 때문에 나를 이름하여 노사나라 한다.]

汝諸佛ㄱ 轉我ㄹ//0 所說ㅅㄱ(梵網2b) 與一切衆生… 開心地道ㅅㅿ//ㅿㅅㅅㅂ<梵網3a>

[그대 제불들은 내가 말한 바를 전하여 모든 중생과 더불어 심지도를 열어라.]

時ㄱ 蓮華臺藏世界0/0/ㄱ 赫赫天光師子座上ㄱㄷ 盧舍那佛ㅣ 放光ㅅ全光告千花上佛ㅅ全ㅁ 持我ㄹ 心地法門品0/0/ㅅㄱ 而去ㅅㄱ//0 復轉0/0/ㅅㄱ爲千百億釋迦ㅅ/ㅏ/ㅅ 及一切衆生ㅅㄱ 次第… 說我ㄹ 上七/0/0 心地法門品ㅅㄱ 汝等ㄱ 受持讀誦ㅅㄱ 一心0/0/… 而行ㅣ令ㅣ//令ㅣ<梵網3a>

[그 때 연화대장세계 혁혁천광사자좌 자리에 앉아 있는 노사나불이 빛을 발하시어 그 빛으로 천화상불(천 송이 꽃 위에 있는 부처들)께 말씀하시되, 내가 심지법문품을 가지고 가서 천백억 석가와 일체 중생을 위하여 다시 전하고, 차례로 내가 상권에서 심지법문품을 설명했으니, 너희들은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尒時0/ㄱ/ㄱ 千花上佛ㅅ/ㅏ/ㅅ 千百億釋迦ㅅㅣ/ㅏ/ㅅㅣ 從蓮花藏世界0/0/ㅈㄱ赫赫師子座… 起ㅅㄱ 各各0/0/ㅅ辭退ㅅㄱ/0/ㅅㄱ 擧身{ㅅㄱ}ㅅ?/0/ㅅㅎㅎ(梵網3a) 放不可思議光ㅅㄱㅂ 光ㄱ 皆化無量佛ㅅㄱ

[그 때 천화상불과 천백억 석가께서 연화장세계 혁혁사자좌로부터 일어나 각각 물러나는데 몸을 움직이면 불가사의한 빛을 발하시니, 그 빛 때문에 다 무량불로 변하였다.]

一時ㅋ 以無量青黃赤白花… 供養盧舍那佛ㅅㄷㅁ//ㅅㄷㅂ 受持0/0/(?ㅅㅅ)上說心地法門品竟ㅅ全ㅅㄱ(梵網3b) 各各0/0/ㅅ 從此蓮花藏世界… 而沒ㅅ全ㄱ/ㅅ全/ㅅ全ㄱ 沒0/ㅅㅋㅂ/0 已ㅅㅋㄱ/0/ㅅㅋㄱ(ㅅㄱ) 入體性0/0/ㅅ 虛空花0/0/ㅱ 光三昧ㅅㅋ 還本源世界0/0/ㅈ 閻浮提菩提樹下ㅅㅋ<梵網3b>

[일시에, 셀 수 없이 많은 푸른 꽃, 노란 꽃, 붉은 꽃, 흰 꽃 등으로 노사나불께 공양드리시고, 상권에서 이미 말씀하신 심지법문품을 받아 지녀서 각각 연화장세계로부터 몸을 숨기신 채로 체성허공화광삼매에 들어가 본원세계로부터 염부제 보리수 아래로 돌아왔다.]

從體性0/0/ㅅㅋ虛空華光三昧… 出ㅅㅋ 出已ㅅㅋ//0 方坐0/0/ㅅㅋ 金剛千光0/0/ㅅㅋ 王0/0/ㅅ 座及妙光堂ㅅ全 說十世界海ㅅㄷㅁ<梵網3-4a>

[체성허공화광삼매로부터 나왔고 나와서는 금강천광왕좌와 묘광당에 단정히 앉아 십세계해를 설법하시고]

復從座起ㅅ全/0/ㅅ全 至帝釋宮ㅅㅋ 說十住ㅅㄷㅁ<梵網4a>

[다시 자리로부터 일어나시어 제석천궁에 이르러서는 십주법을 말씀하시며]

復從座起ㅅ全/0/ㅅ全 至炎天中ㅅㅋ/0/ㅅㅋ 說十行ㅅㄷㅁ/0/ㅅㄷㅁ
<梵網4a>

[또 자리에서 일어나 제3염천에 이르러 십행을 말씀하시며]

復從座起ㅅ全/0/ㅅ全 至第四天中ㅅㅋ/0/ㅅㅋ 說十廻向ㅅㄷㅁ/0/ㅅㄷㅁ
<梵網4a>

[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4천에 이르러서는 십회향을 말씀하시고]

復從座起ㅅ全/0/ㅅ全 至化樂天ㅅㅋ/0/ㅅㅋ 說十禪定ㅅㄷㅁ/0/ㅅㄷㅁ
<梵網4a>

[또 자리에서 일어나 화락천에 이르러서는 십선정을 설법하시고]

復從座起ㅅ全/0/ㅅ全 至他化天ㅅㅋ/0/ㅅㅋ 說十地ㅅㄷㅁ/0/ㅅㄷㅁ
<梵網4a>

[또 자리에서 일어나 타화천에 이르러서는 십지를 설법하시고]

復至一禪中ㅅㅣ/0/ㅅ全 說十金剛ㅅㄱㅁㅗ/0/ㅅㄱㅁㅗ <梵網4a>

[또 일선천에 이르러 십금강을 설법하시고]

復至二禪中ㅅㅣ/0/ㅅ全 說十忍ㅅㄱㅁㅗ/0/ㅅㄱㅁㅗ <梵網4a>

[또 이선천에 이르러 십인을 말씀하시고]

復至三禪中ㅅㅣ/0/ㅅ全 說十願ㅅㄱㅁㅗ/0/ㅅㄱㅁㅗ <梵網4a>

[또 삼선천에 이르러 십원을 말씀하시고]

復至四禪中0/0/ㅅㅣ 摩醯首羅天王宮ㅅ全//ㅅㅣ 說我本源0/0/ㅅ舍 蓮花藏世界0/0/曳七 盧舍那佛0/0/ㅅ 所說心地法門品ㅅㄱㅁㅌ<梵網4b>

[또 사선천에 있는 마혜수라천왕궁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본원인, 연화장세계에 있는 노사나불이 말한 바 심지법문품을 설법하시니.]

其餘千百億釋迦ㅐ//又 亦復如是ㅅㅣㅅㄱ/ㅅㅣ斤/ㅅㅌ 無二0/0/ㅅ分無別ㅅㅌ 如賢劫品中ㅣ說ㅈㅣ<梵網4b>

[그 나머지 천백억의 석가도 또한 이와 같다면(같으니) 둘이 아니고 다름이 없으니 현겁품에서 말한 바와 같다.]

尒時0/ㅣ/ㅣ 釋迦牟尼佛ㅐ 從初現蓮花藏世界0/0/ㅅㅣ東方… 來ㅅㅣ//0入天王宮中ㅅㅣ 說魔受化經已ㅅㄱㅁㅗ<梵網4b>

[그 때 석가모니불이 (자신이) 처음 나타난 연화장세계로부터 동방으로 와서 천왕궁 안에 들어가 마수화경(마귀를 항복시켜 교화하는 경)을 설법하셨다.(설법을 마치시고)]

下生南閻浮提迦夷羅國ㅅㄱㅁㅌ 母名ㄱ 摩耶ㅐㅕ/ㅕ/ㅐㅕ 父字ㄱ 白淨ㅐㅕ/ㅕ/ㅐㅕ 吾名0/ㄱ/ 悉達ㅐㅅ//ㅐㅅㅅㄱㅁㅌ<梵網4-5a>

[남염부제 가비라국에 내려와 태어나시니, 어머니 이름은 마야고 아버지는 백정(정반)이며 자기 이름은 실달이다.]

七歲ㅅ/ㅐㅅ/ㅅ西 出家ㅅㅣ 三十ㅐㅅ//ㅐㅅ西 成道ㅅ西ㅌ 号0/0/ㄴ吾爲釋迦牟尼佛ㅐㅅㅅㅣㅅㅌㅌㅅ/ㅅㅅㅌㅌㅅ/ㅐㅅㅅㅌㅌ·<梵網5a>

[칠세가 되어 출가하고 삼십세가 되어서 성도하니, 나를 부르기를(이름하

여) 석가모니불이라고 한다.]

於寂滅道場ゝ 坐金剛花光王座0/0/ンゝ乃至摩醯首羅天王宮ンゝ 其中ゝ /0/ゝ 次第… 十住處0/0/又所說ㄐヒㅅ<梵網5a>

[적멸도량에서 금강화광왕좌의 자리에서 마혜수라천왕궁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서, 차례로 열 군데 머무르시는 곳(십주처)에서 말한 바이다.]

時ゝ 佛ㄐ//ㅅ 觀諸大梵天王ヲ 網羅幢ンニロ<梵網5a>

[때에 부처께서 모든 대범천왕의 망라당을 살피시고]

因爲說無量世界ㄐ/0/ッ 猶如網孔ンゝ 一一世界ㄐ 各各0/0/ㅅ不同ンゝ 別異無量ンヒ 佛教門{カ}ㄐ/ㄐ/ 亦復如是ンヒㅅ<梵網5a>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무량세계가 구슬그물 구멍과 같아서 하나하나의 세계가 각각 같지 아니하여 구분되고 다름이 한량 없으니 부처의 교문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吾今ゝ//ッ 來0/0/ンゝ此世界ンゝ/0/(?ゝㄱ) 八千返し 爲此娑婆世界ンゝ <梵網5a> 坐金剛華光王座0/0/ンゝ乃至摩醯首羅天王宮ンゝ 爲是中ゝ 一切大衆ンゝ 略開心地法門品竟ロ<梵網5ab>

[내가 이제 이 세계에 팔천 번이나 거듭 와서 이 사바세계를 위하여 금강화광왕좌에서부터 마혜수라왕궁에 이르기까지, 이 가운데에서 모든 대중을 위하여 심지법문품을 간략하게 열어 보였고]

復從天王宮… 下至閻浮提菩提樹下ンゝ 爲此地上ゝ 一切衆生凡夫0/0/ㅅ癡闇之人ンゝ 說我ヲ//0 本盧舍那佛ヒ/0/ヒ 心地中0/0/ッ 初發心中ゝヒ 常所誦一戒ㄐ//ㄐ(,ンカ) 光明0/0/ㅅ 金剛寶戒しン西ヒ/ン西ヒ/ <梵網5b>

[다시 천왕궁으로부터 염부제 보리수 아래로 내려와서 지상의 일체 중생과 범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본불이신 노사나불의 심지 가운데, 처음 발심할 때에 항상 외운 바 일계, 광명금강보계를 설법했으니]

是0/ㄐ/ㄱ 一切佛ヒ 本源ㄐカ 一切菩薩ヒ 本源ㄐカ 佛性種子ㄐヒㅅ <梵網5b>

[이것은 일체불의 본원이며 일체 보살의 본원이며 불성의 종자이다.]

一切衆生ㄐ 皆有佛性ンヒ 一切意識0/0/ㅅ色心0/0/ッ是情0/0/カ是心ㄐ 皆

入佛性戒中ㅅ衤ㅌ//ㅅㅌㅅ<梵網6a>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으니, 일체 의식과 색심, 이 정(생각)과 이 마음이(도) 모두 불성계 안에 들어 있다.]

當當常有0/0/ㅅㄱ 因故ᅟᅟᅟ 有0/0/ㅅᄀ 當當常住0/0/ㅅㄱ 法身ㅅㅌㅅ

<梵網6a>

[마땅히 항상 인(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불성)이 있으므로 항상 머무르는 법신이 있는 것이다.]

如是十波羅提木叉ㅣ 出於世界ㅅㅌ 是法戒ㄱ 是三世一切衆生ㅋ 頂戴受持ㅣㅌ//ㅌ<梵網6a>

[이와 같이 열가지 바라제목차가 세계에 나타나니 이 법계는 삼세의 모든 중생이 이고 받들어 행할 바이다.]

吾今ㅈ 當爲此大衆ㅅㅈ 重說十無盡藏戒品ㅅㅈㅌ 是0/0/ㄱ 一切衆生0/0/ㅅ 戒本源ㅣㅌ//ㅣᄀㄱ 自性ㅣ//0 淸淨ㅅㅌㅅ<梵網6a>

[내가 이제 이 대중을 위하여 열가지 무진장계품을 거듭 말했는데, 이는 일체 중생의 계로서 본원이며 자성(스스로의 본질)은 청정한 것이다.]

我今盧舍那ㅣ 方坐蓮花臺ㅅㅈ//ㅅ舍

[내가 지금 노사나불이(로서) 연화대에 바르게 앉아]

周匝千花上ㅈ/0/ᄲ 復現千釋迦ㄴㅅ//(?ㅅㅅ)<梵網6b>

[둘러싼 천 꽃 위에 다시 일천 석가로 나타났다.]

一花ㅈ 百億國ㅣㅌ 一國ㅈ 一釋迦ㅣㅌㅅ//ㅌ·<梵網6b>

[한 꽃에 백억 나라이니 한 나라에 한 석가다.]

各坐菩提樹ㅅㅈ 一時ㅈ//0 成佛道ㅅㅌ 如是千百億ㅣㅌㅅ//ㅣㅌ

<梵網6b>

[각각 보리수 밑에 앉아서 일시에 불도를 이루었으니 이와 같이 천백억이다.]

盧舍那ㅣ 本身ㅣㅌ/{ㅅ}ㅣㅌ/ㅣㅌ 千百億釋迦ㅣ 各接微塵衆ㅅㅈ 俱來至我所ㅅㅈ聽我ㅋ 誦佛戒ㅅㅌ 甘露門0/0/ㅣ 則開ㅣ/0/ㅣ<梵網6b>

[노사나가 본래 몸인데, 천백억 석가가 각각 미진수 중생을 접하며, 내 처소에 (도) 갖추고 와서 나에게 불계를 외울 것을 청하니까 감로문이 곧 열렸다.]

是時ㅋ 千百億ㅂ 還至本道場ㅅㅋ 各坐菩提樹ㅅㅋ<梵網6b> 誦我ㅋ 本師戒ㅅㅌ 十重四十八ㅂㅌㅅ<梵網7a>

[이 때 천백억불이 본 도량에 돌아가서 각각 보리수에 앉아 나의 본사계를 외우는데, (이것이) 십중 사십팔경계다.]

戒如明日月ㅅㅋ 亦如瓔珞珠ㅅㅌㅅ/ㅅㅌ/ <梵網7a>

[계의 밝음은 일월과 같고 또한 영락 구슬과 같다.]

微塵菩薩衆ㅂ 由是… 成正覺ㅅㅌㅌㅅ<梵網7a>

[미진수 보살 대중은 이로 말미암아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是0/ㅂ/ㄱ 盧舍那誦ㅂㅌ 我亦如是誦ㅅㅈㅅ//ㅅㅈ・<梵網7a>

[이것이 노사나불이 외운 것이니 나도 이와 같이 외우고 있다.]

汝新學菩薩ㄱ 頂戴受持戒ㅅㅅ 受持是戒已ㅅㅋㅂ 轉授諸衆生ㅅㅅ <梵網7a>

[너희 새로 배우는 보살은 머리에 떠받들어 계를 지녀라. (그리고) 이 계를 받아 지녔으면 모든 중생들에게 전수하라.]

諦聽ㅅㅅ 我正誦0/0/ㄱ 佛法中戒藏0/0/ㅂㅌ 波羅提木叉ㅅㅊㅅ<梵網7a>

[자세히 들어라, 내가 불법중에 계율장인 바라제목차를 올바르게 외우겠다.]

大衆ㄱ 心諦信ㅅㅅ 汝是當成佛ㅂㅜ/ㅜ/ㅂㅜ 我是已成佛ㅂㅈㅅ//ㅂㅈ・ <梵網7a>

[대중은 마음으로 믿고 간직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장차 성불할 것이오 나는 이미 성불했다.]

常作如是信ㅅㅋㄱ//ㅅㅜ 戒品0/ㅂ/ 已具足ㅈㅣ<梵網7a>

[항상 이같이 믿으면 계품은 이미 갖추어 족하다.]

一切有心者ㄱ<梵網7a> 皆應攝佛戒ㅅㅊㅅ<梵網7b>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응당 불계에 해당될 것이다.]

衆生ㅂ 受佛戒ㅅㅋㄱ//ㅅㅜ 卽入諸佛位ㅅㅊㅅ<梵網7a>

[중생이 불계를 받으면 곧 부처의 지위에 들 것이다.]

位同大覺已ᄂᆞᆯ 眞是諸佛子ㅣᄒᆞᄉᆞ//ᄒᆞᄉᆞ<梵網7b>

[지위가 대각과 같아서 참된 불자인 것이다.]

大衆ㄱ 皆恭敬ᄂᆞᆯ 至心… 聽我誦ᄂᆞᄉᆞ<梵網7b>

[대중은 모두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가 외운 것을 들어라.]

尒時0/ᄀᆞᆯ/ 釋迦牟尼佛ㅣ 初坐菩提樹下ᄂᆞᄉᆞᆫ 成無上覺ᄂᆞᆯ 初結菩薩波羅提木叉ᄂᆞᄂᆞᄒᆞ 孝順父母師僧三寶ㅣᄒᆞᄉᆞ//ᄒᆞᄉᆞ<梵網7b>

[그 때 석가모니불이 처음으로 보리수 밑에 앉으시어 무상각을 이루었고, 보살의 바라제목차를 맺으시니 부모, 스승, 승려와 삼보에게 효순하는 것이다.]

孝順ㄱ 至道之法ㅣᄒᆞᄉᆞ/ㅣᄒᆞ/ 孝名爲戒ᄉᆞᄂᆞᆼ가//ㅣᄉᆞᄂᆞᆼ가 亦名制止ᄉᆞᄂᆞᆼᄋᆞᆫᄒᆞᄉᆞ<梵網7b>

[효순은 지도지법이다. 효를 이름하여 계라 하며 또는 제지라 하는 것이다.]

佛ㅣ 卽口ᄀᆞᆯ 放無量光明ᄂᆞᄂᆞᄒᆞ 是時ᄀᆞᆯ//0 百萬億大衆諸菩薩十八梵天六欲天子十六大國王ㅣ 合掌ᄂᆞᆯ 至心… 聽佛ㅣ 誦一切佛ᄒᆞ 大乘戒ᄂᆞᄂᆞᆼᄋᆞᆫㄱ ᄉᆞᆫᄂᆞᄒᆞᄉᆞ/ᄂᆞᄂᆞᆼᄋᆞᆫㄱ ᄒᆞᄂᆞᄒᆞᄉᆞ/ᄂᆞᄂᆞᆼᄋᆞᆫㄱ ᄉᆞᆫᄂᆞᄉᆞᄉᆞ<梵網8a>

[부처가 입에서 무량한 광명을 발하시는데, 이 때 백만억의 대중, 모든 보살, 십팔범천, 육욕천자와 십륙 대국의 왕들이 합장하여 지심으로(마음을 다하여), 부처가 일체불의 대승계를 외우시는 것을 듣더라.]

佛ㅣ 告諸菩薩ᄂᆞᆯ 言ᄂᆞᆺᄆᆞᆷ 我今半月半月ᄀᆞᆯ 自誦諸佛法戒ᄂᆞᄂᆞᆼᄒᆞ

<梵網8a>

[부처가 모든 보살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지금 반달 반달마다 스스로 모든 불법계를 외우는 것이니]

汝等一切發心菩薩ㅣ 亦誦ᄂᆞᆼ가 乃至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諸菩薩ㅣ 亦誦ᄂᆞᄒᆞᄒᆞᄉᆞ//ᄂᆞᄒᆞᄒᆞ<梵網8a>

[너희들 일체 발심보살도 외우고, 십발취 십장양 십금강과 십지 등의 모든

보살들도 또한 외워야 되는 것이니(다.)]

是故… 戒光ㄲ 從口0/…/ (梵網8a) 出ㅅㅌㅌ//ㅅㅌㅌ・ 有緣ㄲㅅ//ㅅ 非無因ㄲㅌㅅ//ㅅ<梵網8b>

[이런 까닭으로 계의 광명이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연이 있어서 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

故… 光光ㄲ 非青黃赤白黑ㄲㅿ 非色ㄲㅿ/ㅿ/ㄲㅿ 非心ㄲㅿ/ㅿ/0 非有ㄲㅿ/ㅿ/0非無ㄲㅿ/ㅿ/0 非因果法ㄲㅌㅅ<梵網8b>

[이런 까닭으로 빛과 빛이 푸르고 누렇고 붉고 희고 검지 않으며, 물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인과법도 아닌 것이다.]

是諸佛之本源ㄲㅿ 菩薩之根本ㄲㅿ 是大衆諸佛之根本ㄲㅌㅅ<梵網8b>

[이것이 제불의 본원이고 보살의 근본이며 이 모든 대승불자들의 근본이다.]

是故… 大衆諸佛子ㄱ 應受持ㅅㅿ 應讀誦0/0/ㅅㅊㅅ善學ㅅㅊㅅ//0

<梵網8b>

[이런 까닭으로 대중과 불자들은 마땅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잘 배워야 할 것이다.]

佛子ㅋ 諦聽ㅅㅅ 若受佛戒者ㄱ大ㅌㄱ/ㄱ大ㄱ/ㄲㄱ大ㄱ 國王王子百官宰相比丘比丘尼十八梵天六欲天子庶民黃門(梵網8b)婬男婬女奴婢八部鬼神金剛神畜生乃至變化人ㅅㅊ 但解法師語ㅅㄴㄱ 盡受得戒ㅅㅊㅌ 皆名第一淸淨者ㅅㅅㅊㅅ<梵網9a>

[불자들아 자세히 들어라. 만일 불계를 받으려고 하면 국왕 왕자 백관 재상 비구 비구니 십팔범천 육욕천자 서민 황문 음남 음녀 노비 팔부 귀신 금강신 축생 또는 변화인 등이 단지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계를 능히 받을 수 있다. 이름을 제일청정이라고 하겠다.]

## 十重戒

### 序

佛ㅐ 告諸佛子ᄉᆞᄋᆞ 言ᄉᆞᄉᆞᆷ 有十重波羅提木叉ᄉᆞᄒᆞ 若受菩薩戒ᄉᆞᅔ 不誦此戒者ㅐㄱ大ㄱ/ㄱ/ㄱ大ㄱ 非菩薩ㅐᄀᆞ/ᄀᆞ/ㅐᄀᆞ 非佛種子ㅐᄉᆞㅣ/ㅐᄒᆞᄉᆞ/ㅐ(ᄋᆞ)ㅣ<梵網9a>

[부처가 모든 불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열가지 무거운 바라제목차가 있는데 만일 보살계를 받은 사람이 이 계를 외우지 못한다면 보살이 아니고 불종자가 아니다.]

我亦如是誦ᄉᆞᄋᆞᄉᆞ//ᄉᆞᄋᆞ·<梵網9a>

[나도 역시 이와 같이 외운다.]

一切菩薩ㅐ 已學ᄉᆞᄀᆞ 一切菩薩ㅐ 當學ᄉᆞᄀᆞ 一切菩薩ㅐ//0 今學ᄉᆞᄒᆞᄒᆞᄉᆞ//ᄉᆞᄒᆞᄒᆞ·<梵網9a>

[모든 보살이 이미 배웠고, 일체보살이 마땅히 배울 것이며, 지금도 배우고 있다.]

已ㅐ/0/0略說菩薩波羅提木叉(梵網9a)相貌ᄉᆞᄋᆞᄒᆞ 是事{ㄴ}ㄱ// 應當學{ᄉᆞᄋᆞ}ㅐᄒᆞᅔㄱ//ㅐᅔᅔㄱ 敬心奉持ㅐᄉᆞㅣ/ᄉᆞㅣ/ <梵網9b>

[이미 보살의 바라제목차의 모습(계상)을 간략히 말했으니 이 일은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이니(이 일을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닐 것이다.]

### 제1중계

佛0/0/ㅐ 言ᄉᆞᄉᆞᆷ 佛子ㅐㄱ大ㄱ/ㄱ/ㅐㄱ大ㄱ 若自殺ᄉᆞᆫ乃 敎人殺ᄉᆞᆫ乃 方便… 讚歎殺ᄉᆞᆫ乃 見作隨喜ᄉᆞᆫ乃 乃至呪殺ㄴᄉᆞᆫ乃/ᄉᆞᆫ乃/ㄴᄉᆞᆫ乃 殺因殺緣殺法殺業ㅐᄉᆞᄒᆞᄑ 乃至一切有命者ᄉᆞㄱ 不得故殺ㅐᄉᆞㅣ//ㅐᄋᆞㅣ<梵網9b>

[부처가 말씀하시되, 불자라고 하면서 만일 스스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방편으로 찬탄하여(찬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이거나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거나 또는 주살을 하거나, 살생의 인과 연과

법과 업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하지만 혹 모든 생명 있는 것에 대해서 고의로 죽여서는 안된다.]

是菩薩ㄱ 應起常住慈悲心孝順心ンミ 方便… 救護一切衆生ノチ今ヒし/ノチ今ヒ/ 而自恣心快意ンミ 殺生者ㄱ 是菩薩七/0/0波羅夷罪ヘ/リヘ/ヘ<梵網9b>

[보살은 마땅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을 일으켜서 방편으로 모든 중생들을 구하고 보호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자기 마음대로 거침없이 살생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2중계

若佛子リㄱ大ㄱ/ㄱ大ㄱ/0 自盜ンカ 敎人盜ンカ 方便0/0/…盜ンカ 盜因盜緣盜法盜業しンカ 呪盜しノチ今ヒ卩/しンミチ今ヒ卩/しノチ今ヒ卩 乃至鬼神有主劫賊物一切財物ヘㄱ 一針一草リヘカ 不得故盜リ今ㅣ/今ㅣ/リ今ㅣ<梵網10a>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도적질하고 남을 시켜 도적질하고 방편으로 도적질하고 주문으로 도적질하여, 도적질하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을 삼겠는가? 혹 귀신이 주인인 물건과 도적당한 물건 뿐 아니라 모든 재물에 대해서는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일부러 훔치지 말아야 한다.]

而菩薩ㄱ 應生佛性孝順慈悲心ンミ 常助一切人ンミ 生福生樂ノチ今ヒし/ノチ今ヒ/ 而反更盜人ラ 財物者ㄱ 是菩薩波羅夷罪0/0/ヘ<梵網10a>

[보살은 마땅히 불성인 효순심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서 복을 베풀고 즐거움을 베풀어야지,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3중계

若佛子自飪ンカ 敎人婬リ今ヒ卩//{リ今ヒ卩}ンカ 乃至一切女人しヘㄱ(梵網10a) 不得故婬リ今ㅣ<梵網10b>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음란하며 남을 가르쳐서 음란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는) 모든 여인에게 고의로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婬因婬緣婬法婬業ㄴᆞᆫᄀᆞ 乃至畜生女ㅅ 諸天鬼神女ㅅ 及非道行婬ㅣᄉᆞᆷᄒᆞᄇᆞ<梵網10b>

[음인 음연 음법 음업을 하며 또는 축생의 암컷이나 제천과 귀신의 여인과 비도음행을 행하겠는가?]

而菩薩ㄱ//ㅣ 應生孝順心ᄉᆞᆼ 救度一切衆生ᄉᆞᆼ 淨法…//0 與人ㅣᄉᆞᆷᄒᆞ而反更起一切人0/ᄋᆞᆯ/0 婬ㄴᆞᆷ 不擇畜生乃至母女姉妹六親ᄉᆞᆼ 行婬ᄉᆞᆼ 無慈悲心者ㄱ 是菩薩0/0/ㄱ 波羅夷罪ㅅ/0/ㅅ<梵網10b>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청정한 법으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지, 도리어 온갖 사람에게 음란을 일으키되 축생과 모녀 자매 육친을 가리지 않고 음란을 행하고 자비심이 없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4중계

若佛子自妄語ᄉᆞᆫᄀᆞ 敎人妄語ᄉᆞᆫᄀᆞ 方便0/0/…妄語ᄉᆞᆫᄀᆞ(梵網10b) 妄語因妄語緣妄語法妄語業ㄴᆞᆫᄀᆞ 乃至不見ㄴ 言見ᄉᆞᆫᄀᆞ 見言ㄴ 不見ᄉᆞᆼ/(ᄉᆞᆫᄀᆞ)/ᄉᆞᆼ 身心妄語ㅣᄉᆞᆷᄒᆞᄇᆞ<梵網11a>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거짓말하고 남에게 거짓말하게 가르치고 방편으로 거짓말 하며, 거짓말하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을 하며, 또는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본 것을 안 보았다고 말하여 몸과 마음으로 거짓을 말한 것이겠는가?]

而菩薩ㄱ 常生正語正見ᄉᆞᆫᄀᆞ 亦生一切衆生ᄋᆞᆯ 正語正見ㅅᄌᆞᆷᄒᆞᄂᆞᆫ/ㅅᄌᆞᆷᄒᆞ/ㅅᄌᆞᄋᆞᄒᆞ 而反更起一切衆生ᄋᆞᆯ 邪語邪見邪業者ㄱ 是菩薩0/0/(?ㅣ) 波羅夷罪0/0/ㅅ<梵網11a>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펴고 또한 모든 중생이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펼 수 있도록 해야지, 도리어 모든 중생에게 정당하지 못한 말과 소견과 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5중계

若佛子自酤酒ㅅ가 敎人酤酒ㅅ가 酤酒因酤酒緣酤酒法酤酒業ㅣ수ㅎㅍ<梵網11a>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술을 팔고 남에게 술을 팔라고 가르치며, 술을 팔고 사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이 있겠는가?]

一切酒ㅅㄱ//ㆍㄱ 不得酤ㅣ수ㅣ 是酒ㄱ(梵網11a) 起罪因緣ㅣㅎㅅ<梵網11b>

[모든 술은(에 대해서는) 팔지 말아야 한다. 이 술은 죄를 짓게하는 인연이 된다.]

而菩薩ㄱ 應生一切衆生ㅋ 明達之慧ᄉㅎ/ㅣᄉㅎ/ㅅㅎㅇㅎ 而反更生一切衆生ㅋ 顚倒之心者ㄱ 是菩薩波羅夷罪0/0/ㅅ<梵網11b>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밝은 지혜가 생기도록 해야지 도리어 중생들에게 전도된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6중계

若佛子自說出家在家菩薩比丘比丘尼ㅋ/0/ㅋ 罪過ㄴㅅ가/ㅅ가/ 敎人說罪過ㄴㅅ가/ㅅ가/ 罪過因罪過緣罪過法罪過業ㅣ수ㅎㅍ//ㅣ수ㅎㅍ<梵網11b>

[만일 불자라면 출가 재가 보살과 비구 비구니의 허물을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 허물을 말하도록 가르치며, (또) 죄과의 인과 연과 법과 업이 있겠는가?]

而菩薩ㄱ 聞外道惡人果/ㅅ/ 及二乘惡人果ㅣ/ㅅㅣ/ (梵網11b) 說佛法中ㅈ/ㅈㄷ/ㅈ 非法非律ㅁ斤 常生悲心ㅅㅈ 敎化是惡人輩ㅅㅈ 令生大乘善信ㅅㅎㅇㅎㄴ/ㅅㅎㅇㅎ/ㅅㅎㅇㅎ 而菩薩ㅣ 反更自說佛法中罪過者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2a>

[보살은 외도 악인과 이승의 악인(소승의 악인)이 불법 중에 있는 비법 비율을 말하는 것을 듣거든 항상 자비심을 발하여 이 악인들을 교화시키며 대승의 좋은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보살이 도리어 불법 가운데 허물을 스스로 말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7중계

若佛子自讚毁他ㅅ가 亦教人ᄒᆞ//0 自讚毁他ㅅ가 毁他因毁他緣毁他法毁他業ㅣᄉᆞᆫᄃᆞ//ㅣᄋᆞᆨᄃᆞ<梵網12a>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을 헐뜯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칭찬하도록 하고 남을 헐뜯도록 가르치며, 남을 헐뜯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이 있겠는가?]

而菩薩ㄱ 應代一切衆生ㅅᄋᆞ 受加毁辱ㅅᄋᆞ 惡事ᄉᆞㄱ 自向已ㅁ玉/ㅁ/ 好事ᄉᆞㄱ(梵網12a) 與他人ㅅᄐᆞᆫᄉᆞᆫᄒᆡ/ㅅᄐᆞᆫᄉᆞᆫᄒᆡ/ㅅᄐᆞᄋᆞᆨᄂᆡ 若自揚己德ㅁ 隱他人ㅋ 好事ㅅᄋᆞ 令他人ᄒᆞ 受毁者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2b>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나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의 공덕을 스스로 높이고 남이 잘한 일은 감추어서 남으로 하여금 비방을 당하게 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8중계

若佛子自慳ㅅ가 教人慳ㅅ가 慳因慳緣慳法慳業ㅣᄉᆞᆫᄃᆞ//ㅣᄋᆞᆨᄃᆞ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아끼고 다른 사람도 아끼도록 가르치며, '아끼는 因'과 '慳緣' '慳法' '慳業'이 되겠는가?]

而菩薩ㄱ 見一切貧窮人ㅣ 來乞者ㅁ斤//(?ㅋ) 隨前人ㅋ//0 所須ㅅᄋᆞ 一切ㄴ 給與{ㅅᄐᆞᆫᄉᆞᆫᄒᆡ}ᄉᆞᆫᄉᆞ/ᄉᆞᆫᄉᆞᆫᄒᆡ/ᄉᆞᆫᄋᆞᆨᄂᆡ 而菩薩ㅣᄒᆞ//ㅣ 以惡心瞋心ᄒᆞ 乃至不施一錢一針一草ㅅ가 有求法者ㅿᄉᆞᆫㄱ(梵網12b) 不爲說一句一偈一微塵許法ㅿᄒᆡᄉᆞᆫᄒᆡ/ㅿᄒᆡ/ㅿᄒᆡᄋᆞᆨᄒᆡ 而反更罵辱者ㄱ/(?ᄉᆞㄱ)/ㄱ 是菩薩波羅夷罪<梵網13a>

[보살은 모든 빈궁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의 구하는 바를 좇아 일체를 다 공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살이 나쁜 마음과 성내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풀 한 포기라도 베풀지 아니하며,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한 구절 게송 하나 하나의 티끌만한 법이라도 설명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다시 욕하고 능멸하는 것은 보살

의 바라이죄다.]

제9중계

若佛子自瞋ンカ 敎人瞋ンカ 瞋因瞋緣瞋法瞋業リ今ヒ尸//リオヒ尸<梵網13a>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성내고 다른 사람을 성내도록 하며 성내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이 (불자에게) 있겠는가?]

而菩薩ㄱ 應生一切衆生中ミ/0/ミ 善根無諍之事ンミ 常生悲心ノチ今ヒレ/ノチ今ヒ/ノチオレ 而反更於一切衆生中ユ/リユ/ユ 乃至於非衆生中ユンヒ尸//ユ 以惡口… 罵辱ンカ 加以手打ンカ 及以刀杖レ…ロカ/…ロカ/ 意猶不息ンミ 前人リ 求悔ンミ善言… 懺謝ユ入ㄱ(梵網13a) 猶瞋不解者ㄱ 是菩薩波羅夷罪0/0/ユ<梵網13b>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들의 마음 속에 다투는 일이 없도록 좋은 마음 바탕을 발하게 하고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발해야지,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나 또는 중생이 아닌 것에게 나쁜 말로 욕하고, 손으로 때리고, 연장으로 때리고도 분한 생각이 그치지 않거나, 상대방이 참회하기를 구하여 좋은 말로 참회의 말을 하거든(할 경우에) 오히려 분노를 풀지 않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제10중계

若佛子自謗三寶ンカ 敎人謗三寶ンカ 謗因謗緣謗法謗業リ今ヒ尸//リオヒ尸<梵網13b>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삼보를 훼방하거나 남에게 삼보를 훼방하도록 가르치며, 훼방하는 인과 연과 법과 업이 있겠는가?]

而菩薩ㄱ 見外道ㅅ/ㅏ/ㅅ 及以惡人累リ/ㅅリ(?ㄱ)/ㅅリ 一言… 謗佛音聲ロ斤 如三百鉾… 刺心ノチヤㄱ 況口… 自謗ンミ 不生信心孝順心リセ月ユ/リセ入ユ/リセホユ<梵網13b>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단 한 마디라도 부처를 비방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들으면) 삼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을 것인데, 하물며 스스로 입으로 비방하고(비방하겠는가), (또) 신심과 효순심을 발하지 않겠는가?]

而反更助惡人邪見人ㅅ〻 謗者ㄱ 是菩薩波羅夷罪 <梵網13b>

[도리어 악인과 잘못된 소견을 가진 사람을 도와서 비방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다.]

### 십중계의 總結

善{ㄴ}/0/0 學{ㅅㄴ}/0/0 諸仁者(? )/ㅍ/ 是菩薩ㄴ/0/0十波羅提木叉ㅣㅂ//ㅂ 應當學ㅅ〻 於中〻 不應一一犯ㅅㅁ 如微塵許ㅅㅊㅜㄱ 何況具足犯十戒ㅣㄴㅅㅗ<梵網14a>

[잘 배우는 모든 어진 사람들아, 이것이 보살의 십바라제목차이니까, 마땅히 배워서, 그 가운데서 응당 하나라도 범하는 일이 티끌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찌 하물며 십계를 온전히 범하겠는가?]

若有犯者ㄱ 不得現身〻 發菩提心ㅅㅏ 亦失國王位0/0/ㅅㅏ轉輪王位ㅅㅏ亦失比丘比丘尼位ㅅㅏ 亦失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佛性常住妙果ㅅ〻 一切ㄴ 皆失ㅁ 墮三惡道中ㅅ〻//〻 二劫ㅗ 三劫ㅗㅅㄴㄴ/ㅗㅅㄴ/ㅗㅅㄴ 不聞父母三寶名字ㅅㅊㅂ 以是… 不應一一犯ㅣㅎㅣ//ㅣㅇㅣ<梵網14a>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몸으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고 또한 국왕위와 전륜왕위를 잃을 것이고 또한 비구와 비구니위를 잃을 것이고 또한 십발취 십장양 십금강 십지와 불성상주묘과를 잃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삼악도에 떨어져서 이 겁 삼 겁 동안을 부모와 삼보의 이름을 듣지 못할 것이니 (이런 이유 때문에) 마땅히 하나 하나라도 범하지 말아야 한다.]

汝等一切諸菩薩ㅣ 今學ㅅㅏ 當學ㅅㅏ 已學ㅅㅂㅂㅿ//ㅅㅂㅂ·

[너희들 모든 보살들이 지금 배우고 마땅히 배울 것이며 이미 배운 바이다.]

如是十戒ㄴ 應當學ㅅ〻 敬心奉持ㅅㅊㅂ//ㅅㅊㅿ 八萬威儀品〻ㅣ//ㅅ〻ㅣ 當光明{ㅅㅊㅿ}ㅅㅂㅿ// <梵網14b>

[이와 같은 십계를 마땅히 배워서 존경하는 마음으로(마음을 다하여) 받들어야 할 것이다. 팔만위의품에서도 자세히 밝혔다.]

## 四十八輕戒

### 序

佛ㅂ//0 告諸菩薩ㅅㄱ 言ㅅ全ㅁ 已說十波羅提木叉竟ㅅㄱㅌ 四十八輕ㄴ 今當說ㅅ千ㅅ<梵網14b>

[부처가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이미 십바라제목차를 설명했으니 지금부터는 마땅히 48경계를 말하겠다.]

1.

佛言ㅅ全ㅁ//0 佛子ㅂ 欲受國王位時ㅂ今乃/今乃/ㅇ乃 受轉輪王位時ㅂ今乃//ㅇ乃(梵網14b) 百官ㅂ 受位時ㅂ今乃ㅅㅌ今入ㄱ/今乃ㅅㅌ今入ㄱ/今乃ㅅㅌ ㅇ入ㄱ 應先受菩薩戒ㅅ千ㅌ<梵網15a>

[부처가 말씀하시되 불자가 국왕위를 받고자 할 때나 전륜왕위를 받고자 할 때나, 백관이 위를 받을 때에는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아야 될 것이니]

一切鬼神ㅂ 救護王身百官之身ㅅ가 諸佛ㅂ//0 歡喜ㅅㄷㅌㅌㅅ/ㅅㅌㅌㅅ/ㅅㅌㅌ·<梵網15a>

[모든 귀신이 왕의 몸과 백관의 몸을 구호하며, 여러 부처가 기뻐하신다.]

卽得戒已ㅅㄱ斤 生孝順心恭敬心ㅅㄱ 見上座和上阿闍梨大同學同見同行者ㅁ斤 應起承迎ㅅㄱ 禮拜問訊ㅅ千今ㅌㄴ/ㅅ千今ㅌ/ㅅ千ㅇㄴ<梵網15a>

[즉 이미 계를 받았으면 효순심과 공경심을 내어 상좌와 화상, 아사리, 대동학, 동견, 동행 등을 보거든 일어나서 마중하며 예배하고 문안 드리고 인사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而菩薩ㅂㅅ//ㅂ 反生憍心慢心癡心ㅅㄱ 不起ㅅㄱ 承迎禮拜ㅅ가 一一不如法供養ㅂ今ㅌㅍ//ㅂㅇㅌㅍ<梵網15a>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이나 거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생겨서 일

어나지도 않고 마중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으며 하나하나 법대로 공양하지도 않겠는가?] 以自賣身國城男女七寶百物ン ヽ 而供給之ノチヒ/(ㄱチヒ)/ノチヒ 若不尒者リ ㄱ 大 ㄱ/ㄱ/0 犯輕垢罪ンチ ヘ//0<梵網15a>

[스스로 몸을 팔든지 나라와 남녀와 칠보와 백가지 물건을 팔아 공급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

若佛子リ ㄱ 大 ㄱ/0/0 故飮酒ン ヽ 而生酒ラ 過失リ 無量リ ㅅヒ ㅂ//リオヒ ㅂ 若自身手… 過酒器ン ヽ 與人0/0/…飮酒者ㄱ 五百世し 無手ンヒヒ ヘ/ンチヒ/ 何況自飮リヒ入ㅗ<梵網15b>

[만일 불자라면 고의로 술을 마시겠는가? 술은 한량없는 허물을 만들어 내지 않는가? 만일 자기의 손으로 술 잔을 들어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은 오백 세 동안 손이 없어질 것인데, 어찌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는가?]

不得敎一切人… 飮リ ㅅ カ//リオカ 及一切衆生… 飮酒ノチヤㄱ 況自飮酒リヒ入ㅗ<梵網15b>

[모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거나 모든 중생들도 술을 마시게 해서는 안된텐데, 하물며 스스로 술을 마시겠는가?]

若故自飮ンカ 敎人…/0/… 飮者ㄱ 犯輕垢罪 <梵網15b>

[만일 고의로 스스로 술을 마시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도록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3.

若佛子故食肉リ ㅅヒ ㅂ//リ ㅅヒ ㅂ 一切肉しヘㄱ 不得食リ ㅅ ㅣ

[만일 불자라면 일부러(고의로) 고기를 먹겠는가? 모든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 후대 다른 이본들과 원문 차이

斷大慈悲性種子ンカ 一切衆生リ 見而捨去ンヒヒヘ//ンヒヒ・<梵網15b>

[(무릇 고기를 먹는 자는) 대자비의 불성종자를 끊는 것이어서 일체 중생이 보면 버리고 도망간다.]

是故…(梵網15b) 一切菩薩ㄱ 不得食一切衆生肉ㅣ令ㅣ//ㅣ오ㅣ 食肉ㄴ가ㄱ//ㄴㅇ得無量罪ㄴ치ㅂ 若故食者ㄱ 犯輕垢罪 <梵網16a>

[이런 까닭으로 모든 보살은 모름지기 모든 살아있는 것의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한다.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를 얻을 것인데, 만일 일부러 먹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

若佛子不得食五辛0/0/ㅣ오ㅣ 大蒜茖葱慈葱蘭葱興渠ㄴ치ㅂ//ㄴㅂㅂ 是五種ㄴㅅㄱ 一切食中ㅇ 不得食ㅣ令ㅣ//ㅣ오ㅣ 若故食者ㄱ 犯輕垢罪 <梵網16a>

[만일 불자라면 다섯 가지 매운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마늘 부추 파 달래 흥거라고 하는 것이니, 모든 음식 가운데 이 다섯 가지는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일부러 먹는 것은(먹으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5.

若佛子見一切衆生ㅋ(梵網16a) 犯八戒五戒十戒毁禁七逆八難一切犯戒罪ㄴㅁ斤//ㄴㅁ 應教懺悔ㄴ치ㅂ<梵網16b>

[만일 불자라면 일체 중생들이 팔계와 오계 십계 훼금 칠역 팔난 및 일체의 범계죄(계를 범한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보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니]

而菩薩ㅣ 不教懺悔ㅁ 共住ㅅㅇ 同僧利養ㄴ가 而共布薩ㅅㅇ 同一衆住ㅅㅇ 說戒ㅅ而ㅁ//ㄴㅁ 而不擧其罪ㅅㅇ 教悔過者ㄱ 犯輕垢罪 <梵網16b>

* 후대 다른 이본들과 원문 차이

[보살이 참회하도록 가르치지도 않고, 함께 머물면서 승려로서 이양을 받으며 함께 포살하고 동일한 무리들과 거하면서 계를 말하되(말할 때에), 그 죄를 들어내어 허물을 참회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6.

若佛子見大乘法師大乘同學同見同行ㅣ 來入僧坊舍宅城邑ㅅ西ㅁ/ㄴㅁ/若百里千里… 來者ㄴㅁ斤//ㅁ(梵網 16b) 卽起ㅅㅈ 迎來送去ㅅ가 禮拜供養ㄴㅊㅌ<梵網17a>

[만일 불자라면 대승법사와 대승동학 동견 동행 등이 승방과 사택 성읍에 들어오되(들어왔을 때), 만약 백리나 천리로부터 온 사람을 보거든, 곧 일어나 맞아들이고 배웅하여 보내며 예배드리고 공양해야 할 것이니(라).]

日日三時… 供養ㅅ西ㅁ/ㄴㅁ/ 日食三兩金ㄴㅊㅅ//ㄴㅊㅌ<梵網17a>

[날마다 세 때로 공양하되 한 끼에 석 냥의 금으로 해야 할 것이다.]

百味飮食床座醫藥… 供事法師ㅅㅈ 一切所須ㄴ//0 盡給與之ㅁ 常請法師ㅅㅈ 三時…//0 說法ㅅㅈ 日日三時…//0 禮拜ㄴㅁ 不生瞋心患惱之心ㄴㅊㅅ//ㅅ가<梵網17a>

[백 가지 음식과 앉고 누울 자리와 의약으로 법사에게 공양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고 항상 법사에게 청하여 세 때에 설법하게 하며, 날마다 세 번 예배드리되 성내거나 걱정하거나 번민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爲法滅身ㅅㅈ 請法不懈ㄴㅊㅌ 若不慊者ㅐㄱㅊㄱ/ㄱ/0 犯輕垢罪 <梵網17a>

[법을 위해 몸을 멸하고 법을 청하되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7.

若佛子一切處ㅈ 有講毗尼經律ㅊㅅㄱ 大宅舍中講法處ㅈ 是新學菩薩ㅐ//ㄱ 應持經律卷ㅅㅈ(梵網17a) 至法師所ㅅㅈ 聽受諮問ㄴㅊㅅ//ㄴㅊㅌ<梵網17b>

[만일 불자라면, 모든 곳에서 비니경률을 강설하고 있거든, 마을의 큰 집 안에서 법을 강설하더라도 (이) 새로 배우는 보살은 마땅히 경률의 책을 가지고 법사가 있는 곳에 가서 법을 듣고 의견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若山林樹下ㅇㄱ/ㅐㅇㄱ/ㅐㅇㄱ 僧地房中ㅐㅇㄱ//ㅐㅇㄱ 一切說法處ㅈ 悉

至ン〻 聽受ノチヒ 若不至彼ン〻 聽受者ㄱ//ㅣㄱ大ㄱ 犯輕垢罪<梵網17b>

[만일 산의 숲 아래거나 절의 승방이거나 모든 설법하는 곳에(설법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다 따라가서 듣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만일 그 곳에 가서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않는다면) 경구죄를 법한 것이다.]

8.

若佛子心背大乘常住經律ン〻 言非佛說ㅣㅅロ/ㅅロ/(?ㅣロ) 而受持二乘聲聞外道惡見一切禁戒邪見經律者ㄱ 犯輕垢罪 <梵網17b>

[만일 불자라면, 대승상주경률(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대승의 경률)을 마음으로 등지고서 부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 소승의 성문이나 외도의 악견, 일체의 금계와 사견의 경률 등을 받아 지니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9.

若佛子見一切疾病人ロ斤 常應供養ノム 如佛無異ノチㅅ//ノチヒ<梵網18a>

[만일 불자라면, 아픈 모든 사람들을 보거든 항상 마땅히 공양하되, 부처께 하듯 해야 할 것이다.]

八福田中〻 看病福田{ノチヒ}ㅣ/ㅣ/ 第一福田ㅣヒㅅ<梵網18a>

[팔복전 가운데 병을 간호하는 복전이 제일 복전이다.]

若父母師僧弟子ㅣ 疾病ㅣ令乃//ㅣオ乃 諸根ㅣ 不具ㄴ乃 百種病苦惱令入ㄱ/ㅣ令入ㄱ/ㅣオ入ㄱ 皆養令差ノチㅅ<梵網18a>

[만일 부모와 스승 스님 제자 등이 병을 앓거나, 모든 기관(오관)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백 가지 병으로 인하여 고뇌하면, 다 보양하여 쾌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而菩薩ㅣ 以惡心… 瞋恨ン〻 不至僧房中城邑曠野山林道路中ン〻 見病ロ//0 不救者ㄱ 犯輕垢罪<梵網18a>

* 후대 다른 이본들과 원문 차이

[(그런데) 보살이 나쁜 마음으로 성내거나 한을 품고서, 승방 안에 이르지 못하여 성읍에서나 광야, 산, 숲에서나 길 가운데에서 병자를 보고도 구하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0.

若佛子不得畜一切刀杖弓箭鉾斧鬪戰之具ㅣ令ᄀᆞᆷ//ㅣ오ᄀᆞᆷ 及惡網羅殺生之器ㅣᄉᆞᄀᆞ/ᄉᆞᄀᆞ/ 一切ㄴ 不得畜ㅣ令ㅣ//ㅣ오ㅣ<梵網18b>

[만일 불자라면, 일체의 칼 몽둥이 활 화살 창 도끼 등 싸움하는 무기는 쌓아두지 말 것이며, 그물과 망 등 (축생을) 살생하는 도구 일체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而菩薩ㄱ 乃至殺父母ㅅᄃᆞ가 尙不加報ㅅᄃᆡᄒᆞᄀᆞ 況(餘)一切衆生ㅣㄷᆡᄂᆞᆫᄂᆞ 若故畜一切刀杖者ㄱ 犯輕垢罪 <梵網18b>

* 후대 다른 이본들과 원문 차이

[보살은 또한, 부모를 죽여도 오히려 앙갚음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물며 나머지 일체 중생에 대해서이겠는가? 만일 일부러 살생의 도구를 쌓아두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如是十戒ㄴ 應當學ㅅᄃᆞ//ㅅᄀᆞ 敬心奉持ㅅᄃᆡᄒᆡ 下六品中ᄃᆞᄒᆞ//ᄃᆞㄷᆡ 當廣明ㅅᄒᆡᄉᆞ//ㅅᄒᆡ、<梵網18b>

[이 같은 열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니 아래 육도품 가운데서 자세히 밝혔다.]

11.

佛言佛子ㄱ 不得爲利養惡心故… 通國使命ㅅᄃᆞ 軍陣ㅣ//ㄹ 合會ㅅᄃᆞ 興師相伐ㅅᄃᆞ 殺無量衆生ㅣ令ㅣ<梵網19a>

[부처가 말씀하시되, 불자는 이양을 위한 나쁜 마음으로 양국 사이를 다니면서 국명을 전하고, 군진을 오가면서 장수 (또는 군대)를 부추겨 서로 싸움을 붙임으로 해서 많은 중생들을 죽게 하지 말 것이다.]

而菩薩ㄱ 不得入軍中ㅅㅋ 往來ㅅㅎㅓㄱ 況故作國賊ㅣㅊㅅㅅ 若故作者ㄱ 犯輕垢罪 <梵網19a>

[보살은 군진 안에 들어가 왕래하는 것도 안 되는데, 하물며 일부러 국적이 되겠는가? 만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12.

若佛子故販賣良人奴婢六畜ㅅㅏ 市易棺材板木盛死之具ㅣㅎㅌㅍ//ㅣㅗㅌㅍ 尙不自作ㅣㅓㄱ 況敎人作ㅣㅊㅅㅅ 若故作者ㄱ/0/0 犯輕垢罪 <梵網19a>

[만일 불자라면 고의로 양인이나 노비 육축을 팔거나 시장에서 관이나 널 등 장례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매매하겠는가? 오히려 스스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남을 가르쳐서 하도록 하겠는가? 만일 일부러 스스로 하거나 남이 그렇게 하도록 가르친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3.

若佛子以惡心故… 無事ㅎ 謗他良人善人法師師僧國王貴人ㅅㅋ 言犯七逆十重ㅣㅎㅌㅍ<梵網19b>

[만일 불자라면 나쁜 마음으로 아무 일 없이 선인 법사 스님 국왕 귀인 등을 비방하여서 칠역과 십중계를 범하였다고 말하겠는가?]

於父母兄弟六親中ㅋㅅㄱ//ㅋㄱ 應生孝順心慈悲心ㅣㅎㅌ//ㅣㅗㄴ 而反更加於逆害ㅅㅋ 墮不如意處者ㄱ/0/ㄱ 犯輕垢罪 <梵網19b>

[부모와 형제 육친 등에 대해서는 마땅히 효순심과 자비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다시, 거슬러 해를 가함으로써 (자기) 뜻과 어긋난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14.

若佛子以惡心故… 放大火ㅅㅋ 燒山林曠野ㅅ西ㅁ/ㅅㅁ/ 四月… 乃至九月ㅎ 放火ㅅㅏ//ㅅㅋ 若燒他人家屋宅城邑僧房田木果/人/ 及鬼神官物ㅣㅎㅌㅍ

//ㅣ오ᄒᆞ<梵網20a>

[만일 불자라면 악한 마음으로 큰 불을 놓아서 산림과 넓은 들을 태우되, 4월부터 9월까지 불을 놓아 다른 사람의 집들이나 성읍 승방 논밭 나무 및 사당이나 신묘, 관청의 물품 등을 태우겠는가?]

一切有主物ᄉᆞᄀᆡ 不得故燒ㅣᄉᆞᆸㅣ 若故燒者ᄀᆡ/0/0 犯輕垢罪 <梵網20a>

[모든 주인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불태우지 말아야 한다. 만일 고의로 태우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5.

若佛子自佛弟子… 及外道人六親一切善知識ㄴ 應一一敎ᄂᆞᆯ 受持大乘經律ᄂᆞᆫᄀᆞ 應敎解義理ᄂᆞᆯ 使發菩提心十發心十長養心十金剛心ᄂᆞᆯ/0/ᄂᆞᆯ 三十心中ᄋᆞᆯ 一一解其次第0/0/…法用ᄂᆞᆺᄎᆞ//ᄂᆞᆺᄒᆡ<梵網20a>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불제자로서, 외도와 육친 일체 선지식 등에게 마땅히 하나하나 가르쳐 대승 경률을 받아 지니게 해야 하며, (또) 마땅히 그 의리를(뜻을) 알도록 가르쳐서 보리심이 일어나도록 하여 십발취심과 십장양심과 십금강심 등 삼십 심중에서 그 차례와 법용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而菩薩ㅣ(梵網20a) 以惡心瞋心… 橫敎他二乘聲聞經律外道邪見論等ᄂᆞᆫᄀᆞ//ᄂᆞᆫᄀᆞ 犯輕垢罪<梵網20b>

[(그런데) 보살이 악하고 성난 마음으로 다른 이승(소승) 성문의 경률과 외도의 사견과 이론 등을 잘못 가르치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6.

若佛子應好心… 先學大乘威儀經律ᄂᆞᆫᄀᆞ 廣開解義味ᄂᆞᆯ 見後新學菩薩ㅣ有從百里千里… 來求大乘經律ㅁᆞᆫ 應如法ᄒᆞ 爲說一切苦行ᄂᆞᆺᄒᆡ<梵網20b>

[만일 불자라면 마땅히 좋은 마음으로 대승의 위의와 경률을 먼저 배우며, 넓게 열어 그 뜻을 깨달아 나중에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백리 천리로부터 와서

대승 경률을 구함을 보거든 법대로 온갖 고행을 설명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니]

若燒身ㅅ가 燒臂ㅅ가 燒指ㅣ ᄒᆞᅀᅡ<梵網20b>

[몸을 태우며 팔을 태우며 손가락을 태우는 것이다.]

若不燒身臂指ㅅ ᄃᆞ 供養諸佛ㅅ가ㄱ//ㅅㅏ(梵網20b) 非出家菩薩ㅣㅂᄒᆞᅀᅡ//ㅣㅂᄒᆞ·<梵網21a>

[만약 몸이나 팔 손가락 등을 태워서 모든 부처께 공양을 드리지 않으면 출가보살이 아니다.]

乃至餓虎狼師子一切餓鬼ㄴ 悉應捨身肉手足ㅅ ᄃᆞ 而供養之ㅅㄱ 然後ᄃᆞᄒᆞ 一一次第… 爲說正法ㅅ ᄃᆞ 使心0/0/… 開意解ㅣᄒᆞᅀᅡ//ㅣᄒᆞㅂ<梵網21a>

[또(또는) 굶주린 호랑이, 사자 및 모든 아귀에게까지도 몸과 살과 손 발을 다 마땅히 내주면서 공양한 후에야 하나하나 차례로 정법을 말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뜻이 풀리게 해야 한다.]

而菩薩ㅣㅂ//ㄱ 爲利養故… 應答ㄴ 不答ㅅ가 倒說經律ㅅ ᄃᆞ 文字ㄴ 無前無後ㅅ ᄃᆞ 謗三寶說者ㄱ 犯輕垢罪<梵網21a>

[(그렇게 하지 않고) 보살이 이양을 위하여 마땅히 응해야 할 것을 대답하지 않고, 경률을 거꾸로 설명하여 문자를 앞도 없고 뒤도 없이 하면서 삼보의 설을 비방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7.

若佛子自爲飮食錢物利養名譽故… 親近國王王子大臣百官ㅅ ᄃᆞ 恃作形勢ㅅ가//ㅅ ᄃᆞ 乞索ㅅ가 打拍ㅅ가(梵網21a) 牽挽ㅅ ᄃᆞ 橫取錢物ㅣᄉᆞᆼㅂᄑ//ㅅㅓㅇㅂᄑ<梵網21b>

[만일 불자라면 스스로 음식, 돈과 재물, 이양, 명예 등을 위해서 국왕 왕자 대신 백관 등과 친밀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 형세를 믿고 의지하여 빌어서 구하고(강요하고) 때리고 견만함으로써 돈과 재물을 횡령하겠는가?]

一切求利ㄴ 名爲惡求多求ᄒᆞᅀᅡㅅㅗㄴㅂ//(ㅣㅇㅗㅈㅗㅂᄒᆞ) 敎他人求ㅅ ᄃᆞ 都無慈心ㅅ가 無孝順心者ㄱ 犯輕垢罪 <梵網21b>

[(이렇게) 모든 이를 구하는 것을 이름하여 악구(나쁜 방법으로 구하는 것)

와 다구(욕심으로 자꾸 구하는 것)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도록 가르칠 정도로 도무지 자비심과 효순심이 없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8.

若佛子ㅣ/0/0 學誦戒者ㄱ 日夜六時ㅇㅣ 持菩薩戒ㅅㅇㅣ 解其義理佛性之性ㅅㅈㅅ<梵網21b> * 후쇄본과 원문 차이

[만일 불자로서 계를 배워서 외우는 자는 밤낮 여섯 때에(하루 여섯 번) 보살계를 지니어 그 의리와 불성의 본성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而菩薩ㅣ 不解一句一偈戒律因緣ㅿㅣ//{ㅿㅣㅣ} 詐言能解者ㄱ 卽爲自欺誑ㅣㅋ/ㅅㅋ/ (梵網21b) 亦欺誑他人ㅣㅇㅣ//ㅣㅇㅣ<梵網22a>

[보살이 구절 하나 게송 하나, 계율의 인과 연을 알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며 또한 남을 속이는 것이 된다.]

一一不解一切法ㅿㅣ//ㅿㅣㅣ 而爲他人… 作師授戒者ㄱ 犯輕垢罪<梵網22a>

[일일이(낱낱이) 일체법을 알지 못하는데도 남을 위해 스승이 되어 계를 주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19.

若佛子以惡心故… 見持戒比丘ㅋ 手捉香爐ㅅㅇㅣ 行菩薩行ㅁ 而鬪搆兩頭ㅅㅇㅣ 謗欺賢人ㅅㅇㅣ 無惡ㅣ 不造ㅣㅇㅣㅍ//ㅣㅇㅣㅍ 若故作者ㄱ/0/0 犯輕垢罪 <梵網22a>

[만일 불자로서 악한 마음으로, 계를 지키는 비구가 향로를 손에 들고 보살의 행을 행하는 것을 보고, 쌍방에게 고자질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어진 이를 비방하고 속이어 악을 끝없이 짓겠는가? 만약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0.

若佛子以慈心故… 行放生業ノチヘ<梵網22a>

[만일 불자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방생의 업을 행하여야 한다.]

一切男子リ(梵網22a) 是我父リケ 一切女人リ 是我母リヒヘ<梵網22b>

[모든 남자가 다 내 아비이며 모든 여인이 다 내 어미인 것이다.]

我ㄱ 生生ゝ 無不從之… 受生ノヒヘ//ノチヘ 故… 六道衆生リ 皆是我ヲ父母リヒヘ/リヒ/ <梵網22b>

[우리는 태어날 때마다 저들을 의지하여 나지 않음이 없다(저들을 의지함으로써만 태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육도의 중생이 다 나의 부모인 것이다.]

而殺而食者ㄱ 卽殺我ヲ 父母リケ 亦殺我ヲ 故身リ今ㅣ//リオㅣ<梵網22b>

[(따라서) 잡아서 먹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또한 나의 옛 몸을 죽이는 것이다.]

一切地水リ 是我ヲ 先身リケ 一切火風リ 是我ヲ 本體リヒ//ヒ 故… 常行放生ノチヘ<梵網22b>

[모든 땅과 물은 다 나의 전생의 몸이요 모든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항상 방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生生受生ㄱ 常住之法リヒ 敎人… 放生ノチヘ/ノチヒ/ノチヘ<梵網22b>

[날 때마다 몸을 받아 나는 것은 항상 머무르는 법이니 사람들로 하여금 방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若見世人リ 殺畜生時ロ斤 應方便…//0 救護ンゝ 解其苦難ロ 常敎化ンゝ (梵網22b) 講說菩薩戒ンゝ 救度衆生ノチヘ<梵網23a>

[만일 세상 사람들이 축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거든 마땅히 방편으로 구호하여 그 고난을 해결해 주고 늘 교화하고 보살계를 강설하여 중생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若父母兄弟死亡之日リ今入ㄱ//リオホㄱ 應請法師ンゝ 講菩薩戒經ンゝ 福資亡者ンゝ//リ 得見諸佛ンゝ 生人天上ムノチヒ/ムリノチヒ/ムンチヘ 若不尒者ㄱ//0 犯經垢罪 <梵網23a>

[만일 부모 형제가 사망한 날이면(또는 1년후 그 날이 되면) 반드시 법사를 청하여서, 보살의 계경을 강설하여 복이 망자의 밑천이 되도록 하고 여러 부처를 (능히) 보고 하늘이나 사람 사는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如是十戒ㄴ 應當學ㅅ ᄀᆞᆷ 敬心奉持ㅅ ᄀᆞᆺᄒᆡ 如滅罪品中ᄋᆞᆫ 廣明一一戒相ㅅ ᄀᆞᆨᄉᆞᆨᄀᆞ//ㅅᄀᆞᆨᄀᆞᆨᄀᆞ<梵網23a>

[이와 같은 열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니, 멸죄품 중에서 계상을 하나하나씩 널리 밝힌 것과 같다.]

21.

佛言佛子ㄱ 不得以瞋ᄉᆞᆷ 報瞋ㅅᄀᆞ 以打ᄉᆞᆷ 報打ㅣᄉᆞᆼᄀᆞ//ㅣㅇㅓᄀᆞ<梵網23a>

[부처께서 말씀하시되, 불자는 성냄으로써 성내는 것을 갚지 말며 때리는 것으로써 때린 것을 갚지 말 것이다.]

若殺父母兄弟六親ㅅᄋᆞᆫㄱ 不得加報ㅣᄉᆞᆼᄀᆞ//ㅣㅇㅓᄀᆞ 若國主ㅣ 爲他人ㅎᆞ/0/ㅎᆞ(梵網23a) 殺者ㅣᄉᆞᆨㄱ/ᄉᆞㄱ/ 亦不得加報ㅣᄉᆞᆼᄀᆞ//0 殺生0/0/ㅣㅇㅓᄀᆞ報生ㄱ 不順孝道ㅣㅂᆡᄉᆞ//ㅂᆡᄉᆞ 尙不畜奴婢ㅅᄋᆞᆫ 打拍罵辱ㅅᄋᆞᆫ 日日0/ᄋᆞᆫ/0 起三業ㅅ ᄆᆞᆷ 口罪無量ㅅᄀᆞᆺᄐᆞㄱ 況故作七逆之罪ㅣㅌᆡᄉᆞᆨ//ㅣㅌᆡㅎᆞᅀᆞ<梵網23b>

[만일 부모 형제 육친을 죽였더라도 능히 더하여 갚지 말 것이며, 만일 국주가 다른 사람의 죽인 바 되었더라도(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더라도) 또한 갚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살생하여 갚는 것은 효도에 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노비를 기르지 않고 매질하고 욕하여 날마다 세가지 업을 일으키되 입으로 지은 죄가 한이 없는데, 하물며 고의로 칠역죄를 짓겠는가?]

而出家菩薩ㅣ 無慈報讎ㅅᄋᆞᆫ 乃至六親中ᄋᆞᆫ 故報者ㄱ 犯輕垢罪 <梵網23b>

[출가한 보살이 자비로운 마음이 없이 복수하며 또는 육친에 이르기까지 갚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2.

若佛子初始出家ン〻 未有所解ㄊヒ 而自恃聰明有智ンカ 或恃高貴年宿ンカ(梵網23b) 或恃大姓高門大解大福饒財七寶ン〻 以此…//0 憍慢ン〻 而不諮受先學法師ラ經律リ令ヒ尸//(リ令ヒ𠂉) <梵網24a>

[만일 불자라면, 처음으로 출가하여 깨달은 바가 없는데도 스스로 총명하고 지식이 있다고 믿고 의지하거나 혹 고귀하고 나이 많음을 의지하거나, 또는 훌륭한 가문과 지식(세속적인 지식)이 많음과 풍부한 재물과 칠보를 믿고 의지하여 이로써 교만해지고 선학과 법사에게 경률을 듣지 않겠는가?]

其法師者リ八/リ/ 或小姓年少リ令乃//ㄊ乃 卑門貧窮リ令乃//リオ乃 諸根リ 不具ㄊ乃ンㇾ刀 而實有德ン〻 一切經律し 盡解ㄊ入ㄱ//ㄊホㄱ 而新學菩薩ㄱ 不得觀法師ラ 種姓リ令ㅣ//リオㅣ<梵網24a>

[그 법사가 혹 비천한 가문이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천한 출신이거나 빈궁하거나 오관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하여도 진실로 덕이 있고 일체의 경률을 다 알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출신을 보지 말아야 한다(출신 가문 등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而不來ン〻 諮受法師ラ 第一義諦者ㄱ 犯輕垢罪 <梵網24a>

[찾아와 법사에게 제일의제를 묻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23.

若佛子佛滅度後〻 欲心好心… 受菩薩戒時〻//〻ㄱ(梵網24a) 於佛菩薩形像前〻 自誓受戒ノチヒ//チヒ 當七日し 佛前〻 懺悔ノチヒ//ノチ𠂉 得見好相ンカㄱ//ンア 便得戒ンチ令ヒ人/ンチ令ヒト/ンチ令ヒ人 若不得好相リ令入ㄱ//リオホㄱ 應二七ㅗ 三七ㅗ 乃至一年ㄎ 要得好相リ令ㅣ//リオㅣ<梵網24b>

[만일 불자라면 부처가 멸도하신 후에 좋은 마음으로 보살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부처나 보살의 형상 앞에서 스스로 서원하되 마땅히 7일 동안 부처 앞에서 참회해야 할 것이니, 호상을 보고 얻으면 계를 얻은 것이지만 만일 호

상을 얻지 못했으면 마땅히 14일이나 21일 또는 일년까지라도 호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필요하다).]

得好相已ンカ┐//ンア 便得佛菩薩形像前ミ 受戒ンチ今ヒ人/ンチ今ヒト/ンチオヒ人 若不得好相リ┐大┐/┐大┐/ 雖佛像前ミ 受戒ンミカ 不得戒ンチ〻<梵網24b>

[호상을 이미 얻었으면 부처와 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을 것이지만, 만약 호상을 얻지 못했다면 비록 불상 앞에서 계를 받았더라도 계를 얻은 것이 아닐 것이다.]

若現前先受菩薩戒ンア 法師前ミ 受戒時ミア 不須要見好相リヒ〻<梵網24b>

[만일 보살계를 먼저 받은 법사 앞에서 계를 받을 때에는 호상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何以故ヤ<梵網24b> 以是法師ア 師師リ 相授ン〻ア大//ン〻大 故… 不須好相リヒ〻<梵網25a>

[어떤 까닭인가? 이 법사는 스승과 제자가 서로 전하여 받아왔기 때문에 호상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是以…//0 法師前ミ 受戒ンカ┐//ンア 卽得戒{ンヒヒ}ンチヒ/ンチヒ/ 以生重心故… 便得戒{ンヒヒ〻}ンチ〻// <梵網25a>

[이런고로 법사 앞에서 계를 받으면 곧 계를 얻을 것인데 지극히 소중한 마음을 일으킴으로써 계를 얻을 것이다.]

若千里內ミ 無能授戒師ム入┐//ムホ┐ 得佛菩薩形像前ミ 受戒ノチヒ 而要見好相リ今ㅣ//リオㅣ<梵網25a>

[만약 천리 안에서 능히 계를 줄 법사가 없거든 부처와 보살의 형상 앞에서 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若法師リハ/リ/ 自倚解經律大乘學戒ンミ 與國王太子百官… 以爲善友{ロ}ンミ/ンミ/ 而新學菩薩リ 來問ノム 若經ユ/0/0義ユ 律義ユノレムヘ┐//ユノレムホ┐ 輕心惡心慢心… 不一一好答問者┐/0/┐ 犯輕垢罪 <梵網25a>

[만일 법사가 스스로 경과 율, 대승 학계를 알고 의지하여 국왕과 태자, 백관과 더불어 좋은 벗을 삼고, 새로 배우는 보살이 와서 경의 뜻과 율의 뜻을 물으면 업수이 여기는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게으른 생각으로, 물음에 대해 하나하나 잘 대답해 주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4.

若佛子有佛經律大乘正法正見正性正法身ㅌ入ㄱ//ㅌㅎㄱ 而不能勤學修習ㅁ//ㅅㄱ 而捨七寶ㅅㄱ//ㅁ 反學邪見二乘外道俗典阿毗曇雜論書記ㄴㅅㄱ//ㄴㅅㅜ 是ㄱ//0 斷佛性ㅣㅅ<梵網25b>

[만일 불자가, 부처의 경률과 대승의 정법 정견 정성 정법신 등이 있는데도 능히 부지런히 배우고 닦아 익히지 않아서 칠보(칠종의 법재)를 버리고 도리어 사견과 이승 외도의 속전과 아비담론 잡론 서기 등을 배우면 이는 불성을 끊는 것이다.]

障道因緣ㅣㅅㅅㄱ/ㅅㅅㄱ/ㅣㅅㅅㄱ 非行菩薩道ㅣㅂㅅ 若故作者ㄱ 犯輕垢罪 <梵網25b>

[도에 장애가 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도를 행함이 아닌 것이다. 만일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25.

若佛子佛滅後ㅅ 爲說法主ㅣㅇㄱ/ㅇㄱ/ㅣㅇㄱ 爲僧房主ㅣㅇㄱ/ㅇㄱ/ㅣㅇㄱ(梵網25b) 敎化主ㅣㅇㄱ/ㅇㄱ/ㅣㅇㄱ 坐禪主ㅣㅇㄱ/ㅇㄱ/ㅣㅇㄱ 行來主ㅣㅇㄱㅅㅊ斤/ㅇㄱㅅㅊ斤/ㅣㅇㄱㅅㅊ斤 應生慈心ㅅㅊ 善和鬪訟ㅅㄱ/ㅅㅊ/ 善守三寶物ㅅㅊ 莫無度用ㄴㅁ 如自己有ㄴㅊㅅ <梵網26a>

[만일 불자가, 부처가 멸도한 후에 설법주가 되거나 승방주가 되거나 교화주가 되거나 좌선주가 되거나 행래주가 되거든 마땅히 자비심을 발하여 다투는 것을 잘 화해시키고 삼보물을 잘 지키어 함부로 쓰지 말되 자기 소유처럼 하여야 할 것이다.]

而反亂衆0/0/ㅅㄱ鬪諍ㅅㄱ 恣心ㅅㅊ//0 用三寶物者ㄱ 犯輕垢罪 <梵網26a>

[도리어 중생을 어지럽게 하고 싸움을 일으키며 방자한 마음으로 세가지 보물을 사용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26.

若佛子先在僧房中住ㅅ ᄒᆞ 後ᄒᆞ//0 見客菩薩比丘ㅣ 來入僧房舍宅城邑國王宅舍中ㅣᄉᆞ乃//ㅣᄋᆞ乃 乃至夏坐安居處0/ᄉᆞ乃/ㅣᄋᆞ乃 及大會中ㅣᄉᆞ乃ㅁ斤/ᄉᆞ乃ㅁ斤/ㅣᄋᆞ乃ㅁ斤 先住僧ㅣ 應迎來送去ㅅᄀᆞ(梵網26a) 飮食…供養ㅅᄀᆞ 房舍臥具繩床事事ㅣ 給與ㅅᄌᆞᄉᆞ<梵網26b>

[만일 불자가 먼저 승방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중에 손님인 보살 비구가 승방과 사택 성읍 국왕의 사택이나 또는 하안거하는 곳이나 큰 법회 중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든(보면) 먼저 머물던 승려가 마땅히 오는 것을 마중하고 배웅하여 보내고 음식으로 공양하며 방과 침구 승상(평상 의자) 등을 일일이 공급해야 된다.]

若無物ㅿㅅㄱ//ㅿㅎㄱ 應賣自身及以男女ㅅᄒᆞ 供給所須ㅅᄒᆞ 悉以與之ㅅᄌᆞᄉᆞ<梵網26b>

[만일 물건이 없으면 마땅히 자신이나 남녀의 몸을 팔아서라도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若有檀越ㅣ 來請衆僧ㅿㅅㄱ//ㅿㅎㄱ 客僧ㄲ 有利養分ㅅᄉᆞㄱ大 僧房主ㅣ 應次第… 差客僧ㅅᄒᆞ 受請ㅅᄌᆞᄉᆞ<梵網26b>

[만일 단월이 와서 대중의 비구를 청함이 있으면, 객승도 이양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방주는 마땅히 차례로 객승을 구분하여 청을 받게 해야 한다.]

而先住僧ㅣ 獨受請ㅁ 不差客僧ㅅᄀᆞㄱ//ㅅᄀᆞ 僧房主ㅣ 得無量罪ㅅᄌᆞㅌ//ㅅᄌᆞᄉᆞ 畜生… 無異ㅅᄒᆞㄱ/ㅅᄒᆞ/ 非沙門ㅣᄀᆞ 非釋種姓ㅣㅌᄉᆞ<梵網26b>

[먼저 머무른 승려가 홀로 청을 받고 객승을 차례에 두지 아니하면 승방주는 한량없는 죄를 얻게 될 것이다. 축생과 다름이 없고 사문이 아니며 불제자의 본성도 아닌 것이다.]

若故作者ㄱ 犯輕垢罪 <梵網26b>

[만일 짐짓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7.

若佛子一切ㅋ 不得受別請ンㅋ 利養し 入已(己)リ今ㅣ/今ㅣ/リオㅣ<梵網27a>

[만일 불자라면 일체에 별청을 받고 이양을 자기에게만 들어오게 하지 말 것이다.]

而此利養ㄱ 屬十方僧ㅈヒ//ㅈし 而別受請ンカㄱ//ンア 卽取十方僧物ンㅋ 入已ンカ 八福田諸佛聖人一一師僧父母病人物し 自己用故… 犯輕垢罪 <梵網27a>

[이 이양은 시방승(일체 승, 사방승)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홀로 청을 받으면 곧 시방승의 물건을 취하여서 자기에게 돌린 것이 되고, 팔복전인 여러 부처들과 성인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승과 대중 부모 아픈 사람 등의 물건을 자기가 쓰는 것이므로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8.

若佛子有出家菩薩リ今乃/今乃/リオ乃 在家菩薩リ今乃//リオ乃 及一切檀越リ 請僧福田ンㅋ 求願之時リ今入ㄱ/今入ㄱ/オホㄱ 應入僧房ンㅋ//0 問知事人ン西ム/ノム/ 今欲次第… 請ㅗ//0者ㄱ//ㅗ 卽得十方賢聖僧ンチ𠂉 <梵網27a>

* 후대 다른 이본들과 원문 차이

[만일 불자라면 출가보살로 있거나 재가보살로 있거나 또한 모든 단월이 대중승의 복전을 청하고 원을 구할 적이면 마땅히 승방에 들어가서 지사인에게 묻되 이제 차례로 청하고자 하는 자는 곧 시방의 현성승을 얻을 것이다(라고 했다).]

而世人ㄱ 別請五百羅漢菩薩僧ンヒヒ 不如僧次ㅋ//0 一凡夫僧ンヒ𠂉<梵網27b>

[세간 사람들은 오백나한이나 보살승을 따로 특별히 청하는데 (그것은) 승차에 따라 한 범부승을 청한 것과 같지 않다(청한 것만 못하다).]

若別請僧者ㄱ大ㄱ/ㄱ/ㄱ大ㄱ 是外道法リ𠂉 七佛ㄱ 無別請法ンニヒ 不順

孝道ンヒヘ 若故別請僧者ㄱ 犯輕垢罪 <梵網27b>

[만일 스님을 따로 특별히 청한다면 (바로) 이것이 외도법이다. 칠불은 따로 특별히 청하는 법이 없으니 효의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만일 고의로 별청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29.

若佛子以惡心故ㅣㅋ 爲利養故… 販賣男女色ンカ 自手…//0 作食ンカ 自磨自舂 ンカ 占相男女ンカ 解夢吉凶ンカ 是男是女ンカ 呪術工巧ンカ 調鷹方法ンカ (梵網27b) 和合百種毒藥千種毒藥蛇毒0/0/{人}ン〻生金銀蠱毒ン〻 都無慈心ㅣㅋヒㅏ//ㅣオヒㅏ 若故作者ㄱ//0 犯輕垢罪 <梵網28a>

[만일 불자라면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해서 남녀 간에 그 몸을 팔고, 자신의 손으로 나쁜 음식을 만들고 스스로 갈고 찧으며, 남녀에 대해 점도 보고 상도 보며, 길흉을 해몽하고, 남자다 여자다 하고, 주술이 공교하며, 매를 길들여 사냥을 하든지 사람을 해치며(조응방법), 백 가지 천 가지 독약과 뱀독과 생금은 고독(독으로 남을 해침) 등을 조화시킨다고 해서 모두 다 자비심이 없겠는가? 만일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0.

若佛子以惡心故… 自身ㅣ 謗三寶ムヒ 詐現親附ン〻/ンカ/ 口便說空ムヒ 行在有中ン〻 爲白衣… 通致ン〻 男女ㅣ//0 交會ン〻 飮色〻 縛着ムランカ/ムリンカ/ムンカ 於六齋日人/0/0 年三長齋月〻 作殺生劫盜ン〻 破齋犯戒者ㄱ 犯輕垢罪 <梵網28a>

[만일 불자라면 나쁜 마음으로 자신이(스스로) 삼보를 비방하면서 거짓으로 친한 척 아부하고 입으로 공을 말하지만, 행은 있음에 존재하며 속인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남녀가 서로 만나 음란한 짓에 집착하게 하며 육재일과 삼장재월에 살생과 도적질을 하여서 파재하고 계를 범한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如是十戒し 應當學ンミ 敬心奉持ノオヒ 制戒品中ミ〻 廣解0/ムイ/ <梵網28b>

[이 같은 열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니 제계품 중에서 널리 밝혔다.]

31.

佛言佛子リ/フ/ 佛滅度後ミ//0 於惡世中ミ 若見外道一切惡人劫賊リ 賣佛菩薩父母形像ンカ 販賣經律ンカ 販賣比丘比丘尼ンカ 亦賣發心菩薩道人ンミ 或爲官使リカ 與一切人… 作奴婢者ロ斤/ンしロ斤/ 而菩薩リ(梵網28b) 見是事已ロ斤 應生慈心ンミ 方便… 救護ンミ 處處ミ 敎化取物ンミ//ンカ 贖佛菩薩形像及比丘比丘尼發心菩薩一切經律ノオヒ//ヲオヒ 若不贖者フ 犯輕垢罪 <梵網29a>

[부처가 말씀하시되, 불자는 부처가 멸도한 후에 악한 세상에서 만일 외도와 온갖 악인과 나쁜 도적이 부처와 보살 부모 등의 형상을 팔거나 경전과 율전을 팔거나 비구 비구니를 팔거나 또한 보리심을 발한 보살과 도인을 팔아서 혹 관청의 하급관리가 되거나, 모든 다른 사람을 노비로 만들었다면, (그리고) 보살이 이 일을 보았다면 마땅히 자비심을 내어 방편으로 구호하고 곳곳마다에서 교화시키고 재물을 주고서 부처와 보살의 형상과 비구 비구니 발심보살과 모든 경률 등을 풀어 주어야 할 것인데, 만일 (그렇게) 풀어 주지 않았다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2.

若佛子不得畜刀杖弓箭ンカ 販賣輕秤小斗ンカ 因官形勢ンミ 取人ラ 財物ンカ 害心… 繫縛ンミ 破壞成功ンカ 長養猫狸猪狗リ今イ//リオイ 若故作者フ 犯輕垢罪 <梵網29a>

[만일 불자라면 칼 매 활 화살 등을 쌓아두지 말고, 저울을 가볍게 하고 되를 적게 하여 팔지 말고, 관의 위세를 의지하여 남의 재물을 빼앗지 말고, 해할 마음으로 묶고 얽어서 성공을 파괴하지 말고, 고양이 이리 개 돼지를 오래

기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3.

若佛子以惡心故… 觀一切男女等鬪ソカ(梵網29a) 軍陣兵將劫賊0/0/リオヒア等鬪リシヒア//0 <梵網29b>

[만일 불자라면 나쁜 마음으로, 온갖 남녀들이 싸우는 것과 군대의 장병이나 도적들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亦不得聽吹貝鼓角琴瑟箏笛箜篌歌叫伎樂之聲リシカ//リオカ 不得撘蒲圍碁波羅賽戲彈碁六博拍毬擲石投壺八道行城爪鏡蓍草楊枝鉢盂髑髏… 而作卜筮リシカ//リオカ 不得作盜賊ヲ 使命リシイ//リオイ<梵網29a>

[또한 나팔 불고 북치며 거문고 가야금 쟁 피리 공후 노래 부르는 것 등 기악의 소리를 듣지 말고, 윷놀이 바둑 말놀이 공놀이 주사위놀이 제기차기 돌팔매질 화살던지기 팔도행성놀이 등을 하지 말고 거울 갈대 버들가지 그릇 해골 등으로 점치지 말고, 도적의 심부름을 하지 말아야 한다.]

一一不得作リヒ 若故作者ㄱ/0/ㄱ 犯輕垢罪 <梵網29b>

[하나라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고의로 그렇게 한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다.]

34.

若佛子護持禁戒ソミ//ソカ 行住坐臥日夜六時ミ 讀誦是戒ソ而ム/ノム/ 猶如金剛ソカ 如帶持浮囊ソミ 欲度大海矢セソカ//ヒセソカ <梵網30a>

[만일 불자라면 금계를 보호하고 지녀서 다니고 거하고 앉고 눕는 주야 육시에 이 계를 독송하되 금강 같이 하고, 바람주머니를 가지고 큰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것처럼 하며]

如草繫比丘リ//ソミ 常生大乘善信ソミ//ソミカ 自知我是未成之佛リヤ 諸佛ㄱ 是已成之佛リㄱ入ソミ//リㄱホソカ 發菩提心ソミ 念念ミ 不去心ノチ<梵網30a>

[풀에 묶였던 비구와 같이 항상 대승의 좋은 신심을 발하여,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부처고 제불은 이미 이룬 부처인 것을 스스로 알고 보리심을 발하여서 생각하고 잠시라도 신심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若起一念二乘外道心者ㄱ/ㄱ大ㄱ/ㄱ 犯輕垢罪 <梵網30a>

[만일 한 생각이라도(한 순간이라도) 이승과 외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5.

若佛子常應發一切願ㅅ 孝順父母師僧三寶ㅅ가 願得好師同學善友知識ㅣ 常教我大乘經律十發趣十長養十金剛十地ㅅ 使我…//0開解ㅅ 如法修行ㅅ거ㅂ 堅持佛戒ㅅ 寧捨身命ㅣ今ㄱ丁//ㅣ오ㄱ丁 念念 不去心ㅅ거ㅅ <梵網30b>

[만일 불자라면 항상 마땅히 일체의 원을 발하여서 부모와 스승 삼보 등에게 효순하고, 좋은 스승과 동학 좋은 벗과 지식 등이 항상 나에게 대승경률과 십발취 십장양 십금강 십지 등을 가르치고 나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고 법대로 수행할 것을 원할 것이니, 불계를 굳게 지켜 차라리 육신의 생명을 버릴지언정 잠시라도 마음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若一切菩薩ㅣ 不發是願者ㄱ//(ㅅㄱ) 犯輕垢罪 <梵網30b>

[만일 모든 보살이 이 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6.

若佛子發十大願已ㅁ 持佛禁戒ㅅ 作是願言ㅅ而ㅁ/ㅅㅁ/ (梵網30b) 寧以此身… 投熾然猛火大坑刀山ㅣ今ㄱ丁/今ㄱ丁/ㅣ오ㄱ丁 終不毁犯三世諸佛ㅌ/0/0經律ㅅ 與一切女人… 作不淨行ㅅ거ㅅ <梵網31a>

[만일 불자라면 열 가지 큰 원을 발한 후에 부처의 금계를 지니고 이 원을 지어 말하되, 이 몸으로 차라리 맹화(훨훨 타는 불구덩이)나 대갱(큰 구덩이)이나 도산(칼산)에 던질지언정 끝까지 삼세제불의 경률을 훼손시키거나 범하지 않을 것이며 또 모든 여인과 함께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ㅅ西ㅁ/ㅅㅁ/ 寧以熟鐵羅網… 千重ㄴ 周匝纏身ㅐㅎㄱㄱ//ㅐㅇㄱㄱ 終不以破戒之身… 受於信心檀越ㅋ 一切衣服ㅅㅊㅅ <梵網31a>

[또 이 서원을 하되(또 다시 이렇게 서원하되), 차라리 뜨겁게 달군 쇠 그물로 천 겹을 둘러 감아 몸을 얽어맬지언정 끝까지 파계한 몸으로 신심 단월의 온갖 의복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ㅅ西ㅁ/ㅅㅁ/ 寧以此口… 吞熟鐵丸0/0/ㅅ及大流猛火ㅅ西ㅁ//ㅅㅁ 經百千劫ㅐㅎㄱㄱ//ㅐㅇㄱㄱ 終不以破戒之口…(梵網31a) 食信心檀越ㅋ/0/ㅋ 百味飮食ㅅㅊㅅ/0/ㅅㅊㅅ <梵網31b>

[차라리 이 입으로 뜨겁게 단 쇠덩어리와 크게 흐르는 맹화를 삼키되(삼키고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끝까지 파계한 입으로 신심단월의 백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ㅅ西ㅁ/0/ㅅㅁ 寧以此身…/0/… 臥大猛火羅網熟鐵地上ㅐㅎㄱㄱ/0/ㅐㅇㄱㄱ 終不以破戒之身…/0/… 受信心檀越ㅋ/0/ㅋ 百種床座ㅅㅊㅅ/0/ㅅㅊㅅ<梵網31b>

[차라리 이 몸으로 맹렬하게 타는 불 그물과 뜨겁게 단 철지(쇠 바닥) 위에 누울지언정 끝까지, 파계한 몸으로 신심단월의 백 가지 평상과 자리를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ㅅㅁ/0/ㅅㅁ 寧以此身…/0/… 受三百鉾…/0/0刺ㅅ西ㅁ/0/ㅅ西ㅁ 經一劫ㅗ/0/0 二劫ㅐㅎㄱㄱ/0/ㅐㅇㄱㄱ 終不以破戒之身…/0/… 受信心檀越ㅋ/0/ㅋ(梵網31b) 百味醫藥ㅅㅊㅅ/0/ㅅㅊㅅ <梵網32a>

[차라리 이 몸으로 삼백대의 창으로 찔림을 당한 채 일겁이나 이겁을 지낼지언정 끝까지 파계한 몸으로 신심단월의 백가지 의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復作是願ㅅㅁ/0/ㅅㅁ 寧以此身…/0/… 投熟鐵鑊ㅅㅈ/0/ㅅㅈ 經百千劫ㅐㅎㄱㄱ/0/ㅐㅇㄱㄱ 終不以破戒之身…/0/… 受信心檀越ㅋ/0/ㅋ 千種房舍屋宅園林田地ㅅㅊㅅ/0/ㅅㅊㅅ <梵網32a>

[차라리 이 몸으로 뜨겁게 달군 쇠가마에 던져서 백천겁을 지낼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단월의 천가지 방 집 절 건물 동산 숲 논 밭 땅 등을 끝내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0/ノム 寧以鐵鎚…/0/… 打碎此身ソ西ム/0/ノム 從頭…//0至足ノム//ソ〻 令如微塵リ今ㄱ丁/今ㄱ丁/リオㄱ丁 終不以破戒之身…/0/…受信心檀越ラ/0/ラ(梵網32a) 恭敬禮拜ノチ𠂉/0/ノチ𠂉 <梵網32b>

[차라리 철퇴로 이 몸을 때려 부수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가루로 될지언정 파계한 몸으로 신심단월의 공경 예배를 끝까지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0/ノム 寧以百千熟鐵刀鉾…/0/…挑其兩目リ今ㄱ丁/0/リオㄱ丁 終不以破戒之心…/0/… 視他好色ノチ𠂉/0/ノチ𠂉 <梵網32b>

[차라리 백천 개의 뜨겁게 단 쇠칼 쇠창으로 두 눈을 뽑아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끝까지 다른 사람의 호색을 보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0/ノム 寧以百千鐵錐…/0/… 遍劖刺耳根ノム/0/ソ西ム 經一劫二劫リ今ㄱ丁/0/リオㄱ丁 終不以破戒之心…/0/… 聽好音聲ノチ𠂉/0/ノチ𠂉<梵網32b>

[차라리 백천 개의 송곳으로 귀를 쑤시고 찔러서 일겁 이겁을 지낼지언정 끝까지 파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0/ノム 寧以百千刃刀…/0/… 割去其鼻リ今ㄱ丁/0/リオㄱ丁(梵網32b) 終不以破戒之心…/0/… 貪饕諸香ノチ𠂉/0/ノチ𠂉 <梵網33a>

[차라리 백천 개의 칼날로 코를 베어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끝까지, 온갖 향내를 맡거나 탐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0/ノム 寧以百千刃刀…/0/… 割斷其舌リ今ㄱ丁/0/リオㄱ丁 終不以破戒之心0/0/…食人ラ/0/0百味淨食ノチ𠂉/0/ノチ𠂉 <梵網33a>

[차라리 백천 개의 칼날로 혀를 잘라낼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백가지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끝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0/ノム 寧以利斧…/0/… 斬斫其身リ今ㄱ丁/0/リオㄱ丁 終不以破戒之心…/0/… 貪着好觸ノチ𠂉/0/ノチ𠂉 <梵網33a>

[차라리 날카로운 도끼로 이 몸을 찍을지언정 파계한 마음으로 좋은 촉감을 끝까지 탐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復作是願ノム 願一切衆生リ 悉得成佛リ𠂉ノチ𠂉/𠂉ノチ𠂉/リ𠂉ノチ𠂉(梵網33a)

而菩薩ㅣ 若不發是願者ㄱ/0/ㅣㄱ大ㄱ 犯輕垢罪 <梵網33a>

[또 다시 서원하되(또 다시 이렇게 서원하되), 일체 중생이 능히 다 성불하기를 바랄 것이다. 보살이 만일 이 원을 발하지 않는 것은(않으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7.

若佛子常應二時頭陀ㄴノチ/ノチ/ㄴノチ 冬夏坐禪結夏安居ソㄴ土ㅣヒㄱ/ソㄴ土ㅣㄱ/ソㄴ土ヒㄱ 常用楊枝澡豆三衣甁鉢坐具錫杖香爐漉水囊手巾刀子火燧鑷子繩床經律佛像菩薩形像ノチ <梵網33b>

[만일 불자라면 항상 두 때(봄 가을)에 두타를 해야 할 것이다. 겨울 여름의 좌선과 하안거를 맺을(할) 때에는 항상 양지와 조두(비누의 일종), 삼의 병, 바루, 좌구, 석장, 향로, 물거르는 주머니, 수건 칼 성냥 쪽집개 승상 경율 불상, 보살상 등(18종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而菩薩ㄱ 行頭陀時0/0/オ乃及遊方時今乃ソヒ尸/ㅣ今乃ソヒ尸/オ乃ソヒ尸行來百里千里ノム 此十八種物ㄴ 常隨其身ノチ<梵網33b>

[보살은 두타를 할 때나 이리저리 다닐 때에도 행각했는가? 백리 천리를 행각을 하면서 오되 이 18종물을 항상 몸에 지녀야 할 것이다.]

頭陀者ㄱ 從正月十五日…//ソカ 至三月十五日0/ソカ/ (梵網33b) 八月十五日… 至十月十五日ヲ 是二時中ミ 此十八種物ㄴ 常隨其身ノム 如鳥ㅣ 二翼ノチ<梵網34a>

[두타는 정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와 8월 15일로 10월 15일까지니, 이 두 때 중에 이 18종물을 늘 몸에 지닐 것인데 (그러면) 새의 두 날개와 같을 것이다.]

若布薩日ㅣ今入ㄱ//ㅣオ入ㄱ 新學菩薩ㅣ//ㄱ 半月半月ミ 布薩ノチヒ//ノチ<梵網34a>

[만일 포살일이면 새로 배우는 보살이 반달마다 포살할 것이니(-다).]

誦十重四十八輕戒時ミ 於諸佛菩薩形像前ミ 一人ㅣ 布薩ム入ㄱ 卽一人ㅣ 誦ソカ 若二人三人乃至百千人ㅣ<カ 亦一人ㅣ 誦ノチヒ//ノチ<梵網34a>

[십중계와 48경계를 외울 때, 여러 부처와 보살상 앞에서 한 사람은 포살하고, 곧 한 사람은 외우며 만일 두 사람 세 사람 또는 백천 사람이라도 역시 한 사람이 외울 것이다.]

誦者ㄱ//0 高座ㄷㅅㅅㄱ 聽者ㄱ 下坐ㅅㅈ(梵網34a) 各各披九條七條五條袈裟ノチヘ 結夏安居ㅅㄴㅅㅂㅌㄱ//ㅅㄴㅅㅌㄱ 一一如法ノチヘ<梵網34b>

[외우는 자는 높이 앉고 듣는 자는 아래에 앉아서 각각 9조와 7조, 5조의 가사를 입을 것이다. 하안거를 맺을 때에는 하나하나 법대로 할 것이다.]

若頭陀時ㅂㅇㅅㄱ//ㅇㅅㄱ 莫入難處ノチヘ/ノチヒ/ <梵網34b>

[만일 두타를 행할 때이면 어려운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若國難ㅂㅇㄱ 惡王0/0/ㅂㅇㄱ 土地高下0/0/ㄷㄱ 草木ㅂ/0/0 深邃0/0ㅇㄱ 師子虎狼0/0/ㅂㅇㄱ 水火風難ㅂㅇㄱ//ㅂㅇㄱ 及以劫賊0/0/ㅂㅇㄱ 道路毒蛇0/0/ㅂㅇㄱ 一切難處ㅈㅅㄱ//ㅅㅈ 悉不得入ㅂㅇㅣ//ㅂㅇㅣ<梵網34b>

[만일 국난이 났거나 나쁜 왕이 있거나 땅이 높고 낮거나 초목이 울창하거나 사자와 호랑이가 있거나 물 불 바람 등의 재해가 있거나 도적이 있는 길이나 독사가 있는 등 모든 어려운 곳에는 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若頭陀行道ㅅㄱ 乃至夏坐安居ㅅㄴㅅㅂ 是諸難處ㅈㅅㄱ//(ㅅㅈㅅㄱ) 悉不得入ノチヒ 若故入者ㄱ//ㄱㅊㄱ 犯輕垢罪 <梵網34b>

[만일 두타행의 도를 닦거나 또는 하안거할 때에는 이 모든 어려운 곳에는 다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인데 만일 고의로 들어가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8.

若佛子應如法ㅎ 次第坐ノチヒ 先受戒者ㅂ 在前坐ㅁ 後受戒者ㅂ 在後坐ノチヒ//ノチヘ 不問老少比丘比丘尼貴人國王王子乃至黃門奴婢ㅅㅈ 皆應先受戒者ㅂ 在前坐ㄷㅅㅅㄱ 後受戒者ㅂ 次第而坐ㅂㅇㄱㄱ//ㅂㅇㄱㄱ 莫如外道癡人ㅋ 若老若少ㅂ 無前無後ノチヘ <梵網35a>

[만일 불자라면 마땅히 법대로 차례로 앉을 것이니 먼저 계를 받은 자가 앞에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자는 뒤에 앉아 있을 것인바, 늙은이 젊은이 비

구 비구니 귀인 국왕 왕자 또는 황문 노비 등에게 묻지 말고, 모두 다 마땅히 먼저 계를 받은 자가 먼저 앉고 나중에 계를 받은 자가 다음으로 앉아야지, 외도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늙고 젊은 것에 대해 앞 뒤가 없는 것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坐無次第ᄂᆞᄋᆞᄀᆞᄉᆞᆨᄀᆞ/ᄂᆞᄋᆞᄀᆞᄉᆞᆨ/ᄂᆞᄋᆞᄀᆞᄉᆞᆨᄀᆞ 兵奴之法ㅣᄒᆞ 我佛法中ᄋᆞᄀᆞ 先者ㅣ 先坐ㅁ 後者ㅣ 後坐ᄂᆞᄒᆞᄒᆞᄉᆞ <梵網35a>

[차례가 없이 앉는 것은 병종과 노비의 법인데, 우리 불법 중에는 선배는 먼저 앉고 후배가 나중에 앉는 것이다.]

而菩薩ㅣ 不次第ᄆᆞ/0/0坐者ᄀᆞ//ㅣᄀᆞᄎᆞᆨᄀᆞ 犯輕垢罪 <梵網35a>

[보살이 차례로 앉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39.

若佛子ᄀᆞᄎᆞᆨᄀᆞ/0/0 常應敎化一切衆生ᄂᆞᄋᆞ 建立僧房山林園田ᄇᆞᄂᆞᆫᆞᆫ/ᄂᆞᆫᆞᆫ/立作佛塔ᄂᆞᆫᆞᆫ 冬夏安居坐禪處所一切行道處ᄇᆞ 皆應立之ᄂᆞᄒᆞᄉᆞ <梵網35b>

[만일 불자라면 항상 마땅히 일체 중생을 교화시켜서 승방과 산림 전원을 만들고 불탑을 세우며 여름 겨울에 안거하고 좌선할 처소와 모든 수행을 할 수 있는 도량을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이다.]

而菩薩ᄀᆞ 應爲一切衆生ᄂᆞᄋᆞ 講說大乘經律ᄇᆞᄂᆞᄒᆞᄒᆞ/ᄂᆞᄒᆞᄒᆞ/ 若疾病ㅣ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國難ㅣᄉᆞᆷᄀᆞ/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賊難ㅣᄉᆞᆷᄀᆞ/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父母兄弟和上阿闍梨亡滅之日ㅣ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及三七日ㅗ/0/ㅗ 乃至七七日ㅗᄂᆞᄒᆞᄑᆞ//ㅗᄂᆞᄒᆞᄑᆞ<梵網35b>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대승경률을 강설할 것인데, 만일 질병이나 국난이나 도적의 난이나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 등의 사망일이나 또한 삼칠일 또는 칠칠일에도 강설했는가?]

亦應讀誦講說大乘經律ᄂᆞᄋᆞ(梵網35b) 齋會求福ᄂᆞᆫᆞᆫ 行來治生{ᄂᆞᄋᆞ}ᄂᆞᄉᆞᆫᆞᆫㅣ// 大火所燒ㅣ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大水所漂ㅣ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黑風所吹船舫ㅣᄉᆞᆷᄀᆞ//ㅣᄋᆞᄒᆞᄀᆞ 江河大海羅刹之難ㅣᄉᆞᆷᄀᆞᄂᆞᄒᆞᄑᆞ//ㅣᄋᆞᄒᆞᄀᆞᄂᆞᄒᆞᄑᆞ <梵網36a>

[또한 마땅히 대승경율을 독송하며 강설하고, 재회하면서 복을 구하며 행각

을 해 오면서 생활을 다스릴 때에 큰 불의 피해나 배가 흑풍에 날린 바 되거나 강, 하천, 큰 바다 등 나찰의 어려움 중에도 독송하고 강설했는가?]

亦應讀誦講說此經律ンカ//ン ㇾ 乃至一切罪報三報七逆八難杻械枷鏁繫縛其身ニ乃 多婬多瞋多愚癡多疾病ニ乃ニ入テ 皆應讀誦講說此經律ノチヒ 而新學菩薩リ 若不尒者テ 犯輕垢罪<梵網36a>

[또한 마땅히 대승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하며, 또한 모든 죄보와 삼보 칠역 팔난과 족쇄를 채우고 큰 칼 쓰며 몸을 얽어매거나 음욕이 많고 화를 잘 내며 어리석음이 많고 질병이 많거나 해도 모두 마땅히 이 경율을 독송하고 강설해야 할 것인데 새로 배운 보살이 만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如是九戒し 應當學ン ㇾ 敬心奉持ノチヒ 梵壇品ㇾ ㇾ 當說ノチヘ/ノヒヘ/<梵網36b>

[이 같은 아홉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할 것이니 범단품에서도 설명한 것이다.]

40.

佛言ンヰム/0/0 佛子リ//0 與人… 受戒時ㇾテ 不得簡擇一切國王王子大臣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婬男婬女十八梵天六欲天子無根二根黃門奴婢一切鬼神ン ㇾ 盡得受戒ノチヒ//ノチヘ<梵網36b>

[부처가 말씀하시되, 불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계를 받을 때에는 일체의 국왕 왕자와 대신 백관, 비구 비구니, 신남 신녀, 음남 음녀, 18범천 6욕천자, 무근 二根, 황문 노비와 일체의 귀신을 가리지 말고 모두 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應教身所着袈裟… 皆使壞色ン ㇾ 與道…//0 相應ン ㇾ (梵網36b) 皆染使青黃赤黑紫色ノチヘ<梵網37a>

[마땅히 몸에 걸치는 가사는 다 같이 괴색으로 하여서 도와 서로 응하게 하여(출가의 것과 같게) 모두 푸른색, 누른색 붉은색 검정 자색 등으로 물들

여야 할 것이다.]

一切ㄴ/0/0染衣ㅅ가 乃至臥具ㄴ//(ㄱ) 盡以壞色ㅅ ᄒᆞᄉᆞ<梵網37a>

[모든 옷과 심지어 잠자리에 쓰는 물건까지도 모두 괴색으로 염색하여야 한다.]

身所着衣ㅣ ᄉᆞᄀᆞ/ᄉᆞᄀᆞ/ㅋ 一切ㄴ 染色{ㅅ ᄒᆞᄆᆞ}ㅁ/ㅅ ᄒᆞᄆᆞ/ 若一切國土中ㅣ 國人ㅋ所着衣服ㅣㅇ入ᄀᆞ/ᄉᆞᄀᆞ/ㅣㅇ入ᄀᆞ 比丘ᄀᆞ//0 皆應與其俗服… 有異ㅅ ᄒᆞᄉᆞ<梵網37a>

[몸에 걸치는 옷가지 일체를 물들일 것이니, 만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옷 입는 법이 있다면, 비구의 경우에는 그 세속의 의복과는 마땅히 다름이 있어야 한다]

若欲受戒時ㅣᄀᆞ 師應問言ㅅ ᄆᆞᆷ 汝ᄀᆞ 現身ㅣ 不作七逆罪耶ㅍ//ㅍ<梵網37a>

[만약 계를 받고자 할 때에는 스승이 물어 말씀하시되, '너는 현생에서 칠역죄를 짓지 않았느냐?'(고 스승이 물을 것이다.)]

菩薩法師ᄀᆞ 不得與七逆人… 現身ㅣ 受戒ㅣㅂᄒᆞᄉᆞ<梵網37a>

[보살 법사는 칠역죄인으로 하여금 현재의 그 몸으로는 계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七逆者ᄀᆞ 出佛身血ㅅ가 殺父ㅅ가 殺母ㅅ가 殺和上ㅅ가//0 殺阿闍梨ㅅ가 破羯磨轉法輪僧ㅅ가 殺聖人ㅅㄴㅡᄉᆞ <梵網37a>

[칠역이란 부처몸에 피 나게 하며, 아버지·어머니·화상·아사리 등을 죽이며, 갈마승과 법륜승을 깨뜨리며, 성인을 죽이는 것이다.]

若具七遮ㅅ가ᄀᆞ//ㅅᄀᆞ(梵網37a) 卽現身ㅣ 不得戒ㅅ ᄒᆞᄆᆞㅇㅌㅂㅅ/ㅅ ᄒᆞᄆᆞㅇㅌㅂㅍ/ㅅ ᄒᆞᄆᆞㅇㅂㅅ 餘一切人ᄀᆞ 盡得受戒ㅅ ᄒᆞᄉᆞ<梵網37b>

[만일 칠역죄를 지었다면 그 몸으로는 계를 받지 못하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出家人ㅋ法ᄀᆞ 不向國王ㅅㅣ 禮拜ㅅ가 不向父母ㅅㅣ 禮拜ㅅ가 六親ㄴ 不敬ㅅ가 鬼神ㄴ 不禮ㅅ ᄒᆞᄉᆞ<梵網37b>

[출가인의 법에는 국왕을 향하여 예배하지 않으며, 부모에게 예배하지 않으

며, 육친에게 예경하지 않으며, 귀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但解師語ンチハ//ンチ 有百里千里… 來求法者ニ入ㄱ 而菩薩法師ㅣ 以惡心… 而不卽與授一切衆生戒者ㄱ 犯輕垢罪 <梵網37b>

[다만 법사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백리 천리로부터 와서 법을 구하는데도 보살과 법사가 악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계를 주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1.

若佛子ㅣ//0 敎化人ンミ 起信心時ミㄱ 菩薩ㅣ//0 與他人…(梵網37b) 作敎誡法師者ㅣ//ㄱ 見欲受戒人ロ斤 應敎請二師和上阿闍梨ノチヘ <梵網38a>

[만일 불자라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여서 신심을 일어나게 할 때에는 보살이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교계의 법사가 되면 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보거든 마땅히 두 선생 화상과 아사리를 청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二師ㅣ 應問言ンヨムノム/ 汝有七遮罪不ヲ//ミ 若現身ミ 有七遮ンカㄱ //ンテ 師ㄱ//ㅣ 不應與受戒ンニチヘ//ンニヒヘ<梵網38a>

[두 법사가 당연히 묻되, 너는 칠차죄가 없느냐? 만일 현재의 몸에 칠차죄가 있으면 법사는 마땅히 계를 주지 않으실 것이다.]

無七遮者ㄱ 得受ンチヘ//ンチヒ 若有犯十戒者ニ入ㄱ/ㄱ/ 應敎懺悔ノチヒ //ノチヘ<梵網38a>

[칠자죄가 없는 자는 (계)를 받을 것인데, 만일 십계를 범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在佛菩薩形像前ンミ 日夜六時ミ 誦十重四十八輕戒ンミ 苦到ヲ 禮三世千佛ンミ 得見好相ノチヘ<梵網38a>

[불 보살상 앞에서 밤낮 여섯 번 십중계 사십팔경계를 외우고 삼세 천불께 극진히 예배드려서 좋은 상서를 얻어 보아야 할 것이다.]

若一七日ナ(梵網38a) 二三七日ナ 乃至一年ヲ 要見好相ノチヘ<梵網38b>

[만일 칠일이나 이삼칠일이나 혹 1년까지라도 좋은 상서를 보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好相者ㄱ 佛來摩頂ㅿㄴㄱ 見光ㅿㄱ/0/0見華ㅿㄱ/0/0種種異相ㅐㅎㄱ/ㅅㅎㄱ/ㅅㄱ便得滅罪ㅅㅊㅅ//ㅅㅊㅂ<梵網38b>

[좋은 상서라는 것은, 부처가 와서 이마를 만지시거나 광명을 보거나 꽃을 보거나 갖가지 기이한 상을 보게 되면 순식간에 죄가 멸함을 얻을 것이다.]

若無好相ㅅㅎㄱ//ㅅㄱ(ㅅㅎ) 雖懺ㅅㅈㅁ 無益ㅅㅊㅅ<梵網38b>

[만일 좋은 상서가 없으면 비록 참회하여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是人ㄱ 現身ㅈ 亦不得戒ㅅㅊㅂ 而得增受戒ㅅㅊㅅ<梵網38b>

[이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는 또한 계를 얻을 수 없지만 (내생에는) 계를 받을 수 있는 증상이익을 얻을 것이다.]

若犯四十八輕戒者ㅐㅇㅅㄱ/ㅐㅇㅅ/ㅐㅇㅗㄱ 對首懺ㅅㅎㄱ//ㅅㄱ 罪滅ㅐㅅㅅㄱ//ㅅㅊㅅㅅㄱ 不同七遮ㅅㅂㅅ<梵網38b>

[만일 48경계를 범했어도 한 사람의 스님 앞에서 참회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한 것이 칠차와 같지 않다.]

而敎戒師ㅐ//ㄱ 於是法中ㅈ 一一好解ㅅㅈㅣㅅㅊㅂ 若不解大乘經律若輕若重是非之相ㅅㅎ//ㅅㄱ(梵網38b) 不解第一義諦習種性長養性不可壞性道種性正性其中多少觀行果/人/ 出入十禪支ㅅㅈ 一切行法ㄴ 一一不得此法中意ㅿㅂ<梵網39a>

[교계의 법사는 이 법 가운데 하나하나 잘 알아야만 하는데, 만일 대승경률이 가볍거나 무겁거나 옳고 그른 모습을 알지 못하며, 제일 의제와(진실구경의 진리) 습종성 장양성 불가괴성 도종성 정법성과 그 가운데 다소의 관행과 출입과 십선지를 알지 못해서 일체 행법을(행법에 대해) 낱낱이 이 법의 뜻을 해득하지 못했으니]

而菩薩ㅐ 爲利養故ㅐㅎ 爲名聞故…ㅅㅈ//(ㅅㅈ) 惡求多求ㅅㅎ 貪利弟子ㅅㅈ 而詐現解一切經律ㅅㅈ 爲供養故…ㅅㅎㄱ//…ㅅㄱ 是自欺詐ㅐㅎ 亦欺詐他人ㅐㅇㅣ//ㅐㅇㅣ(梵網39a) 故與人…//0 受戒者ㄱ 犯輕垢罪 <梵網39a>

[보살이 이양을 위하고 명문을 위한 것으로 잘못 구하고 많이 구하며, 이득

과 제자를 탐하고 일체 경률을 아는 체 거짓으로 드러내고 공양을 위한 것으로 하면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일부러 다른 사람과 함께 계를 받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2.

若佛子不得爲利養故…ソ〻/…/ (梵網39a) 於未受菩薩戒者前ㇾ 若外道惡人前ㇾソヒ卩//ㇾソヒ卩 說此千佛大戒ㄐ令乃/ㄐ令ㄉ/オㄉ 邪見人前〻カ 亦不得說ㄐ令ㄧ//ㄐオㄧ <梵網39b>

[만일 불자라면 이양을 위한 까닭으로 보살계를 받지 않은 이 앞에서나 외도와 악인 앞에서(말하지 않았는가?) 천불의 대계를 말하거나 사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또한 말하지 않아야 된다.]

除國王ロ 餘一切〻ㅅㄱ 不得說ㄐ令ㄧ//ㄐオㄧ <梵網39b>

[국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한다.]

是惡人輩ㄱ 不受佛戒ソチヒ 名爲畜生ㅅソチヒ/ㅅソチㅅ/ㄐㅅソチㅅ 生生〻 不見三寶ソチヒ 如木石ㄐ/…/ㄐ 無心ソヒ 名爲外道ㅅソヌヒㅅ/ㅅソヌヒ/ <梵網39b>

[이 나쁜 사람들은 불계를 받지 않을 것이니 이름을 축생이라 할 것이다. 태어날 때마다 삼보를 보지 못할 것인데, 나무나 돌과 같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외도라 하는 것이다.]

邪見人輩ㄱ 木頭…//0 無異ソヒㅅ//ソヒ、 而菩薩ㄐ 於是惡人前〻 說七佛敎戒者ㄱ 犯輕垢罪 <梵網39b>

[사견을 가진 무리들은 나무 토막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보살이 이런 악인 앞에서 칠불의 교계를 말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3.

若佛子信心… 出家ソ〻 受佛正戒ソㅗヒ//ソ〻ヒ 故起心ソ〻 毁犯聖戒者ㄱ 不得受一切檀越ㅋ//0 供養ㄐㄉ 亦不得國王地上〻//0 行ㄐㄉ 不得飮國王水ㄐ令ㄧ//ㄐオㄧ <梵網40a>

[만일 불자라면 신심을 가지고 출가하여서 불정계를 받았는데, 짐짓 마음을 내어 성계를 헐뜯고 범한 이는 모든 시주의 공양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그 나라 땅 위로 다니지 말 것이며 나라의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五千大鬼ㅣ 常遮其前ㅅ〻 鬼言0/0/ㅅㅁ 大賊ㅅㅅㅅㅌㅅ//ㅣㅅㅅㅌㅌㅅ <梵網40a>

[오천의 큰 귀신들이 항상 그 앞을 가로막고 귀신이 말하되 큰 도적이라고 한다.]

若入房舍城邑宅中ㅿㅅㄱ 鬼復常掃其脚跡ㅅㅏ 一切世人ㅣ 罵言0/0/ㅅㅁ 佛法中賊ㅣㅅㅅㅏ 一切衆生ㅣ 眼不欲見ㅅㅌㅌ/ㅅㅌㅌㅅ/ㅅㅌㅌ、 <梵網40a>

[만일 방이나 집, 성읍에 있는 집에 들어가면 귀신이 다시 그 발자국을 쓸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법 가운데 도적이라 할 것이며, 일체 중생이 눈으로 보려고도 않는다.]

犯戒之人ㄱ 畜生… 無異ㅅㅏ(梵網40a) 木頭0/…/0無異ㅅㅌ 若毁正戒者ㄱ 犯輕垢罪 <梵網40b>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르지 않고 나무토막과 다르지 않은데 정계를 훼손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4.

若佛子常應一心… 受持讀誦大乘經律ㅅ〻 刹皮0/0/…爲紙ㅅㅏ 刺血0/0/…爲墨ㅅㅏ 以髓… 爲水ㅅㅏ 折骨0/0/…爲筆ㅅ〻 書寫佛戒ㅅㅏ 木皮ㅇㅏ/ㅣㅇㅏ/ㅇㅏ 穀紙ㅇㅏ//ㅇㅏ 絹素ㅣㅇㅏ/ㅇㅏ/ㅇㅏ 竹帛ㅣㅇㅏㅅㅌㅍ/ㅇㅏㅅㅌㅍ/ㅇㅏㅅㅌㅍ<梵網40b>

[만일 불자라면 항상 마땅히 일심으로 대승경률을 받아 지니어 독송하고 가죽을 벗겨 종이를 만들며, 피를 내어 먹을 삼으며 골수로 물을 삼고 뼈를 깎아 붓을 만들어서 불계를 쓰며, 나무껍질이나 곡지(닥나무 껍질 등으로 종이를 만듦)나 견소(흰 비단) 죽백 등에 했겠는가?]

亦應悉書持ㅅ〻 常以七寶無價香花一切雜寶… 爲箱囊ㅅ〻 盛經律卷ㅅㅊ

ㅌ 若不如法供養者ㄱ//ㄱ大ㄱ 犯輕垢罪 <梵網40b>

[또 마땅히 다 글로 써서 지녀서 항상 칠보와 값 나가는 향화와 온갖 보배 등으로써 상자와 포장을 만들어 경전과 율전을 장엄해야 할 것인데 만일 법대로 공양하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5.

若佛子常起大悲心ㅅㅈ 若入一切城邑舍宅ㅅㄴ土ㅂ 見一切衆生口斤 應當唱言ノム 汝等衆生ㄱ 盡應受三歸十戒ㅂ今ㅣノチ丷/ㅂ今ㅣㅅ分/オㅣㅅ分 <梵網41a>

[만일 불자라면 항상 대자비심을 일으켜 (만일) 모든 성이나 읍의 마을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을 보거든 반드시 외쳐 말하되, 너희들 중생은 마땅히 삼귀 십계를 받을 것이라고 하며]

若見牛馬猪羊一切畜生口斤 應心念口言ノム 如是畜生ㅂㅌ 發菩薩心今ㅣノチ丷/ㅂ今ㅣノチ丷/(ㅂオ丷ノチ丷)<梵網41a>

[만일 소 말 돼지 양 등 모든 축생을 보거든 마땅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되 "이와 같이 축생이지만 보리심을 발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而菩薩ㄱ/ㅂ/ㄱ 入一切處山林川野ㅅㅈ斤 皆使一切衆生… 發菩薩心ノチ丷<梵網41a>

[보살은 모든 산과 숲 하천 들에 들어가거든 다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是菩薩ㅂ 若不敎化衆生者ㄱ 犯輕垢罪 <梵網41a>

[이렇게 보살이 만일 중생을 교화하지 않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6.

若佛子常行敎化ㅅㅈ 起大悲心ㅅㅈ(梵網41a) 入檀越貴人家ㅅㅈ 一切衆中ㅈ 不得立爲白衣… 說法ㅂ今ㅣ//ㅂオㅣ<梵網41b>

[만일 불자라면 항상 교화를 행하고 대자비심을 일으키고 단월과 귀인의

집에 들어가서 온갖 무리 가운데서 백의를 위하여 (서서) 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

應白衣衆前ㅋ/ㅋㄱ/ 高座上ㅋ//0 坐ノチヘ<梵網41b>

[마땅히 백의의 무리 앞에서는 높은 자리 위에 앉을 것이다.]

法師比丘ㄱ 不得地立ンㅋ 爲四衆ンㅋ 說法{リヒヘ}リ令ㅣ//リオㅣ<梵網41b>

[법사 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

若說法時リ令入ㄱ/リ令入/オ入ㄱ 法師リ 高座ム入ㄱ//オ入ㄱ 香花… 供養ロ 四衆聽者ㄱ 下坐ンㅋ//0 如孝順父母ンカ 敬順師敎ンカ/ノム/ 如事火婆羅門ノチヘ<梵網41b>

[만일 법을 강설할 때이면(때에는) 법사가 높이 자리하면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사부대중인 청자는 아래에 앉아서 부모에게 효순하는 것처럼 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되 사화바라문 하듯 해야 할 것이다.]

其說法者リ 若不如法ンカㄱ//ンア 犯輕垢罪 <梵網41b>

[이 설법하는 자가 만일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7.

若佛子皆以信心… 受佛戒者リ令ヒ//リオヒ 若國王太子百官四部弟子リハ//リ 自恃高貴ンㅋ 破滅佛法戒律ンㅋ 明作制法ンㅋ 制我ラ//0 四部弟子ンㅋ 不聽出家行道 ンカ//ンㅋ 亦復不聽造立形像佛塔經律ンカㄱ//ンア 破三寶之罪リヒヘ<梵網42a>

* 후대 다른 이본들과 원문 차이

[만일 불자로서 모두 신심으로 불계를 받은 것이겠지만, 만약 국왕 태자 백관 사부제자 등이 스스로 고귀하다고 믿어 불법과 계율을 파괴하고, 제지하는 법을 교묘히 만들고, 나의 사부제자를 압제하고, 출가해서 도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한 형상과 불탑을 만들고 경률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삼보를 파괴한 죄다.]

而故作破法者ㄱ 犯輕垢罪 <梵網42a>

[짐짓 법을 파괴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48.

若佛子以好心… 出家ンヤヒ 而爲名聞利養ンミ 於國王百官前ミ 說七佛戒ンミ(梵網42a) 橫與比丘比丘尼菩薩弟子… 作繫縛事ンカ┐//ンア 如師子身中蟲リ//ミ 自食師子肉リヘンフ 非外道天魔ラ 能破リヒヘ//ヒヘ <梵網42b> * 후대의 이본과 원문 차이

[만일 불자라면 좋은 마음으로 출가하였지만 명문과 이양을 위하여 국왕과 백관 앞에서 칠불계를 강설하고 어긋나게 비구 비구니 보살 제자등과 함께 얽히게 되면 마치 사자 몸 가운데 있는 벌레가 스스로 사자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외도나 천마가 능히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若受佛戒者┐ 應護佛戒ノム 如念一子ンカ 如事父母ノチヘ <梵網42b>

[만일 불계를 받는 자는 마땅히 불계를 보호하되 외아들 생각하듯 하며 부모님을 섬기듯 해야 할 것이다.]

而菩薩リ//┐ 聞外道惡人リ 以惡言… 謗佛戒時ミ┐ 如三百鉾… 刺心ンカ 千刀萬杖… 打拍其身ンヌヒ…/ンヌ┐ヒ…/ンヌヒ… 等無有異ノチヘ<梵網42b>

[보살은 외도와 악인이 나쁜 말로 불계를 비방하는 것을 들을 때에는 삼백 개의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고 천 개의 칼과 만 개의 몽둥이로 그 몸을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寧自入地獄ンミ 經百劫リ今┐丁//リオ┐丁 而不用一聞惡言…破佛戒之聲{ノチヘ}ノチヤ┐// (梵網42b) 而況自破佛戒ンカ 敎人…//0 破法因緣リヒ入ヤ//リヒホヤ<梵網43a>

[차라리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서 백겁을 지낼지언정 악한 말로 불계를 파괴하는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지 말아야 하는데(하거늘) 하물며 스스로 불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파괴하는 인연을 가르치겠는가?]

亦無孝順之心ンヒ 若故作者┐ 犯輕垢罪 <梵網43a>

[또 효순하는 마음이 없으니, 만일 짐짓 그렇게 하는 것은 경구죄를 범한 것이다.]

如是九戒ㄴ 應當學ᄂᆞᆞᆯ 敬心奉持ᄂᆞᆺᄉᆞ <梵網43a>

[이와 같이 아홉 가지 계를 마땅히 배워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 한다.]

### 48경계의 總結

諸佛子ᆞᆞᆯ 是四十八輕戒ㄴ 汝等ㄱ 受持ㅐᄉᆞㅣ/ᄉᆞㅣ/ㅓㅣ <梵網43a>

[모든 불자들아, 이 48계경을 너희들은 받아 지녀야 한다.]

過去諸菩薩ㅐ 已誦ᄂᆞᆼᄀᆞ 未來諸菩薩ㅐ 當誦ᄂᆞᆼᄀᆞ 現在諸菩薩ㅐ 今誦ᄂᆞᆼㅣㅂㅣᄉᆞ//ᄂᆞᆼㅣㅂㅣ· <梵網43a>

[과거의 모든 보살이 이미 외웠고 미래의 모든 보살이 마땅히 외울 것이며 현재의 모든 보살이 지금 외우고 있다.]

### 流通分

諸佛子ᆞᆞᆯ//ᆞᆞᆯ(?ㄱ) 諦聽ᄂᆞᆞᆺ 此十重四十八輕戒ㄱ 三世諸佛ㅐ 已誦ᄂᆞᆼᄀᆞ//ᄂᆞᆼㄴᄀᆞ當誦ᄂᆞᆼᄀᆞ//ᄂᆞᆼㄴᄀᆞ 今誦ᄂᆞᆼㄴㅣㅂㅣ/ᄂᆞᆼㅣㅂㅣᄉᆞ/ᄂᆞᆼㅣㅂㅣ· 我今ᆞᆞᆯ 亦如是誦ᄂᆞᆺᄋᆞᆞᆺ<梵網43a>

[모든 불자들아 주의하여 들어라. 이 십중·사십팔경계는 삼세의 모든 부처가 이미 외우셨고, 마땅히 외울 것이며, 지금도 외우신다. 나도 또한 지금 이렇게 외우고 있다.]

汝等一切大衆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ㅐㅅ//ㅐ 受持菩薩戒者ㄱ 應受持讀誦解說書寫{ᄂᆞᆺㅓㅂㅣ}/{ᄂᆞᆺㅓㅂㅣ}/0 佛性{ㅐ}/{ㅐ}/0 常住{ᄂᆞᆼᄀᆞ}/{ᄂᆞᆼᄀᆞ}/0 戒卷 {ㅐ}ᄂᆞᆞᆯ/{ㅐ}ᄂᆞᆞᆯ/ᄂᆞᆞᆯ 流通三世ᄂᆞᆞᆯ//(ᆞᆞᆯ) <梵網43b>

[너희들 일체 대중, 국왕 왕자 백관 비구 비구니 신남 신녀 등이 보살계를 받아 지닌 것은 마땅히 수지하여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써서, 불성이 항상 계율책에 머무르고 삼세에 유통되고,]

一切衆生ㅐ 化化不絶ᄂᆞᆞᆯ 得見千佛ᄂᆞᆞᆯ 佛佛ㅐ 授手ᄂᆞᆞᆯ//0 世世ᆞᆞᆯ 不墮惡道八難ㅁ 常生人道天中ᄃᆞᆞᆯᄂᆞᆞᆺ/ᄃᆞㅐᄂᆞᆞᆺ/ᄃᆞᄂᆞᆞᆺ <梵網43b>

[일체 중생이 교화되어 끊어지지 않고, 천불을 보게 되며, 부처와 부처가

손으로 주어서 세세에 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 사는 곳이나 하늘에 항상 나게 하라.]

我今ㅋ 在此樹下ンㅋ 略開七佛法戒ンㅋヒ 汝等ㄱ 當一心…(梵網43b) 學波羅提木叉ンㅋ 歡喜奉行ノチヒ 如無相天王品勸學中ㅋ//ㅋㄱ 一一廣明ノㄱ矢七ム|//ノㄱ土七ム| <梵網44a>

[내가 이제 이 나무 아래 있으면서 일곱 부처의 계법을 간략하게 보였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바라제목차를 배워서 기쁜 마음으로 받들어 행할 것이다. (그것은) 무상천왕품의 권학 중에 하나하나씩 널리 밝힌 바와 같다.]

三千學士0/0/ㅛ時坐聽者ㅛ 聞佛自誦ロ 心心頂戴ンㅋ 喜躍受持| <梵網44a>

[삼천학사와 그 때 앉아서 들은 무리가 부처께서 스스로 외우는 것을 듣고 마음과 정수리로 받들어 기뻐하여 뛰며 받아 지녔다.]

尒時釋迦牟尼佛ㅛ 說上蓮花臺藏世界盧舍那佛七/0/七 心地法門品中ㅋ//(ㅋ) 十無盡戒法品竟ンニ|<梵網44a>

[그 때 석가모니불은 연화대장세계 위에서 노사나불의 심지법문품 가운데 십무진계 법문품을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셨다.]

千百億釋迦ㅛ 亦如是說ンニヒ(梵網44a) 從摩醯首羅天王宮… 至此道樹ㅋ 十住處說法品ㅛヒ∧//ㅛヒ・ <梵網44b>

[천백억 석가도 또한 이 같이 말씀하셨는데, 마혜수라천왕궁으로부터 이 길의 나무에 이르기까지 십주처에서 법품을 말씀한 것이다.]

爲一切菩薩不可說大衆ンㅋ 受持讀誦ンㅋ 解說其義ン全ム 亦如是ンニ| <梵網44b>

[일체 보살과 불가설 대중을 위하여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풀어 설명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이 하셨다.]

千百億世界蓮花藏世界微塵世界ㅋヒ 一切佛心藏地藏戒無量行願藏因果

佛性常住藏 如如一切佛說無量一切法藏竟ᄉᆞᆫᆡ <梵網44b>

[천백억세계와 연화장세계와 미진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인 심장 지장 계장 무량행원장 인과 불성상주장을 일체불이 이와 같은 여여한 무량 일체 법장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마치셨다.]

千百億世界中ᄋᆞᆯ 一切衆生ㅣ 受持ᄒᆞᄋᆞᆯ//0(梵網44b) 歡喜奉行0/ㅣ/ 若廣開心地相相ᄂᆞᆫᄉᆞᆫᄒᆞᆫᆨ//ᄂᆞᆨᄉᆞᆫᄒᆞᆫᆨ 如佛花光王品中ᄋᆞᆯ 說ᄉᆞᆷᆡ <梵網45a>

[천백억 세계 중에 일체 중생이 수지하여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만일 마음 바탕의 모양을 널리 열어 보이려고 하면 불화광품에서 말한 것과 같다.]

**持戒의 讚戒**

明人ㅣ 忍彗强ᄂᆞᆫᄒᆞᆫᄋᆞ//ᄂᆞᆫᄎᆞᄋᆞ 能持如是法ᄂᆞᆫᄎᆞᄉᆞ 未成佛道間ᄋᆞᆯ 安獲五種利ᄂᆞᆫᄒᆞᆫᄒᆞᄉᆞ//ᄂᆞᆫᄒᆞᆫᄒᆞ、 <梵網45a>

[(지혜가) 밝은 이는 인혜가 강하여서(강한 사람이어서) 능히 이같은 법을 지닐 것이다. 불도를 이루지 못하는 동안에도 다섯 가지 복리를 얻을 수 있다.]

一者ᄋᆞᆨ 十方佛ㅣ 愍念常守護ᄂᆞᆫᄀᆞᆷᄀᆞ 二者ᄋᆞᆨ 命終時ᄋᆞᆯ 正見心歡喜ᄂᆞᆫᄒᆞᆫᄒᆞᄉᆞ//ᄂᆞᆫᄒᆞᆫᄒᆞ、 <梵網45a>

[첫째는 시방불이 가엽게 생각하여 항상 보호하시며, 둘째는 목숨이 다할 때 정견을 얻고 기뻐한다.]

三者ᄋᆞᆨ//ᄋᆞᆯ 生生處ᄋᆞᆯ 爲諸菩薩友ᄂᆞᆫᄒᆞᆫᄒᆞᄉᆞ//ᄂᆞᆫᄒᆞᆫᄒᆞ、 <梵網45a>

[셋째는 태어 나는 곳마다 여러 보살들과 벗을 삼는다.]

四者ᄋᆞᆨ 功德聚(ᄂᆞᄉᆞ)/ᄂᆞᄉᆞ/ 戒度ㅣ 悉成就ᄂᆞᆫᄒᆞᆫᄒᆞᄉᆞ//ᄂᆞᆫᄒᆞᆫᄒᆞ、 <梵網45a>

[넷째는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계도가 다 성취된다.]

五者ᄋᆞᆨ 今後世ᄋᆞᆯ 性戒福慧滿ᄂᆞᆫᄎᆞᄉᆞ//ᄂᆞᆫᄒᆞᆫᄒᆞ、 <梵網45a>

[다섯째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성계와 복, 지혜 등이 가득 찰 것이다.]

此是佛行處ㅣᄒᆞᆫ//ᄒᆞᆫ 智者ᄀᆞ 善思量ㅣᄉᆞᆼᆡ/ㅣᄉᆞᄒᆞᆨ/ㅣᄋᆞᄒᆞᆨㅣ <梵網45a>

[이것이 이 부처가 행하는 바니 지혜로운 자는 잘 생각할지어다.]

計我着相者ㄱ 不能信是法ンチヘ <梵網45a>

[나를 세우고 현상에 집착하는 자는 이 법을 능히 믿을 수 없을 것이다.]

滅盡取證者カ 亦非下種處リヒヘ <梵網45b>

[멸진정을 얻은 자라도 불종자를 심은 것은 아니다.]

欲長菩提苗ンミ 光明リ//0 照世間リㄱ大ㄱ/ㄱ大ㄱ/リㄱ大ㄱ 應當靜觀察 0/0/ンミ 諸法眞實相ノチヘ <梵網45b>

[보리심을 싹틔워 기르고자 하여, 광명이 세상에 비치면 마땅히 제법의 진실한(본래의) 모습을 조용히 살펴 보아야 한다.]

不生亦不滅ンカ 不常復不斷ンヒヒヘ//ンヒヒ、 不一亦不異ンカ 不來亦不去ンヒヒヘ//ンヒヒ、 如是一心中ミ//ミㄱ 方便…//0 勤莊嚴ノチヘ <梵網45b>

[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멸하는 것도 아니며, 항상한 것도 끊어진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고 또한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 또한 아니다. 이와 같이 한 마음 안에서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해야 할 것이다.]

菩薩所應作し 應當次第學ノチヘ 於學於無學ミ 勿生分別想ノチヘ 是名第一道リヘンカ/ヘンカ/ 亦名摩訶衍リヘンヌヒヘ/ヘンヌヒヘ/リヘンヌヒヘ <梵網45b>

[보살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꼭 차례로 배워 익혀야 한다. 학과 무학에 대해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이것을 이름하여 제일도라 하며 또한 마하연 대승이라고도 한다.]

一切戲論處リ 悉由是處… 滅ンヒヒヘ/ンカ/ 諸佛薩婆若リ 悉由是處… 出ンヒヒヘ//ンヒヒ、 是故… 諸佛子ㄱ 宜發大勇猛リ今ㅣ//リオㅣ <梵網46a>

[일체의 이론과 쓸데없는 생각이 모두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멸하며, 부처의 일체지가 모두 이곳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고로 불자는 당연히 용맹스러운 마음을 발해야 한다.]

於諸佛淨戒ミ//ンミ 護持如明珠ノチヘ 過去諸菩薩ㄱ 已於是中0/0/ミ學ンニカ 未來者ㄱ 當學ンカ 現在者ㄱ 今學ンヒヒヘ//ンヒヒ、 <梵網46a>

[부처의 청정한 계에 대해서는 명월주 같이 호지할 것이다. 과거의 모든 보살들은 이미 이 가운데서 배우셨고, 미래 보살도 마땅히 배울 것이며, 현재의 보살도 지금 배우고 있다.]

此是佛行處ㅣㅂ//ㅂ 聖主0/ㅅ/ 所稱歎ㅣㅂᄉ 我已隨順說0/0/ᄂᆞᆫ 福德無量聚ᄂᆞᆷ/ᄂᆞᆷ/ 廻以施衆生ᄂᆞᄋᆞㅂ 共向一切智ㅁᄉ <梵網46a>

[이것이 불행처인데 성주가 칭찬하고 찬탄한 바다. 내가(구마라습삼장) 이미 순서를 좇아 다 말했으며, 한량없는 복덕을 쌓아 중생에게 돌려줌으로써 베푸니 일체지를 함께 지향하기를 바란다.]

願聞是法者ㄱ 疾得成佛道{ㅣᄉᆞㅣ}ㅁᄉ/ㅣᄉᆞㅣ/ㅣᄋᆞㅣ <梵網46b>

[원컨대 이 법을 듣는 자는 불도를 빨리 능히(얻어서) 이루기를 바란다.]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梵網經菩薩戒後序**

沙門釋 僧肇 述

夫宗本湛然理不可易 是以窮妙於眞源之境 萬行起於深信之宅 是以天竺法師鳩摩羅什誦持此品以爲心首 此經本有一百一十二卷六十一品 什少踐於本方齊異學於迦夷 弘始三年 淳風東扇 秦主姚興道契百王玄心大法於草堂之中 三千學士漢什(參)定大小二乘五十餘部 唯梵網經最後誦出 時融影等三百餘人 一時受菩薩十戒 豈唯當時之益乃有累劫之津故與道融別書出此心地一品當時有三百餘人誦此一品故卽書是品八十一部流通於後代持誦相受囑諸後學好道君子願來劫不絶共龍華